

2015학년도 고1 진학지도 자료집

contents

teacher.visangedu.com
www.visangedu.com

Chapter I

대학입시제도 따라잡기

- 4 2015. 수능시험 개편 방안
- 7 수준별 수능에 따른 수능영역별 반영 유형
- 9 2015학년도 대입전형의 이해
- 14 2015학년도 수능 학습 전략

Chapter II

2013. 입시 특징 및 대비 전략

- 15 2013학년도 수시모집 특징
- 19 2013학년도 정시모집 특징
- 23 2013학년도 서울대 입학 전형 주요 사항
- 28 수시/정시 전형별 강점 찾기
- 54 수시 / 정시 대비 전략
- 56 2013학년도 의학교열 전형 방법

Chapter III

입학사정관 전형 안내

- 61 입학사정관제 개요
- 67 2012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 결과
- 71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의 분류
- 73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 대비 전략

Chapter IV

2012. 수능 출제 경향 분석 및 수능 대비 전략

- 76 2012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 85 2015학년도 수능 주요 개편 사항
- 94 2015학년도 수능 대비 학습 전략

Chapter V

대학별고사 출제 경향 및 대비 전략

- 101 논술 출제 경향 및 대비 전략
- 106 면접·구술 출제 경향 및 대비 전략
- 109 적성검사 출제 경향 및 대비 전략

본 책자는 2012년 2월 3일에 대교협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각 대학의 세부사항은 수시로 변동 될 수 있으니, 수시/정시 지원 시에는 각 대학에서 발표하는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글파일이 필요하신 선생님께서는 메일링 라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링 라운지>

⇒ <http://teacher.visangedu.com> 접속 (회원가입 확인~!!!)

⇒ 「메일링라운지 비상에듀자료실」에서 다운로드

Chapter I.

대학입시제도 따라잡기

1. 2015학년도 수능시험 개편 방안



이것만은 꼭!

- ▶ 국어·수학·영어 : A·B형 수준별 시험 제공
- ▶ 국어 듣기 평가 → 지필평가로 대체
- ▶ 국어·영어 문항수 50 → 45 (5문항 축소)
- ▶ 학교 수업을 통해 시험 준비할 수 있도록 교과 중심의 출제를 강화
- ▶ 영어 듣기문항 17문항 → 22문항 확대
- ▶ 사회·과학탐구 : 최대 3과목 선택 → 2과목으로 축소
- ▶ 제2외국어/한문 : 베트남어 추가

고1 학생들이 응시하는 2015학년도 수능 시험 개편 방안은 지난 2009년 12월에 확정된 2009 개정 교육과정(국어·수학·영어 교과외의 수준별 편성, 사회교과외의 과목 조정 등)을 반영하고, 수험생이 본인의 진로 등에 따라 필요 이상으로 수능 시험 준비를 하지 않도록 국어·수학·영어 과목에 수준별 시험을 도입하고 탐구 과목을 축소하였다.

수준별 시험은 교과 중심의 출제 강화와 더불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 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대학의 입장에서는 쉬워진 수능시험으로 인해 수능성적 이외의 전형자료(학생부, 대학별고사, 서류)를 지금보다 더 중요하게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전형 자료의 변화는 주요대학의 [수시 : 정시]의 선발 비중이 현재 평균 [68 : 32]에서 2013학년도 서울대와 비슷한 대략 [80 : 20]의 비율로 수시 비중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많아졌다. 수시의 비중이 높아진 만큼 학생부는 수시모집에서 여전히 중요한 전형자료가 되고, 특히 학생부 교과 성적(석차 등급)의 영향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특정 수능 영역에 집중하는 경향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수험생 개인의 수능 영역별 성적의 편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5학년도 수능 주요 시행 사항

현행		개정	
언어영역		국어	A형* B형*
수리영역	나형 가형	수학	A형* B형*
외국어영역		영어	A형* B형*
탐구영역 (사회·과학·직 업 중 택 1 하여 응 시)	사회탐구영역 (11과목 중 3과목 선택)	탐구 (사회·과학·직업 중 택 1 하여 응시)	사회 (10과목 중 2과목 선택)
	과학탐구영역 (8과목 중 3과목 선택)		과학 (8과목 중 2과목 선택)
	직업탐구영역 (17과목 중 3과목 선택)		직업 (5과목 중 1과목 선택)
제2외국어/한문영역 (8과목 중 1과목 선택)		제2외국어/한문 (9과목 중 1과목 선택)	

* B형은 현행 수능 수준, A형은 현행 수능보다 출제범위를 줄이고 쉽게 출제
B형의 경우 최대 2과목까지 응시 가능하고, 국어B와 수학B를 동시에 선택할 수 없음.

1. 국어·수학·영어 수준별 수능 시험 제공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국어와 영어 과목도 현재 수학(수리 가형/나형)과 같이 A형과 B형 시험을 제공한다. B형은 현행 수능 수준을 유지하되, A형은 문제은행식 출제를 강화하며, 현행 수능보다 출제 범위를 줄이고 쉽게 출제하여 수험생들이 자신의 진로나 진학하고 싶은 모집단위에 따라 국어·수학·영어 과목에서 각각 A형과 B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수험생의 수능 시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B형의 경우 최대 2과목까지 응시 가능하도록 하고 국어B와 수학B를 동시에 선택하는 것은 제한했다.

문항 출제에 있어서도 기존 언어영역과 외국어영역의 범교과적 출제가 학교수업으로 시험을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개선해 교과 중심의 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수능 시험의 과목 명칭과 성격을 ‘언어 → 국어’, ‘수리 → 수학’, ‘외국어 → 영어’로 교육과정과 일치되도록 변경했다.

국어의 경우 모국어 듣기평가는 국어 능력 측정 의미가 적어 듣기평가(5문항)를 지필평가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어와 영어의 문항 수는 5개 축소하고(45문항 ; 2점 문항 35개, 3점 문항 10개) 시험시간(언어 80분, 영어 70분)과 배점(100점 만점)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교과 중심의 출제 강화

별도의 사교육 없이 학교 수업을 통해 수능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수능시험에서 출제하는 내용을 일치시켜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범교과적 출제로 시험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는 국어(언어), 영어(외국어) 과목의 교과 중심 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3. 사회 및 과학탐구 과목 조정

사회 및 과학 탐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변경된 과목을 수능시험 과목에 반영하였고, 수능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선택 과목 수를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였다.

현행 (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에 응시)	개편 (사회 또는 과학에 응시)
<p>< 사회탐구 : 11과목 중 3과목 선택 >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국사, 윤리(윤리와 사상, 전통윤리)</p>	<p>< 사회 : 10과목 중 2과목 선택 > 한국지리, 세계지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p>
<p>< 과학탐구 : 8과목 중 3과목 선택 > 물리 I, 물리 II, 화학 I, 화학 II, 생물 I, 생물 II, 지구과학 I, 지구과학 II</p>	<p>< 과학 : 8과목 중 2과목 선택 > 물리 I, 물리 II, 화학 I, 화학 II, 생명과학 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 지구과학 II</p>

4. 제2외국어/한문 시험 유지

제2외국어/한문 시험은 수능에서 계속 유지하고 평가 개선을 위해 별도의 평가 방법을 준비하기로 했다. 당초 제2외국어/한문을 수능시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대체평가에 대한 준비 없이 수능에서 제외하면 정상적인 제2외국어/한문의 학교 교육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 평가 방법이 준비되는 시점에서 분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 수준별 수능에 따른 수능영역별 반영 유형

■ 수준별 시험 도입에 따라 수준별로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가?

주요대학들의 2015 대입 전형 계획과 수능 유형별, 영역별 반영 방법이 발표되기 이전까지는 구체적인 A/B형 선택을 제시하기 힘들겠지만, 국어B와 수학B를 동시에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인문계열의 경우, 국어B, 수학A, 영어B, 사탐(2과목)으로, 자연계열의 경우, 국어A, 수학B, 영어B, 과탐(2과목)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영어는 계열에 관계없이 B형을 반영하는 대학이 많을 것으로 보아 영어B형 응시자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며, 인문/자연계열에 따라 국어와 수학의 선택 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수리 가형과 나형의 비중으로 국어와 수학의 A/B형 선택 비중도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2013 수능 선택과 비교해 보면 인문계열은 2015수능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지만, 자연계열의 경우, 국어가 현재보다 출제범위가 줄고 난이도가 쉬워진 국어A형을 응시하기 때문에 국어 공부에 대한 부담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구분	수준별	응시유형(예상)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 수
인문계	상위권	B	A	B	2
	중위권	B	A	A/B	2
	하위권	A/B	A	A/B	1
자연계	상위권	A	B	B	2
	중위권	A	B	A/B	2
	하위권	A	A/B	A/B	1
예체능	전체	A/B	A/B	A/B	1

*일부 과목(예:국어 혹은 수학)에 대해 응시 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입학사정관제와 동일계 전형 활성화 등을 통해 특성화고 졸업자의 경우 가급적 수능보다 그 외의 전형자료를 활용하여 선발하도록 대학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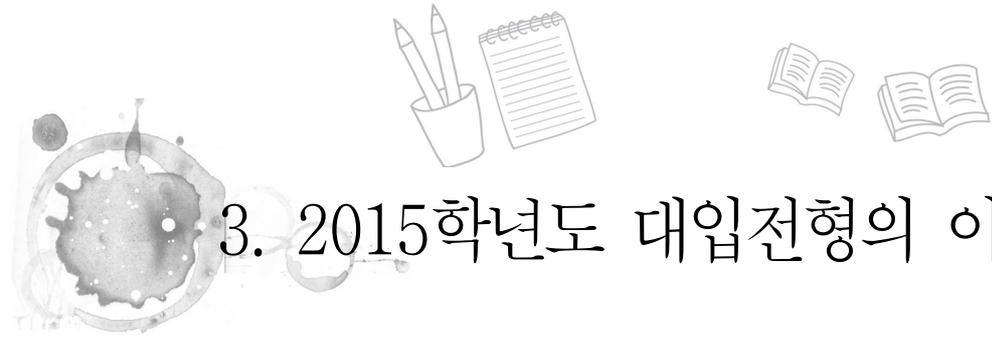


2014학년도 주요대학 수능 영역별 반영 유형(예시)

* 최종 확정치 아니므로 바뀔 수 있음.

대학	계열	국어	수학	영어	가산점
경희대	인문	B	A	B	
	자연	A	B	B	
	예체능	A		A	
단국대(죽)	인문	B	A	B	
	자연	A	B	B	
	예체능	A/B	A/B	A/B	B형 가산
숙명여대	인문	B	A	B	
	자연	A	B	B	
	예체능	A/B		A/B	
중앙대	인문	B	A	B	
	자연	A	B	B	
	예체능	A	A	A	
한양대(서)	인문	B	A	B	
	자연	A	B	B	
	예체능	A/B	A/B	A/B	B형 가산
한양대(예)	인문	B	A	B	
	자연	A	B	B	
	예체능	A		A	
단국대(천)	인문	A	A/B	A/B	B형 가산
	자연	A	B	B	
동국대	인문	A/B	A/B	A/B	B형 가산
	자연	A/B	A/B	A/B	B형 가산
	예체능	A/B		A/B	B형 가산
인천대	인문	A/B	A/B	A/B	B형 가산
	자연	A/B	A/B	A/B	B형 가산
	예체능	A/B		A/B	B형 가산
송실대	인문	A/B	A/B	B	
	자연	A	B	B	
	자연(컴퓨터, 정보 통계 등 일부)	A/B	A/B	B	B형 가산





3. 2015학년도 대입전형의 이해

수시 모집

수시는 전형요소의 반영 방법에 따라서 크게 '학생부(내신) 중심전형', '논술 중심 전형', '면접 중심 전형', '적성평가 중심전형' 이렇게 4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위의 4가지 유형은 분류 편 의상 나눈 것일뿐 실제로는 학생부+논술, 학생부+면접 등 여러 전형요소를 같이 반영한다. 참고로 대 학별고사에서 논술을 시행하는 대학은 비교적 상위권대학인 경우가 많고, 적성검사는 중위권 대학에서 주로 실시한다.

학생부 또는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입 전형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을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 전형도 수시 전형 유형 중 하나이다.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성 적, 개인 환경, 잠재력 및 소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특기, 대인관계, 논리 력, 창의력 등이 중요한 평가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 일반전형

일반전형이란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형을 가리킨다. 수시 일반 전형에서는 대부분 학생부(내신)성적을 중심으로 하되 논술과 면접, 적성검사 등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선발한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해에 비해 2013학년도 일반전형 모집인원은 7,518명이 증가 하였고, 특별전형은 8,633명 감소했다. 그러나 계량화된 학생평가를 지양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력 을 평가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2015학년도에는 일반전형보다 특별전형의 비율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전형유형	2013학년도 모집인원(%)	2012학년도 모집인원(%)
일반전형	126,098명(53.4%)	118,850명(49.9%)
특별전형	110,251명(46.6%)	118,884명(50.1%)
합계	236,349명	237,734명

이 말은 학생부가 앞으로도 당분간 중요한 전형요소로 역할은 하겠지만 그 비중은 점점 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지만 일반전형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학생부 성적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특별전형

특별전형이란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형을 가리킨다. 특별전형은 다시 정원내 특별전형과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나누어진다

특별전형의 종류 및 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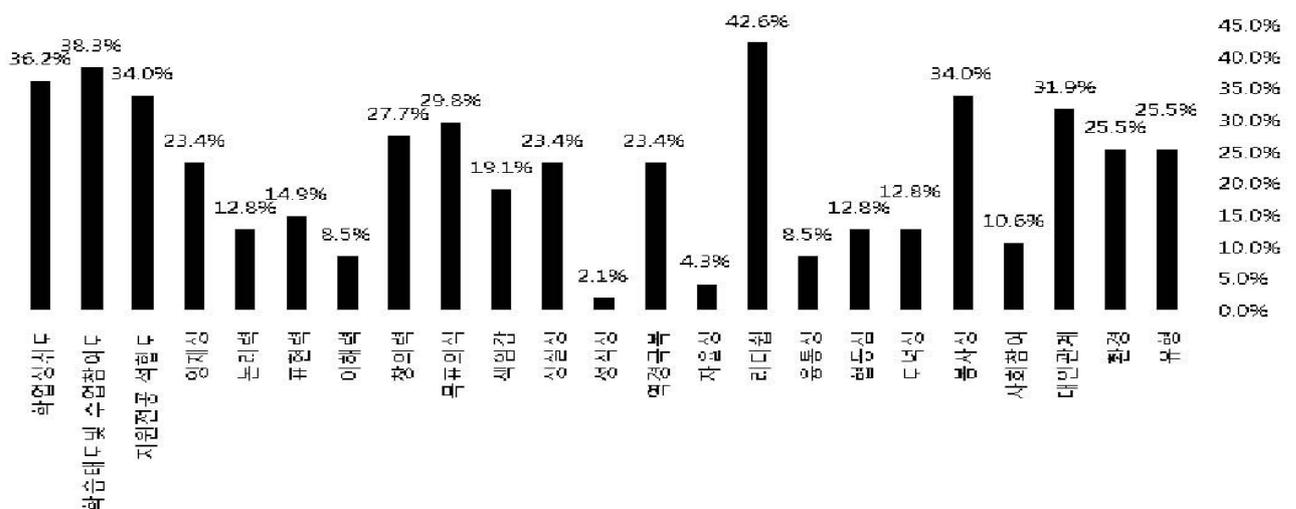
정원내 특별전형	정원외 특별전형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동일계 학과 지원자	-농어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지방학과와 관련 있는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자
-예능, 체능 특기자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독자기준 특별전형 자격에 충족된 자	-특수교육대상자(지체부자유자에 한함)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정원내 특별전형에서 ‘독자기준 특별전형자격에 충족된 자’라는 항목이다. 서울대의 ‘지역균형’이나 ‘특기자전형’ 모두 대학 독자적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이다. 즉, 각 대학별로 본교의 기준에 맞게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독자적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전형 유형 및 전형 방법이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수시 특별전형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해당대학 및 모집단위의 특별전형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자격조건을 갖추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다른 전형요소들도 최소한 기본은 유지해야 한다.

■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된 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단지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원한 학생의 잠재력, 대학의 설립이념 및 모집단위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성적과 함께 학생의 잠재력이다. 이를 위해 지원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는 물론 특별활동 관련 증빙자료 등 잠재력을 보여주는 각종 서류 등을 평가한다.

추천서의 전형요소 빈도



*2009년 정부지원 47개 대학의 추천서에 나타난 전형 요소 빈도

-출처: 한림대 선임입학사정관 이교혁, 「공통추천서 고안을위한 전형영역, 전형요소표준화」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개인별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다.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는 각 대학에서 제시한 문항에 맞게 작성하고, 포트폴리오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에 담아내지 못했던 자신의 특징 및 장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된다. 지원한 전공(학과)을 위해 자신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얼마나 보여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대학별로 요구하거나 중요시하는 전형요소는 유동적이나 지난해 전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심포지엄(2010. 2. 18)에서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추천서의 경우 조사대상(47개 대학)의 질문 문항에 나타난 전형요소별 빈도수는 다음그림과 같이 학업영역에서는 '학습태도 및 수업참여도'와 '학업성취도', '창의력'이, 인성관련영역에서는 '봉사성'과 '대인관계', '리더쉽'이 가장많았다. 지원 대학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염두에 두고 있는 예비고1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정시 모집

■ 일반전형 vs 특별전형

수시와 마찬가지로 정시에도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이 있다. 그 중 일반전형은 수능성적과 학생부 성적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이에 비해 특별전형은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형으로 농어촌학생, 전문계고교졸업자,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등이 있다.

■ 우선선발 vs 수능 100%

전형방법에는 일반선발과 우선선발 방법이 있는데 일반선발은 수능성적을 중심으로 하되 학생부, 논술, 면접 등을 덧붙여 학생을 선발 할 수 있는 방식이다. 반면 우선선발은 전체선발인원 중에서 일정 인원을 수능 성적만으로 우선 선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우선선발 되려면 수능성적이 상당히 좋아야 한다.

2013학년도 수능 우선 선발 및 수능 100%전형 주요대학

※ 본표기준(캠퍼스 제외)

구분	수능 우선선발(선발비율%)	수능 100% 전형
가군	가톨릭대(50), 국민대(50), 서울과학기술대(50), 숙명여대(50), 성균관대(70), 아주대(50), 연세대(70), 이화여대(70), 중앙대(70), 한양대(70)	가천대(글로벌), 건국대, 경희대, 광운대, 동국대, 성신여대, 송실대, 인하대, 한국외대
나군	경희대(70), 동국대(미정), 서강대(80), 서울시립대(70), 성균관대(70), 상명대(50), 한국외대(70)	가천대(글로벌), 가톨릭대, 건국대, 국민대, 단국대, 동덕여대, 부산대, 상명대, 서울과학기술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아주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다군	건국대(미정), 차의과학대(60)	가천대(글로벌), 가톨릭대, 경기대, 경희대, 국민대, 명지대, 상명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아주대, 중앙대, 한성대, 홍익대





정시에서 주요 대학들은 수능우선선발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비율도 연세대,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 등이 70%나 되는 등 모집인원 상당수를 수능으로만 선발하고 있다. 또한 주요 대학들 다수가 일부 모집군에서 수능 100% 전형 실시, 확대하는 등 수능의 비중을 상당히 높였다. 그 이유는 다른 전형요소 보다 수능의 변별력이 높기 때문이다. 2014학년도에 수준별 수능이 도입되면 그에 맞춰 전형방법은 다소 변화되겠지만, 수능의 입시영향력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지 않을까 예측된다.

■ 학교 수업의 변화

2009 개정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수업 내용과 방식이 변화하게 된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초·중·고 공통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10년(고1학년까지)에서 9년(중3학년)으로 축소
	교과별 연간 수업시간을 20% 증감 운영가능
고등학교	모든 교과 선택제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8개 이하로 편성(현행 10 ~ 13 과목)
	사회(도덕)과 선택과목을 13과목에서 9과목으로 축소
	고1 '역사' 과목은 '한국사'로 변경
	외고는 전문교과 중 60%를 전공외국어로 이수하고, 전공 외국어 포함 2개 외국어 교육
도입 시기	2011년: 고교 1학년
	2012년: 고교 2학년
	2013년: 고교 3학년

개정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특징은 첫째, 이수과목 수의 축소다. 기존의 5영역(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체능, 외국어, 교양)에서 4영역(기초, 탐구, 예체능, 생활교양)으로 한 영역이 줄어들었다. 외국어의 영역이 기초영역으로 이동하고, 교양영역의 것이 생활교양영역으로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각 과목이 통합되어 학기당 배우는 과목이 현재 최대 13개에서 8개로 줄어들었다. 선택과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회(도덕)과 선택과목도 현행 13과목에서 9개 과목으로 통합, 축소된다. 고교 3년 동안 이수해야 할 단위도 204단위로 축소되며, 대학과목 선이수제 과목 등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초·중·고 이수과목 수 변화

초, 중학교
10개 ⇨ 7개

고 등 학교
5영역 ⇨ 4영역

기본교과군	통합교과군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외국어, 체육, 음악, 미술	국어, 수학, 사회도덕, 과학, 실과, 외국어, 체육, 예술



인문사회	과학기술	기초	탐구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예체능	외국어	예체능	생활교양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제2외국어	체육, 예술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교양	한문, 교양
----	--------

두 번째 특징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강화다.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 공부 이외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구분되어 있던 비교과시간을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명칭으로 통합하고, 시간도 주당 2시간에서 4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

세 번째 특징은 집중이수제의 도입이다. (교과) 집중이수제란 “교과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다음 학기에 배우는 일부 과목을 한 학기에 몰아서, 즉 집중해서 수업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주당1시간만 편성된 수업을 한학기 또는 한 학년에 집중 이수하는 것이다.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던 수업시간을 블록(Block)을 이루도록 했다는 점에서 '블록타임제'라고도 부른다.

네 번째 특징은 수준별 학습의 강화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집중이수제 외에 교과군별로 연간 총 수업시간의 20% 범위에서 수업시간을 자율적으로 증감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신설됐다. 이렇게 되면 보통 주요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로 몰리는 경향이 있지만 이 시간을 이용해서 수준별로 '우열반'을 편성해서 수업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하지만 학생들의 실력에 맞춰 반을 편중되지 않게 편성하여 개별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업하는 방식을 전면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수한 학생의 경우에는 이 시간을 선행보다는 심화학습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2015학년도 수능 영역별, 수준별 학습 전략

2015학년도 수능은 수험생의 수능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수능에서 출제하는 내용이 일치되도록 교과 중심의 출제가 강화되므로, 현재보다 학교 공부(내신)가 더 중요해진다. 더불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출제되었던 주요 개념과 단원은 수능에서도 똑같이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학교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 중에서 수능 시험 문제로 다시 출제될 수 있는 문제와 수능 기출 문제 중에서 학교 내신으로 출제될 수 있는 문제 위주로 수능 시험 문제를 영역별로 재분류 한 뒤에 고난도 문항보다는 중간 난이도 이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우선 학습을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

2012년 5월에 현재 고1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평가를 치르고 나면 수능 시험의 출제 형태와 난이도가 명확해지고, 구체적인 대비 방법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학생들은 학생부(내신) 교과와 수능 시험 공부를 병행해 온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중 대다수는 평소에도 수능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먼저 배치하고, 학교 공부 연습/복습 시간을 뒤따라 배분 했다. 특히 학교 시험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 기간에 맞추어 학생부 교과 학습을 집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수능과 학생부 교과 학습을 따로 하지 않고 과목별로만 구분해 학습하는 형태도 새롭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도 금년 5월 모의평가의 수능 출제 형태가 공개되고 나면 확실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국어는 시험 시간은 변함없고, 문항수가 5문항 줄어들어 수험생의 학습 시간 부담이 줄었다. 국어A형은 I과목, 국어B형은 II과목을 중심으로 교과내의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출제할 예정이며, 듣기평가 문항은 지필평가로 대체되고, 2점 문항 35개, 3점 문항 10개로 조정(현재 2점 40문항, 1점 5문항, 3점 5문항)되므로 현재와 똑같은 난이도로 출제되더라도 문항 수와 배점 조정에 의해 전체 평균은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영어의 경우 국어와 마찬가지로 5문항이 줄어들고, 듣기 문항이 34%(17문항)에서 50%(22문항)로 확대되어 듣기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듣기 문항이 읽기와 쓰기의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지는 않지만 듣기 영역에 부족한 수험생들은 지금부터 듣기 훈련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공부해 나가야 한다. 줄어든 문항 수만큼 배점이 높게 조정되어 국어와 마찬가지로 평균은 현재보다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듣기평가에서 도입되는 세트형 문항(1대화문 2문항)은 대화문을 들은 후 두 번째 문제 풀이에 시간이 더 소요되므로 지금보다 문제 풀이에 다소 까다로울 수도 있다. 수학은 인문은 A형, 자연은 B형으로 맞추어 현재 수준의 출제유형과 난이도로 대비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 탐구는 최대과목수가 2과목으로 줄어들지만, 최근 국어, 수학, 영어과목이 쉽게 출제되는 쉬운 수능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변별력과 영향력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탐구 과목도 과목수에 대한 부담은 줄었지만 2과목을 선택하고 집중해서 완전 학습해야 하므로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



Chapter II.

2013. 입시 특징 및 대비 전략

▶ 2015학년도 입시 요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2013학년도 기준을 서술함.

1. 2013학년도 수시모집 특징



이것만은 꼭!

- ▶ 수시 모집 선발 비중 소폭 증가 62.1%(2012) → 62.9%(2013)
- ▶ 수시 지원 횟수 6회로 제한
- ▶ 수시 모집 미등록 총원 기간 (2012.12.15 ~ 12.19)
- ▶ 입학사정관제 전형 기간 변경 (2012.8.16 ~ 12.3)
- ▶ 학생부 영향력 지속 (학생부 100% 반영대학 88개교)
- ▶ 대학별 고사 반영 비중 소폭 감소 (논술 실시 32개교, 면접 실시 97개교)

1. 수시모집 비중 확대 (미등록 총원 및 정시 이월 감소)

2013학년도 수시모집에서는 전체 모집인원의 62.9%인 236,349명을 선발할 예정인데, 2012학년도 62.1%, 2011학년도의 60.7%보다 소폭 늘어나는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해에 비해 총 모집인원이 7,035명 감소하여 수시모집 선발인원도 1,385명 줄어들게 된다.

모집 시기	2013. 모집인원 (%)	2012. 모집인원 (%)	2011. 모집인원 (%)	2010. 모집인원 (%)
수시 모집	236,349명(62.9)	237,734명 (62.1)	232,781명 (60.7)	219,024명 (57.9)
정시 모집	139,346명(37.1)	144,996명 (37.9)	150,761명 (39.3)	159,117명 (42.1)
합계	375,695명	382,730명	379,215명	378,141명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2012학년도 수시모집 등록률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높아졌는데, 이는 수시 모집의 높은 경쟁률과 더불어 치열한 정시 경쟁을 기피하려는 심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추세는 2013학년도에도 이어져 서울소재 주요대학 및 지방 국·공립대의 등록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실질적인 수시모집 비중의 확대가 예상된다.





대 학	2012학년도	2011학년도	2010학년도	2009학년도
연 세 대	90.3%	76.9%	75.0%	83%
고 려 대	90.9%	72.1%	76.8%	82%
성균관대	88.3%	70.8%	73.1%	76%
한 양 대	85.9%	71.9%	78.0%	64%
경 희 대	81.6%	66.6%	68.0%	90%

*주요 대학 수시모집 등록률 변화 추세

대 학	수시모집 선발 비율 변화			2012학년도 정시 이월 인원			2011학년도 정시 이월 인원		
	2012학년도	2011학년도	증감	선발계획	실제모집	이월인원	선발계획	실제모집	이월인원
고 려 대	66.46%	57.83%	▲8.63%	1,186	1,426	240	1,865	2,586	721
서 강 대	67.90%	61.06%	▲6.84%	540	623	83	891	1,075	184
한 양 대	68.54%	58.79%	▲9.75%	1,038	1,384	346	1,282	1,922	640
중 앙 대	67.18%	60.75%	▲6.43%	626	841	215	1,366	1,757	391
경 희 대	55.85%	51.42%	▲4.43%	722	974	252	876	1,315	439
한국외대	65.95%	44.72%	▲21.23%	516	834	318	555	776	221

*주요 대학 수시모집 선발 비율 변화 및 정시 이월 인원(수시 미충원으로 인하여 정시모집으로 이월된 인원)

2. 수시 지원 횟수 6회 제한

지금까지 무제한으로 복수지원이 가능하던 수시 모집 지원이 6회로 지원 횟수가 제한되었다. 수시모집에서 62.9%를 선발하고 정시모집에서 37.1%를 선발하므로 정시모집 가나다군 3회 지원 대비 수시모집 6회 지원은 모집인원 비율로 보아서는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시모집이 대학마다 5~10개 내외의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전형유형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많은 지원 횟수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시모집 지원 실제 사례를 보면,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성적이 상위권인 수험생은 3~5회, 중위권은 7~10회, 중하위권에서는 10회 이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모집에서 지원 횟수가 6회로 줄어들게 되면 먼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수준과 자신이 강점을 가진 전형요소를 높게 반영하는 전형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해 지게 된다. 즉, 어느 대학과 어떤 전형유형을 위주로 준비를 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해 졌다. 미리부터 목표대학과 전형 유형을 결정하고 맞춤 입시를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수시 모집 대학 선택에서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 수준을 가늠해 보고, 수시에서 주로 상향 지원하는 추세가 많았는데, 수시모집 지원 경향이 적정 지원과 안정 지원 중심으로 바뀌어 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정시 가나다군 3회 지원과 마찬가지로 수시 6회 지원에서도 눈치 지원이 새롭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3. 학생부 영향력 지속

수시는 정시와 달리 학생부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 편인데 2013학년도에는 학생부 100% 전형으로만 선발하는 대학은 88개교로 전년도에 비해 3개교가 줄었다.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주요대학은 일반선발에서 학생부의 반영비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수시모집 학생부 반영비율	100%	80%~ 100%미만	60%~ 80%미만	50%~ 60%미만	40%~ 50%미만	30%~ 40%미만
2013학년도	88개교	28개교	16개교	16개교	14개교	4개교
2012학년도	91개교	21개교	16개교	16개교	18개교	8개교

※ 2013. 대학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대교협) 참조(일반전형 인문계열 기준)

4. 논술고사, 수도권 주요대학의 수시합격 지름길

2013학년도 수시모집에서는 전국 30개 대학에서 논술고사를 치르는데, 논술 중심 전형은 수도권 주요 대학에서 주로 실시하며 모집 인원이 많고 경쟁률이 높은 특징을 가진다.

논술 중심 전형은 수도권 주요대학의 대표적인 수시모집 전형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논술100%로만 모집인원을 전부 뽑진 않는다. 또한 최근 논술비중의 축소 경향에 따라 학생부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특히 2013학년도부터는 대부분 대학들이 우선선발에서도 논술100%로 사정을 하기보다는 학생부+논술의 복합사정을 통해 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대학	모집시기	전형 유형	모집인원	전형 요소별 반영비율(%)	수능최저 학력기준
경희대	2차	일반학생	700	우선(30):학생부40+논술60 일반:학생부60+논술40	○
서강대	수시	일반전형	652	우선(50):학생부30+논술70 일반:학생부50+논술50	○
성균관대	2차	일반학생	1,186	우선(70):논술100 일반:학생부30+논술70	○
중앙대	수시	일반전형	1,036	1차(68명):학생부100 2차(347명):학생부20+논술80 3차(272명):학생부100 4차(689명):학생부30+논술70	○
연세대	수시	일반전형	1,160	우선(70):학생부30+논술70 일반:학생부50+논술50	○
이화여대	수시	일반전형	미정	우선(미정):학생부30+논술70 일반:학생부50+논술50	○
한국외대	수시	일반전형	382	우선(60):학생부30+논술70 일반:학생부50+논술50	○
한양대	2차	일반우수자	822	우선(60):학생부30+논술70 일반:학생부50+논술50	○



논술 중심 전형은 학생부보다 논술고사 성적의 영향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3~4등급 정도에 해당하더라도 논술고사 준비 정도에 따라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다.

5. 수능최저학력기준 상향

수시모집의 마지막 관문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의 충족이다. 실제로 수능최저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여 불합격되는 안타까운 사례를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 주요대학을 위주로 합격의 당락을 가르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강화되는 추세이다.

2013. 일부 주요대 최저학력기준(일반전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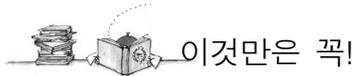
대학명	모집시기	모집단위	최저학력기준
서울대	수시	지역균형, 기회균형	2개 2등급(수능영역 지정)
고려대	수시	경영,정경,자유전공	언,수,외 1등급
		해당모집단위	2개 2등급
서강대	수시	경제, 경영	언,수,외 백분위 합 292이거나 3개 2등급
		인문사회(경제,경영 제외)	언,수,외 백분위 합 288이거나 3개 2등급
		자연계열	수(가),탐(과) 백분위 합 188이거나 2개 2등급 (수가 또는 과탐 택1)
성균관대	2차	인문,교육	언,수,외 합 4등급 또는 수,외 백분위 합 196
		사회,경영	언,수,외 합 4등급 또는 수,외 백분위 합 197
		글로벌(리더/경제/경영)	언,수,외 모두 1등급 또는 수,외 백분위 합 198
서울시립대	1차	해당모집단위	수,탐구 합 3등급 이내

각 대학들은 보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학생부와 대학별고사의 변별력을 보완할 방법으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일지라도 최저학력기준 통과를 위하여 혹은 정시 대비를 위하여 수능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2. 2013학년도 정시모집 특징



- ▶ 수능 시험 영향력 증대 (수능 100% 선발 88개교 → 97개교)
- ▶ 정시 모집 인원·수시 이월 인원 지속적인 감소, 경쟁률 상승 예상
- ▶ 정시 분할 모집 대학 감소 (170개교 → 165개교)
- ▶ EBS 수능 연계에 따른 쉬운 수능 유지

1. 수능 시험 영향력 증대

2013학년도 정시모집에서는 대부분 수능시험 성적(표준점수, 백분위)을 60% 이상 활용한다. 또한 모집인원 전체를 수능 100%로 선발하는 전형과 정원의 30~70% 내외를 수능 성적만으로 우선선발하는 전형에 이르기까지 수능 시험의 활용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정시모집 수능 반영비율	100%	80%~ 100%미만	60%~ 80%미만	50%~ 60%미만	40%~ 50%미만	30%~ 40%미만	30%미만
2013학년도	97개교	27개교	36개교	20개교	7개교	6개교	2개교
2012학년도	88개교	41개교	40개교	16개교	9개교	7개교	2개교

※ 2013. 대학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대교협) 참조(일반전형 인문계열 기준)

정시모집 주요대학 중에서 분할 모집을 하지 않는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는 수능 우선 선발만 실시하며 우선 선발 비율도 80%~70%로 매우 높다. 분할 모집을 실시하는 경희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한양대 등은 '가'군과 '나'군에서 수능 우선 선발과 수능 100%전형을 실시한다.

한편 수도권 주요 대학과 지방 국립대 등은 수능 100% 전형을 분할 모집의 1개 군에서 대부분 실시하고 있다.



2013학년도 수능 우선 선발 및 수능 100%전형 주요대학

※ 본교기준(캠퍼스 제외)

구분	수능 우선선발(선발비율%)	수능 100% 전형
가군	가톨릭대(50), 국민대(50), 서울과학기술대(50), 숙명여대(50), 성균관대(70), 아주대(50), 연세대(70), 이화여대(70), 중앙대(70), 한양대(70)	가천대(글로벌), 건국대, 경희대, 광운대, 동국대, 성신여대, 송실대, 인하대, 한국외대
나군	경희대(70), 동국대(미정), 서강대(80), 서울시립대(70), 성균관대(70), 상명대(50), 한국외대(70)	가천대(경원), 가톨릭대, 건국대, 국민대, 단국대, 동덕여대, 부산대, 상명대, 서울과학기술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아주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다군	건국대(미정), 차의과학대(60)	가천대(글로벌), 가톨릭대, 경기대, 경희대, 국민대, 명지대, 상명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아주대, 중앙대, 한성대, 홍익대

전체 모집정원의 62.9%를 선발하는 수시모집에서도 수능 시험 성적을 최저학력기준으로 설정한 대학이 대다수이다. 특히 주요대학은 수시모집 우선선발모집에서 일반선발보다 더 높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해 수능 성적이 우수한 수험생을 선발한다. 수시모집의 지원 경쟁률이 수십 대 1 심지어 100 대 1이 넘는 경우라도 우선선발의 최저학력기준 내에 들게 되면 실질경쟁률은 한 자리 숫자로 좁혀질 수 있다.

2. 정시 모집인원·수시 이월인원 감소 및 경쟁률 상승

2013 정시모집에서는 지난해 정시모집보다 5,650명이 줄어든 139,34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올해에도 수시모집 추가합격 총원 기간을 별도로 지정해 실시하기 때문에 수시모집에서 정시모집으로 이월되는 인원은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정시 모집 인원 감소를 추세를 상위권 주요 대학에서부터 큰 폭으로 줄어들며 따라 중위권대학까지 연쇄적인 경쟁률 상승이 예상된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포함한 서울 소재 10개 대학을 기준으로 정시모집(일반전형) 인원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중앙대	한국외대	경희대
2013	643	1,186	1,100	530	1,198	1,246	1,032	573	602	945
2012	1,219	1,186	683	540	1,274	974	891	712	516	952

※ 본교 기준(캠퍼스 제외)이며, 수시 미충원 이월 인원은 포함되지 않음.

2013학년도 수시모집 비율을 80%내외까지 높인 서울대와 중앙대는 정시모집 인원 감소가 두드러지는 반면, 연세대와 이화여대, 한양대는 지난해에 비해 정시모집 인원이 늘어났다.



3. 분할 모집 대학 소폭 감소

정시모집 분할 모집 대학은 2010학년도 157개교, 2011학년도 162개교, 2012학년도 170개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증가하였으나 2013학년도에는 165개교로 소폭 줄어든다. 가/나/다군으로 3개군에서 분할모집을 실시하는 대학 역시 2011학년도 59개교에서 2012학년도에는 66개교로 늘어났으나 2013학년도에는 다시 61개교로 축소된다.

정시모집 분할모집 대학

분할모집 군	대 학 명
가/나 (30개교)	경북대, 공주대, 덕성여대, 동국대(서울), 동아대, 동의대, 백석대, 부경대, 부산대, 상명대(천안), 성균관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연세대(서울), 연세대(원주), 용인대, 인천가톨릭대, 인하대, 장로회신학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중앙대(안성), 충남대, 충북대, 한국외대(서울), 한국체육대, 한남대, 한밭대, 한양대(서울)
가/다 (38개교)	건국대(글로벌), 경상대, 고려대(세종), 광운대, 광주대, 군산대, 금오공과대, 김천대, 나사렛대, 동국대(경주), 동신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삼육대, 상지대, 서경대, 서울신학대, 성결대, 신경대, 안동대, 영남대, 영동대, 예원예술대, 원광대, 인천대, 제주국제대, 중원대, 차의과학대, 창원대, 한국교통대, 한라대, 한북대, 한서대, 한성대, 한신대, 한일장신대, 호남대, 호서대
나/다 (36개교)	감리교신학대, 강남대, 건동대, 경남과학기술대, 경운대, 경희대(국제), 계명대, 고신대, 그리스도대, 금강대, 꽃동네대,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동덕여대, 명지대, 목포가톨릭대, 상명대(서울), 서울여대, 서원대, 선문대, 성공회대, 세명대, 수원대, 순천향대, 안양대, 영산대, 예수대, 위덕대, 제주대, 한국국제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성서대, 한국항공대, 한영신학대, 한중대
가/나/다 (61개교)	가천대, 가톨릭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서울), 건양대, 경기대, 경남대, 경동대, 경성대, 경일대, 경희대(서울), 관동대, 광주여대, 국민대, 극동대, 남부대, 단국대(죽전), 대구대, 대구예술대, 대구한의대, 대불대, 대전대, 대진대, 동명대, 동서대, 동양대, 목원대, 배재대, 부산가톨릭대, 부산외국어대, 서남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세종대, 송원대, 순천대, 송실대, 신라대, 아주대, 우석대, 우송대, 울산대, 을지대, 인제대, 전주대, 중부대, 중앙대(서울), 청주대, 초당대, 추계예술대, 평택대, 한국외대(글로벌), 한국해양대, 한려대, 한림대, 한양대(ERICA), 협성대, 호남신학대, 홍익대(서울, 세종)

4. EBS 수능 연계 출제

공교육을 보완하는 수능·EBS 연계 정착(2011. 2. 17 교육과학기술부 발표)

- 학교 수업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연계 출제' 및 'EBS 교재' 개선
 - 공교육 보완을 위해 개념과 원리 중심의 연계 출제 강화
 -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구성하여 EBS 교재가 '학교 수업의 보충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
- EBS 교재 수 축소, 강의 개선 등으로 수능 준비 부담 경감
 - 연계대상 교재 수 대폭 축소 : 언·수·외 절반 수준 (45권 → 24권)
 - ※ 언어 10권 → 6권, 수리 가형 17권 → 8권, 수리 나형 7권 → 4권, 외국어 11권 → 6권 미만
 - 강의 통합 : 6단계 수준별 강의 → 초·중·고급의 3단계
- '연계 효과를 수험생이 체감' 할 수 있도록 수능 출제
 - 연계효과가 높은 유형의 비중 확대, 지나치게 변형하지 않고 출제
 - 영역별 만점자가 1% 수준으로 난이도가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출제과정에서 정답률 예측력 강화





EBS 수능 70% 연계 출제의 의미는 EBS 교재에서 나온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EBS 수능 교재의 개념, 원리 등을 이해하면 수능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도록 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EBS 교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나 개념을 활용하거나 교재의 지문, 그림, 자료, 표 등을 활용하여 출제하는 것이다. 또한 핵심 제재나 논지 활용, 문항의 변형(축소, 확대, 결합, 수정 등)도 가능하다.

연계 유형 예시

※ 영역별 특성에 따라 다음 연계 유형을 적절하게 활용

개념 및 원리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EBS교재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 및 원리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항 ※ 예시 : 화산종류 설명 → 여러 가지 화산의 특성을 비교하는 문항 선거의 기본 원칙 설명 → 사례 제시 후 해당하는 선거원칙 찾기
지문 및 자료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한 지문 또는 자료를 활용하여 새로운 문항을 구성 ※ 예시 : 경기변동 자료에서 물가와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 → 경기변동 자료에서 실업률과의 관계를 묻는 문항
핵심 제재나 논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의 제재나 논지가 유사한 지문을 활용하되 EBS 교재의 내용을 이해하였다면 수능 지문을 해결할 수 있는 문항 ※ 예시 : 해외 기업을 인수 또는 합병하면 이로온 점을 찾는 문항 → 기업 결합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묻는 문항
문항의 변형 또는 재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EBS에서 나온 지문을 재구성하거나 보완하여 문제 유형을 다른 유형으로 출제 (EBS 지문 확대, 서로 다른 지문 결합, 지문내용 수정) 단순 개념을 묻는 문항들을 융합 또는 재구성하여 출제하되 종합적인 사고력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항 ※ 예시 : 여러 가지 화학 결합의 특성을 각각 묻는 문항 → 화학 결합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지 묻는 문항

EBS 교재와 강의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은 수험생의 학업 수준과 학습 계획 그리고 공부 방법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자신의 영역별 학습 수준과 학습량을 먼저 확인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미처 챙기지 못한 영역(과목)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 EBS 강의와 교재를 현재 학습 계획표 시간 사이사이에 잘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EBS 수능 교재 및 인터넷 강의 활용 점검 사항

- 명확한 학습목표와 수준을 정하고 강의(교재)를 고르자
- 인터넷 강의도 예습과 복습이 성패의 핵심이다.
- EBS 교재와 강의를 수능 공부의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 수준에 따라 인터넷 강의의 활용 방법이 다르다. 자신의 수준과 맞춰야 한다.
- 복습은 없다고 생각하고 강의에 집중한다.
- 그래도 모르면 반복해서 듣자. 인터넷 강의의 장점은 반복 듣기이다.
- 영역별로 한 강의씩만 듣자, 여러 강의를 동시에 듣는 것은 가급적 피하자
- 나에게 맞는 강사 선생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완강이 중요하다. 강의든 교재든 한 우물을 파야 한다.



3. 2013학년도 서울대 입학 전형 주요사항

- 아래 자료는 2011.11.10(목) 서울대에서 발표된 자료임.
- 실기고사 및 내년도 입학전형에 대한 세부 내용은 2012. 3월 초에 발표 예정

서울대학교의 입학전형의 기본방향은 대학 전형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수시모집 선발인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점수 위주 선발에서 잠재력 위주 선발을 지향하고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중심의 평가를 통해 공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수시모집 선발 인원 확대에 따라 기존의 특기자전형을 수시모집 일반전형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구분	모집 시기	
	수시모집	정시모집
정원 내	· 지역균형선발전형 · 일반전형	· 일반전형
정원 외	· 외국인특별전형 ·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	·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I

*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 : 저소득층 가구 학생, 농어촌학생, 농업계열 전문계고 학생(농업생명과학대학), 군 지역 추천학생(사범대학)

*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I : 새터민, 특수교육대상자

- 수시모집 일반전형·지역균형선발, 정시모집 일반전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모집
- 정원 내 선발인원의 약 80%를 수시모집으로 선발합니다.
- 정원 내 전형 선발인원

지역균형 선발전형	수시모집 일반전형	정시모집 일반전형	계
748명(23.9%)	1,733명(55.5%)	643명(20.6%)	3,124명(100%)

[참고] 2012학년도 전형별 선발인원(정원 내)

지역균형선발전형	특기자전형	정시모집 일반전형	계
710명(22.9%)	1,173명(37.9%)	1,213명(39.2%)	3,096명(100%)



■ 미술대학, 음악대학 변경사항

- 미술대학(2011년 3월 기공지)과 음악대학은 수시모집 일반전형으로 전원을 선발하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미술대학

- 실기포함 전형 : 디자인학부(디자인전공 6명 제외), 동양화과, 서양화과, 조소과
 -1단계에서 기초소양실기평가로 5배수 이내를 선발
 -디자인학부(공예전공) : 2단계에서 1단계 기초소양실기평가, 학업능력, 학내외 활동, 면접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
 -디자인학부(디자인전공), 동양화과, 서양화과, 조소과 : 2단계에서 전공적성 실기평가, 학업능력, 학내외 활동, 면접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

모집단위	1단계		2단계	수능최저학력기준
	기초소양실기평가	선발인원	종합평가	
디자인학부(공예)	100	5배수 이내	100	수능 4개 영역(언어,수리,외국어,탐구) 중 3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디자인학부(디자인)				
서양화과				
동양화과				
조소과				
				수능 4개 영역(언어,수리,외국어,탐구) 중 1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 * 디자인학부 공예 전공은 2단계에서 전공적성실기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 종합평가에 포함되는 면접은 실기내용과 서류평가 자료를 참고하여 심층적인 질의 응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서양화과는 포트폴리오도 참고자료로 활용함
- 실기 미포함 전형 : 디자인학부 디자인전공 6명
 -1단계 서류평가 후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고, 서류평가와 면접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

모집단위	1단계		2단계	수능 최저학력기준
	서류평가	선발인원	면접	
디자인학부(디자인)	100	3배수 이내	100	4개 영역(언어,수리,외국어,탐구)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면접 : 서류평가 자료를 참고하여 심층적인 질의 응답 형식으로 진행

음악대학

- 1단계에서 1차 실기평가를 실시하여 모집인원의 1.5~5배수 이내를 선발
- 성악과, 기악과 : 2단계 전형에서 2차 실기평가, 학업능력, 학내외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작곡과, 국악과 : 2단계 전형에서 2차 실기평가, 학업능력, 학내외 활동, 면접 및 구술고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



모집단위	1단계		2단계	수능 최저학력기준
	1차 실기평가	선발인원	종합평가	
성악과	100	1.5배수 ~ 5배수 이내	100	적용하지 않음
작곡과				
기악과				
국악과				

* 작곡과, 국악과는 2단계 전형에서 면접 및 구술고사를 실시함

■ 정원 외 특별전형 : 일부 지원자격 변경

-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 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원 외 특별전형 지원자격 변경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의한 지원자격 기준을 삭제함.



※ 2013학년도 서울대 신입학 전형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모집단위	계열	정원 내 전형						정원 외 전형			
		합계	광역 및 전공예약분야	수시모집			정시 모집	기회균형 선발 특별전형 I	기회균형 선발 특별전형 II		
				지역균형 선발전형	일반	소계					
인문대학	인문	163	광역	29	30	59	59	15	3		
			불어불문학		9	9					
			독어독문학		9	9					
			노어노문학		9	9					
서어서문학				9	9						
언어학		9	9								
인문대학	인문	115	광역	47	20	67	21	15	3		
			동양사학		9	9					
			고고미술사학		9	9					
종교학				9	9						
소계		278		76	122	198	80	15	3		
사회과학 대학	인문	320	광역	92	156	248	58	18	4		
			사회복지학	8	6	14					
			인류·지리학과군	44	15	30				14	
소계		364		115	177	292	72	18	4		
자연과학 대학	자연	250	수리과학부·통계학과군	59	18	29	47	12	17	5	
			물리·천문학부	54	광역	11	27	38			11
					천문학	5		5			
			화학부	43	13	30	43				
			생명과학부	58	17	29	46	12			
			지구환경과학부	36	11	25	36				
소계		250		75	140	215	35	17	5		
간호대학	자연	63		24	20	44	19	7	2		
경영대학	인문	135		22	67	89	46	8	2		
공과대학	자연	780	건설환경공학부	55	15	40	55		38	5	
			기계항공공학부	152	41	78	119	33			
			재료공학부	88	24	48	72	16			
			전기공학부	156	42	83	125	31			
			컴퓨터공학부	55	15	30	45	10			
			화학·생물공학부	88	26	50	76	12			
			공학계열	160	광역	44	50	76			12
					건축공학		18	18			
					산업공학		18	18			
					에너지자원공학		15	15			
원자핵공학		20			20						
조선해양공학		34	34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26	7	19	26							
소계		780		214	453	667	113	38	5		
농업생명 과학대학	인문	42	농경제사회학부	11	10	21	21	30(9)	4		
			식물생산·산림과학부군	25	46	71	30				
	자연	80	농생명공학계열	20	36	56	24				
			바이오시스템·조경학계열	18	40	58	15				
	소계		296		74	132	206			90	30(9)





모집단위	계열	정원 내 전형					정원 외 전형			
		합계	광역 및 전공예약분야	수시모집			정시 모집	기회균형 선발 특별전형 I	기회균형 선발 특별전형 II	
				지역균형 선발전형	일반	소계				
미술대학	디자인학부(공예)	16			16	16				
	디자인학부(디자인)	29			29	29				
	예술	동양화과	16			16	16		5	2
		서양화과	21			21	21			
		조소과	20			20	20			
	소계	102			102	102		5	2	
사범대학	교육학과	12		4	8	12				
	국어교육과	25		5	10	15	10			
	외국어교육계열	인문	55	광역	9	11	20	19		
				독어교육		8	8			
				불어교육		8	8			
	사회교육계열	54	광역	9	18	27	15			
			역사교육	3		3				
			지리교육	6	3	9				
	윤리교육과	18		6	12	18				
	수학교육과	26		8	18	26				
	과학교육계열	자연	84	광역	17	25	42	20		
				물리교육		7	7			
지구과학교육				8	7	15				
체육교육과	체육	38			14	14	24			
소계	312		75	149	224	88	20(9)	4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인문	47		14	16	30	17		
	자연	식품영양학과	30		8	14	22	8	6	2
		의류학과	30		8	14	22	8		
	소계	107		30	44	74	33	6	2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자연	40		15	25	40		7	2
음악대학	성악과		26			26	26			
	작곡과(작곡)		12			12	12			
	작곡과(이론)		8			8	8			
	기악과(피아노)					24	24			
	기악과(현악)	예술	71				29	29		
	기악과(관악)						18	18		7
	국악과(기악)	28				20	20			
	국악과(이론)					3	3			
	국악과(작곡)					3	3			
국악과(성악)					2	2				
소계	145				145	145		7	2	
의과대학	의예과	자연	95		28	47	75	20	4	2
자유전공학부	인문계열	인문	93			65	65	28	8	5
	자연계열	자연	64			45	45	19		
	소계	157			110	110	47	8	5	
합계			3,124		748	1,733	2,481	643	190(18)	18이내



4. 수시/정시 전형별 강점 찾기

대학 입학 전형에 활용되는 전형요소는 학생부, 수능, 논술, 면접, 적성, 서류 등이다. 이들 전형요소는 수시와 정시의 모집 시기와 대학학과의 특성에 따라 반영 방법과 영향력이 각각 다르다.

현재 자신의 수능과 학생부의 객관적인 성적 수준을 토대로 가능한 목표 대학을 설정하고 목표대학의 수시와 정시 전형유형별로 반영되는 전형 요소별 비중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요소별 시간 배분과 대비를 하도록 한다.

1. 수시 강점 찾기

2013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서 수시모집 비중은 62.9%(236,349명)로, 작년에 비해 0.8% 상승하였다. 올해도 대부분의 대학들이 60%이상 수시모집에서 인원을 선발하며, 서울대와 성균관대, 중앙대는 지난해보다 수시모집 인원 비율이 상승하였다. 특히 서울대와 중앙대는 80%이상 인원을 수시모집에서 선발한다.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일반전형 인문계열 기준)은 고려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홍익대 등 30개교로 전년도에 비해 5개교 줄었고, 면접·구술고사를 반영하는 대학은 지난해 106개 대학에서 97개로 줄었다.

수시모집은 정시모집에 비해 반영하는 전형 자료가 다양하고 전형 방법이 매우 복잡하다. 수능 성적으로 당락이 나뉘는 정시모집과 달리 수시 모집의 특징은 단계별 또는 일괄합산으로 반영하는 전형 자료(학생부, 논술, 면접, 적성, 서류(비교과) 등)의 특성을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학과라도 전형유형별로 당락에 영향력을 미치는 전형 자료가 달라지게 되고, 여러 전형 자료들을 일괄 반영하더라도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전형 자료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농어촌 전형, 지역인재(고교) 전형, 학교장(교사) 추천 전형, 리더십 전형, 봉사활동 우수자 전형, 어학성적 우수자 전형 등 특별 전형의 경우 전형 자료 이외에 별도의 지원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수시 모집에서는 전형 요소 중에서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전형유형을 선택하고 대비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 학생부 중심

학생부 중심 선발 전형은 대체로 모집 인원이 적고 경쟁률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주요대학의 학생부 중심 선발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만으로 선발하지만 이화여대 학업능력우수자, 중앙대 학생부우수자 등에서는 비교과 성적을 일부 반영하기도 한다.

주로 학생부 교과 성적만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 대교협(2012.2) 발표 자료 기준임.

지역	대학	모집 시기	전형 유형	모집 인원	전형 요소별 반영비율(%)	수능최저 학력기준
서울	건국대	2차	수능우선학생부	410	학생부100	○
	경희대	2차	일반전형	150	학생부100	○
	광운대	2차	교과성적우수자Ⅱ	미정	학생부100	○
	국민대	2차	교과성적우수자	467	학생부100	○
		2차	이공계과목우수자	87	학생부100	
	덕성여대	2차	학생부우수자	230	학생부100	○
	동국대	3차	일반전형	332	학생부100	○
	명지대	3차	일반전형	153	학생부100	○
	상명대	2차	학생부우수자	95	학생부100	○
	서울시립대	1차	서울핵심인재(인문)	수능:104 학생부:44	학생부100	○
		1차	서울핵심인재(자연)	수능:98 학생부:42	학생부100	
	성신여대	2차	일반전형	382	학생부100	○
	숙명여대	1차	학생부우수자	200	학생부100	○
	송실대	3차	학생부우수자	268	학생부100	○
	이화여대	수시	일반전형	미정	학생부100	○(상위 일정비율:×)
홍익대	2차	일반전형	732	학생부100	○	



지역	대학	모집 시기	전형 유형	모집 인원	전형 요소별 반영비율(%)	수능최저 학력기준
인천 경기	가천대 (글로벌)	2차	일반전형	338	학생부100	○
	경희대 (국제)	2차	교과우수자	미정	학생부100	○
	경희대 (국제)	1차	교과우수자 I	175	학생부100	×
		2차	교과우수자 II	110	학생부100	○
	아주대	1차	학생부우수자	200	학생부100	○
	을지대 (성남)	2차	교과성적(내신)우수자	55	학생부100	×
	한국항공대	2차	고교성적(내신)우수자	124	학생부100	×
강원 충청권	강원대 (춘천)	2차	내신성적우수자	미정	학생부100	○
	강원대 (삼척)	수시	일반전형	925	학생부100	○
	건국대 (글로벌)	2차	학생부우수자	525	학생부100	×
	고려대 (세종)	수시	일반전형	276	학생부100	○
	상명대 (천안)	수시	일반전형	290	학생부100	×
	연세대 (원주)	1차	학업우수자	우선:174 일반:196	학생부100	×
	홍익대 (세종)	2차	일반전형	423	학생부100	○
영남권	경북대	수시	일반전형	1,287	학생부100	×
	경성대	2차	교과성적우수자	473	학생부100	×
	동국대 (경주)	1차	일반전형	385	학생부100	○
		2차	학업성적우수자	340	학생부100	×
	부산대	수시	교과우수인재	1,010	학생부100	○





■ 논술 중심(학생부+논술)

2013학년도 수시모집에서는 전국 30개 대학에서 논술고사를 치르는데, 논술 중심 전형은 수도권 주요 대학에서 주로 실시하며 모집 인원이 많고 경쟁률이 높은 특징을 가진다.

논술 중심 전형은 수도권 주요대학의 대표적인 수시모집 전형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논술100으로만 모집인원을 전부 뽑진 않는다. 또한 최근 논술비중의 축소 경향에 따라 학생부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특히 2013학년도부터는 대부분 대학들이 우선선발에서도 논술100으로 사정을 하기보다는 학생부+논술의 복합사정을 통해 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논술 중심의 전형의 경우 학생부 중심의 전형에 비해 학생부 등급 평균 성적이 1~2등급 정도 부족해도 동일한 모집단위에 합격한 사례가 적지 않다. 내신이 부족한 경우라면 대학별고사의 강점을 살릴 목표대학의 전형유형을 선택하고 적극적인 대비를 고려해 볼 만하다. 또한 각 대학의 논술 문제가 통합교과형 위주의 출제 형태이기 때문에 논술고사 시험을 별도로 준비하기 보다는 내신과 수능 학습과 연관해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대다수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수능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 대교협(2012.2) 발표 자료 기준임.

구분	지역	대학	모집 시기	전형 유형	모집인원	전형 요소별 반영비율(%)	수능최저 학력기준
논술	서울	가톨릭대	1차	일반전형	200	학생부50+논술50	× (간호:○)
		경희대	2차	일반학생	700	우선(30):학생부40+논술60 일반:학생부60+논술40	○
		건국대	1차	논술우수자	500	우선(50):학생부20+논술80 일반:학생부20+논술80	○
		고려대	수시	일반전형	1,351	우선(60):학생부30+논술70 일반:학생부50+논술50	○
		경기대	2차	일반전형	67	학생부30+논술70	○(인문)
		국민대	2차	논술우수자	117	학생부30+논술70	×
			2차	일반학생	225	학생부40+논술60	○
		광운대	2차	논술우수자	미정	학생부40+논술60	○
		동국대	2차	논술우수자	345	학생부30+논술70	○
		성균관대	2차	일반학생	1,186	우선(70):논술100 일반:학생부30+논술70	○
		숙명여대	2차	논술우수자	미정	우선(50):논술70+학생부30 일반:논술50+학생부50	○
		중앙대	수시	일반전형	1,036	1차(68명):학생부100 2차(347명):학생부20+논술80 3차(272명):학생부100 4차(689명):학생부30+논술70	○
한국외대	수시	일반전형	382	우선(60):학생부30+논술70 일반:학생부50+논술50	○		





구분	지역	대학	모집 시기	전형 유형	모집인원	전형 요소별 반영비율(%)	수능최저 학력기준
논술	서울	덕성여대	1차	일반전형	307	학생 부40+논술60	○
		상명대	1차	논술우수자	400	학생 부20+논술80	○
		서강대	수시	일반전형	652	우선(50):학생 부30+논술70 일반:학생 부50+논술50	○
		서울과학기술대	2차	논술우수자	288	학생 부40+논술60	○
		서울시립대	1차	일반전형	252	우선(60):학생 부30+논술70 일반:학생 부50+논술50	○
		서울여대	2차	논술우수자	196	학생 부50+논술50	○
		성신여대	1차	일반전형	246	학생 부30+논술70	×(글로벌 의과학:○)
		세종대	1차	일반학생	504	학생 부30+논술70	○
			2차	일반학생	252	학생 부50+논술50	○
		승실대	2차	일반전형	480	학생 부40+논술60	○
		연세대	수시	일반전형	1,160	우선(70):학생 부30+논술70 일반:학생 부50+논술50	○
		이화여대	수시	일반전형	미정	우선(미정):학생 부30+논술70 일반:학생 부50+논술50	○
		한양대	2차	일반우수자	822	우선(60):학생 부30+논술70 일반:학생 부50+논술50	○
	홍익대	1차	일반전형	485	학생 부40+논술60	○	
	인천 경기	가천대 (글로벌)	1차	일반전형	211	학생 부30+논술70	○
		경희대(국제)	2차	일반학생	미정	우선(미정):학생 부40+논술60 일반:학생 부60+논술40	○
		경기대(수원)	2차	일반전형	302	학생 부30+논술70	○(인문)
		단국대	2차	일반전형	316	1단계(10):학생 부100 2단계:학생 부40+논술60	×
		연세대(원주)	수시	일반전형	386	우선(50%):학생 부20+논술80 일반:논술60+학생 부40	○
		인하대	1차/ 2차	일반우수자	485/ 523	학생 부50+논술50	×
						학생 부30+논술70	○
			2차	수학, 과학우수자	138	학생 부30+논술70	×
		한국외대 (글로벌)	2차	일반전형	574	우선(50%):논술100 일반:논술70+학생 부30	○
		아주대	2차	일반전형	346	학생 부40+논술60 의학-1단계:학생 부80+논술20 -2단계:1단계80+면접20	○
		한국항공대	1차	일반전형	178	학생 부40+논술60	×





■ 서류 중심

서류 중심 전형은 각종 추천자를 비롯해 수학, 과학, 어학 등 특정 교과외의 우수자 전형을 포함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서류 중심 전형은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사정을 실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 중심 전형을 준비할 때는 목표 대학에서 필요한 서류의 종류와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부족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서류는 1단계 통과뿐만 아니라 최종 전형에서도 전형 점수로 활용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라면 빠짐없이 챙기도록 한다. 다만 지나치게 많은 분량의 추가 서류는 오히려 핵심역량을 평가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전형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류 및 면접'으로 사정을 실시하며, 고교별 추천 인원도 2명으로 유지한다.

서울대 특기자 전형은 2013학년부터 일반전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1단계에서는 서류만으로 일정 비율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100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자유전공의 경우, 2단계에서 서류와 면접을 고려하여 신입생을 선발한다.)

* 대교협(2012.2) 발표 자료 기준임(단계별 사정시, 1단계 선발비율은 미정).

지역	대학	모집 시기	전형 유형	모집 인원	전형 요소별 반영비율(%)	입학사정관 유/무
수도권	가톨릭대	1차	잠재능력우수자	292	1단계 : 서류100 2단계 : 서류50+기타50	○
		2차	스태 파노전형	88		
	건국대	1차	KU자기추천	206	1단계 : 서류100 2단계 : 면접 100	○
	경희대	1차	학교장,교사 추천자	미정	1단계 : 서류100 2단계 : 면접60+서류40	×
	고려대	수시	추천전형	미정	1단계 : 서류100 2단계 : 면접40+서류60	○
	국민대	1차	국민프런티어	156	1단계 : 서류100 2단계 : 면접60+서류40	○
	단국대	1차	창의적인재	171	1단계 : 학생부30+서류70 2단계 : 1단계30+면접70	○
	동국대	1차	do dream 특성화	153	1단계 : 서류100 2단계 : 서류40+전공수학능력60	○
	상명대	1차	전공역량우수자	100	1단계 : 서류100 2단계 : 면접70+서류30	○
	서강대	수시	Art&Technology	25	1단계 : 서류100 2단계 : 1단계50+면접50	×
			알바트로스인재	116	1단계 : 서류100 2단계 : 서류100(자연:1단계60+면접40)	×
	서울대	수시	일반전형	1,362	1단계 : 서류100 2단계 : 면접100(자유:서류+면접100)	○
			지역균형선발	715	서류+면접 100	○



지역	대학	모집 시기	전형 유형	모집 인원	전형 요소별 반영비율(%)	입학사정관 유/무
수도권	성균관대	1차	지역리더	138	학생부70+서류30	○
			학생회 임원 리더십	150	1단계 : 서류100 2단계 : 면접30+서류70	
			자기추천자	35		
			학교생활우수자	330	학생부70+서류30	
	서울여대	1차	학교생활우수자 I	196	1단계 : 서류100 2단계 : 서류60+면접40	○
	성신여대	1차	성신리더십우수자	130	1단계 : 서류100 2단계 : 면접60+서류40	○
	숙명여대	1차	자기주도학습	213	1단계 : 서류100 2단계 : 서류40+면접60	○
	송실대	1차	SSU미래인재	187	1단계 : 학생부100 2단계 : 서류100 3단계 : 면접40+서류60	○
	연세대	수시	한마음전형(전형외)	미정	학생부50+서류50	○
	이화여대	수시	입학사정관	미정	1단계 : 서류100 2단계 : 면접20+서류80	○
	인하대	1차	학생부우수자	460	1단계 : 학생부100 2단계 : 학생부70+서류30	○
			리더십	90	1단계 : 학생부100 2단계 : 면접50+서류50	○
	한국외대	수시	21세기인재	150	1단계 : 학생부30+서류40 2단계 : 면접100	○
	한양대	1차	브레인한양	220	서류100	○
			미래인재	미정	1단계 : 서류100 2단계 : 면접60+서류40	○
2차		사랑의실천	34	1단계 : 서류100 2단계 : 면접60+서류40	○	
한양대 (에리카)	1차	학업우수자	430	1단계 : 학생부100 2단계 : 학생부20+서류80	○	
		미래인재	미정	1단계 : 서류100 2단계 : 면접60+서류40	○	
충청권	충남대	수시	prism인재	392	1단계 : 학생부62+서류38 2단계 : 학생부50+면접20+서류30	○
	충북대	1차	우수인재양성	미정	1단계 : 학생부45+서류55 2단계 : 학생부31.5+면접30+서류38.5	○
	한국 교원대	수시	교직적성우수자	69	1단계 : 학생부50+서류50 2단계 : 학생부25+면접50+서류25	○





지역	대학	모집 시기	전형 유형	모집 인원	전형 요소별 반영비율(%)	입학사정관 유/무
호남권	전남대	수시	글로벌리더십	27	1단계 : 학생부50+서류50 2단계 : 서류100	○
			전공특성 우수자	218	1단계 : 학생부100 2단계 : 서류100	○
	전북대	1차	큰사람	396	1단계 : 학생부50+서류50 2단계 : 학생부25+면접50+서류25	○
			지역 화학인재	미정	1단계 : 학생부50+서류50 2단계 : 학생부25+면접50+서류25	○
영남권	동아대	1차	자기추천자	539	1단계 : 학생부30+서류70 2단계 : 학생부15+면접50+서류35	○
	부산대	수시	고교생활우수자	626	서류100	○
	울산과학기술대	수시	과학영재 및 글로벌리더2 Track (학업역량우수자)	230	1단계 : 서류100 2단계 : 면접100	○
			학교생활우수자	240		

■ 학생부+면접고사

수시 모집에서 면접 고사는 학생부와 함께 주요 전형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면접 고사는 학생의 인성, 전공적합성, 잠재성 등을 정성적 평가할 수 있는 주요 평가 요소이며, 학생부나 다른 기타 정량적 평가와 상호 보완하여 신입생을 뽑는 주요 전형요소이다.

면접 중심 전형이라도 면접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1단계 학생부로 일정배수(2~6배수 정도)를 선발한 이후에 최종 단계에 면접을 포함하거나 면접 성적으로 선발한다. 일괄합산 전형의 경우 [학생부+면접고사]로 선발하며, 면접 반영 비율은 20~60% 내외로 반영 한다.

면접에 강점을 가진 수험생이라면 학생부 성적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면접 중심 전형 유형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도록 한다. 다만 학생부 성적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에는 면접에서 아무리 좋은 성적을 받더라도 합격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남은 기간에 학생부 성적을 잘 관리하기 위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 대교협(2012.2) 발표 자료 기준임(단계별 사정시, 1단계 선발비율은 미정).

지역	대학	모집 시기	전형 유형	모집 인원	전형 요소별 반영비율(%)	최저학력기준
수도권	건국대	1차	KU전공적합	140	1단계 : 학생 부100 2단계 : 서류100 3단계 : 2단계 50+면접 50	×
	광운대	1차	고교(내신)성적 우수자 I	미정	1단계 : 학생 부100 2단계 : 1단계 40+면접 60	×
	단국대	1차	일반전형	563	1단계 : 학생 부100 2단계 : 1단계 40+면접 60	× (간호:○)
	동국대	1차	DU ACTIVE인재	193	1단계 : 학생 부70+서류30 2단계 : 학생 부42+면접40+서류18	×
	명지대	2차	일반전형	250	1단계 : 학생 부100 2단계 : 학생 부50+면접50	×
	서강대	수시	학교생활우수자 (자격1)	165	1단계 : 학생 부75+서류25 2단계 : 학생 부60+면접20+서류20	×
			자기추천전형	45	1단계 : 서류100 2단계 : 면접 40+서류60	×
	서울교대	수시	교과성적(내신)우수자	60	1단계 : 학생 부100 2단계 : 1단계 50+면접 60	×
			특정전공우수자	60	1단계 : 학생 부100 2단계 : 서류40+면접 60	×
	인천대	1차	교과성적우수자	465	1단계 : 학생 부100 2단계 : 학생 부60+면접 40	×
			비차세대리더	38	1단계 : 학생 부100 2단계 : 학생 부60+면접 40	×
		2차	지역우수인재	524	1단계 : 학생 부100 2단계 : 학생 부60+면접 40	×
			일반학생	203	1단계 : 학생 부100 2단계 : 학생 부60+면접 40	×
	인하대	2차	지역인재추천	30	학생 부50+면접50	×
인하TAS-P형 인재			200	1단계 : 학생 부100 2단계 : 학생 부50+면접50	×	





지역	대학	모집 시기	전형 유형	모집 인원	전형 요소별 반영비율(%)	최저학력기준
수도권	한국외대	1차	HUFS미네르바	128	1단계 : 학생 부30+서류70 2단계 : 면접 100	×
	한양대	1차	학업우수자	253	1단계 : 학생 부100 2단계 : 면접30+서류70	×
	한국 항공대	1차	교과성적(내신)우수자	107	1단계 : 학생 부100 2단계 : 면접 100	×
미래항공우주 인재			62	1단계 : 학생 부60+서류40 2단계 : 면접 100	×	
강원 충청권	강원대 (춘천)	1차	전공역량우수자	268	우선(25):학생 부40+서류60 일반-1단계 : 학생 부40+서류60 -2단계 : 학생부24+면접40+서류36	×
			KNU리더	102	1단계 : 학생 부40+서류60 2단계 : 학생 부24+면접40+서류36	×
	공주교대	2차	고교성적(내신) 우수자	158	1단계 : 면접 100 2단계 : 학생 부90+면접 10	×
	단국대 (천안)	1차	의학우수자	12	1단계 : 학생 부70+실적30 2단계 : 학생 부14+면접80+실적6	×
			진취적인재	306	1단계 : 학생 부100 2단계 : 서류 100 3단계 : 면접 100	×
	청주교대	수시	고교성적우수자	88	1단계 : 학생 부100 2단계 : 학생 부80+면접20	×
	충남대	수시	일반전형	1,346	1단계 : 학생 부100 2단계 : 학생 부80+면접20	○
충북대	2차	일반전형	미정	1단계 : 학생 부100 2단계 : 1단계 80+면접20	○	
호남권	전남대	수시	학생부 성적우수자	1,538	1단계 : 학생 부100 2단계 : 학생 부60+면접40	×
	전북대	2차	일반학생	1,560	1단계 : 학생 부100 2단계 : 학생 부80+면접20	○
	전주교대	수시	고교성적(내신) 우수자	50	1단계 : 학생 부100 2단계 : 1단계 성적90+면접 10	○
영남권	경상대	수시	교과성적우수자	1,413	1단계 : 학생 부100 2단계 : 학생 부80+면접20	○
	동아대	1차	인문계고교	1,010	1단계 : 학생 부100 2단계 : 1단계 성적85+면접 15	○
	부경대	수시	미래로	142	1단계 : 학생 부100 2단계 : 1단계 성적80+면접20	×
			학업성적우수자	미정		
부산대	수시	Premier-PNU (외국어, 수학과학우수자)	246	1단계 : 학생 부100 2단계 : 학생 부50+면접50	×	



■ 학생부+적성검사

적성평가는 객관식 문항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중하위권 수험생들의 지원이 많다. 그렇기 때문 다른 전형보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다.

2013학년도 수시모집에는 가톨릭대 수시2차 적성평가 100%를 비롯해 경기대,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가천대(글로벌) 등은 적성평가의 비중(반영 비율 70~80%)이 높아 학생부 성적이 부족한 중하위권 수험생들이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만하다.

적성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 각 대학의 출제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짧은 시간 내에 다수의 문항을 정확히 풀어야하기 때문에 시간 안배 연습도 필요하다.

* 대교협(2012.2) 발표 자료 기준임(단계별 사정시, 1단계 선발비율은 미정).

지역	대학	모집 시기	전형 유형	모집 인원	전형 요소별 반영비율(%)	최저학력기준
수도권	가톨릭대	1차	일반전형 I	193	학생부40+적성50	×(간호:○)
		2차	일반전형 II	194	적성100	○
	경기대 (서울)	1차	일반전형	65	학생부30+적성70	○
	경기대 (수원)	1차	일반전형	637	학생부30+적성70	○
	명지대	1차	일반전형	214	1단계 : 학생부100 2단계 : 학생부50+적성50	×
	가천대 (메디컬)	2차	적성평가	미정	학생부20+적성80	×
	가천대 (글로벌)	1차	일반전형	593	학생부30+적성70	×
		2차	일반전형	미정	학생부20+적성80	×
	강남대	1차	일반전형	486	학생부30+적성70	×
		2차	일반전형	238		
	서경대	1차	일반전형	200	학생부20+적성80	×
	서울과학기술대	1차	전공적성우수자	37	1단계 : 학생부100 2단계 : 학생부20+적성80	×
	수원대	1차	일반전형	500	학생부40+적성60	×
		2차	일반전형	500	학생부30+적성70	×
	울지대 (성남)	1차	일반전형	260	학생부40+적성60	×
		2차	일반전형	176	학생부30+적성70	×
한양대 (에리카)	2차	일반전형	600	학생부40+적성60	○	





지역	대학	모집 시기	전형 유형	모집 인원	전형 요소별 반영비율(%)	최저학력기준
지방	강원대 (춘천)	2차	일반전형	642	1단계 : 학생부 100 2단계 : 학생부 30+적성 70	○
	경북대	수시	일반전형	1,069	학생부 20+적성 80	미정
	고려대 (세종)	1차	일반전형	391	1단계 : 학생부 100 2단계 : 학생부 30+적성 70	○
		2차	일반전형	269	1단계 : 학생부 100 2단계 : 학생부 40+적성 60	○
	단국대 (천안)	1차	어학특기자	60	적성 70+기타 30	×
	한국기술 교육대	2차	일반전형	314	학생부 20+적성 80	×

2. 정시 강점 찾기

주요대학의 수시모집 선발비율의 증가와 수시 총원 등록 기간을 신설로 인해 정시 모집 선발 인원은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고 경쟁률과 합격선은 더 올라갈 전망이다.

수시모집은 전형유형이 다양하고 선발 방법이 복잡한 반면, 정시 모집은 수능 성적이 주요 전형 요소로 활용되며 대학 수준과 입시군(가/나/다군)별 특성에 따라 학생부 교과(비교과) 성적이 일부 대학에서 활용된다.

정시모집의 핵심은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이 대학 또는 모집단위별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대학을 지원하더라도 자신의 수능 영역별 성적의 강약에 따라 당락에 미치는 유불 리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목표대학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자신의 영역별 강약을 비교하고 남은 기간 동안 부족한 영역의 성적을 올리는데 집중하는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수시 / 정시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2013. 대학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대교협) 참조(일반전형 기준)

대학	모집시기	전형유형/ 모집단위	선발모형	선발비율	학생부	수능	면접	논술	적성
강원대	수시 2차	일반전형	1단계	미정	100				
			2단계	100	30			70	
	정시(가)	전 모집단위	일괄	100	16.7	83.3			
		사범대학	일괄	100	15	75	10		
	정시(나)	전 모집단위	일괄	100		100			
경북대	수시	일반전형	일괄	100	100				
	정시(가)	전 모집단위	일괄	100	11	89			
	정시(나)	전 모집단위	일괄	100		100			
경상대	수시	교과성적 우수자	1단계	미정	100				
			2단계	100	80	20			
	정시(가)	전 모집단위	일괄	100	30	70			
		사범대학	일괄	100	30	60	10		
	정시(다)	전 모집단위	일괄	100		100			
부산대	정시(가)	전 모집단위	일괄	100	55	45			
	정시(나)	전 모집단위	일괄	100		100			
서울과학 기술대	수시	일반전형	일괄	100	100				
	정시(가)	전 모집단위	1단계	미정		100			
			2단계	100	40	60			
	정시(나)	전 모집단위	일괄	100		100			
정시(다)	전 모집단위	일괄	100		100				
서울대	정시(나)	사범대학	1단계	200		100			
			2단계	100	40	30	8	22	
		전 모집단위	1단계	200		100			
			2단계	100	40	30		30	
서울 시립대	수시 1차	일반전형	논술우선	60	30			70	
			일반	40	50			50	
	정시(나)	전 모집단위	수능우선	70		100			
			일반	30	30	70			
	정시(다)	전 모집단위	일괄	100		100			





대학	모집시기	전형유형/ 모집단위	선발모형	선발비율	학생부	수능	면접	적성	기타	기타내용
UNIST	정시(나)	전 모집단위	1단계	미정		100				
			2단계	100		90	10			
인천대	수시 2차	지역우수인재 (수도권)	1단계	400	100					
			2단계	100	60		40			
	정시(가)	전 모집단위	일괄	100	20	80				
		동북아통상	일괄	100	20	80				
전남대	정시(가)	전 모집단위	일괄	100		100				
			정시(나)	전 모집단위	일괄	100	50	50		
전북대	수시 2차	일반전형	1단계	미정	100					
			2단계	100	80		20			
	정시(가)	전 모집단위	일괄	100		100				
		정시(나)	전 모집단위	일괄	100	50	50			
제주대	수시 2차	일반전형	일괄	100	100					
			정시(나)	초등교육	1단계	200		100		
	2단계	100		15	77	9				
	정시(다)	전 모집단위	일괄	100	15	85				
전 모집단위		일괄	100		100					
충남대	수시	일반전형	1단계	미정	100					
			2단계	100	80		20			
	정시(가)	전 모집단위	일괄	100		100				
정시(나)		전 모집단위	일괄	100	40	60				
충북대	수시2차	일반전형	1단계	미정	100					
			2단계	100	80		20			
	정시(가)	전 모집단위	일괄	100	40	60				
		사범계열	일괄	100	40	55			5	교직인 적성
정시(나)	전 모집단위	일괄	100		100					
한국 교원대	정시(가)	제1 ~ 제3대학	1단계	300	22	78				
			2단계	100	20	70	10			



대학	모집시기	전형유형/ 모집단위	선발모형	선발비율	학생부	수능	면접	논술	적성	
건국대	수시 1차	일반전형	우선	미정	20			80		
			일반	100	20		80			
	수시 2차	일반전형	일괄	100	100					
	정시(가)	전모집단위	일괄	100		100				
	정시(나)	전모집단위	일괄	100		100				
	정시(다)	전모집단위	우선	50		100				
일반			50	30	70					
가천대 (글로벌)	수시 1차	일반전형	일괄	100	30			70		
	수시 2차	일반전형	일괄	100	100					
	정시(가)	전모집단위	일괄	100		100				
	정시(나)	전모집단위	일괄	100		100				
	정시(다)	전모집단위	일괄	100		100				
경희대	수시 2차	교과우수자	일괄	100	100					
		일반학생	논술우선	30	40			60		
	일반		70	60			40			
	정시(가)	전모집단위	일괄	100		100				
	정시(나)	전모집단위	수능우선	70		100				
			일반	30	30	70				
정시(다)	전모집단위	일괄	100		100					
경희대 (국제)	수시 2차	교과우수자	일괄	100	100					
		일반학생	논술우선	30	40			60		
	일반		70	60			40			
	정시(나)	전모집단위	수능우선	70		100				
			일반	30	30	70				
정시(다)	전모집단위	일괄	100		100					
고려대	수시 2차	일반전형	논술우선	60				100		
			일반	40	40		60			





대학	모집시기	전형유형/ 모집단위	선발모형	선발비율	학생부	수능	면접	논술	적성
광운대	수시 1차	교과성적 우수자 I	1단계	미정	100				
			2단계	100	40		60		
	수시 2차	교과성적 우수자 II	우선	미정	100				
			일반	100	100				
	정시(가)	전모집단위	일괄	100		100			
	정시(다)	전모집단위	일괄	100	20	80			
국민대	수시2차	교과성적 우수자	일괄	100	100				
			논술우수자	일괄	100	30		70	
	정시(가)	전모집단위	수능우선	50		100			
			일반	50	30	70			
	정시(나)	전모집단위	일괄	100		100			
	정시(다)	전모집단위	일괄	100		100			
단국대 (죽전)	수시 1차	일반전형	1단계	미정	100				
			2단계	100	40		60		
	수시 2차	일반전형	1단계	미정	100				
			2단계	100	40		60		
	정시(나)	전모집단위	일괄	100		100			
	정시(다)	전모집단위	일반전형	일괄	100	30	70		
사범대학			1단계	500		100			
			2단계	100	20	70	10		
덕성여대	수시 1차	일반전형	일괄	100	40			60	
	수시 2차	학생부우수자	일괄	100	100				
	정시(가)	전모집단위	일괄	100	30	70			
	정시(나)	전모집단위	일괄	100	30	70			



대학	모집시기	전형유형/ 모집단위	선발모형	선발비율	학생부	수능	면접	논술	적성	기타	기타내용	
동국대	수시 2차	논술우수자	일괄	100	30			70				
	수시 3차	일반전형	일괄	100	100							
	정시(가)	전모집단위	일괄	100		100						
	정시(나)	전모집단위	수능우선	미정		100						
일반			미정	30	70							
동덕여대	수시 2차	일반학생	1단계	미정	100							
			2단계	100	60		40					
	정시(나)	전모집단위	일괄	100		100						
	정시(다)	전모집단위	일괄	100	30	70						
명지대	수시 1차	일반전형	1단계	미정	100							
			2단계	100	50				50			
	수시 2차	일반전형	1단계	미정	100							
			2단계	100	50		50					
	수시 3차	일반전형	일괄	100	100							
	정시(나)	전모집단위	일괄	100	25	75						
	정시(다)	전모집단위	일괄	100		100						
상명대	수시 1차	학생부 우수자	일괄	100	100							
	정시(나)	전모집단위	수능우선	50		100						
			일반	50	10	90						
		사범대학	1단계	미정		100						
			2단계	100		90				10	교직적 인성	
	정시(다)	전모집단위	일괄	100		100						
			1단계	미정		100						
		사범대학	2단계	100		90						
2단계			100		90				10	교직적 인성		
서강대	수시	일반전형	우선선발	50	30			70				
			일반선발	50	50			50				
	정시(나)	전모집단위	수능우선	70		100						
			일반	30	25	75						
서울 여대	수시 2차	일반전형	일괄	100	50			50				
	정시(나)	전모집단위	일괄	100	8	92						
	정시(다)	전모집단위	일괄	100		100						
성균 관대	수시 2차	일반전형	논술우선	70				100				
			일반	30	30		70					
	정시(가)	전모집단위	수능우선	70		100						
			일반	30	30	70						
	정시(나)	전모집단위	수능우선	70		100						
			일반	30	30	70						
성신 여대	수시 1차	일반학생	일괄	100	30			70				
	수시 2차	일반학생	일괄	100	100							
	정시(가)	사범대학	일괄	100		95	5					
		전모집단위	일괄	100		100						
	정시(나)	전모집단위	일괄	100		100						





대학	모집시기	전형유형/ 모집단위	선발모형	선발비율	학생부	수능	면접	논술	적성	기타	기타내용								
세종대	수시1차	일반전형	일괄	100	30			70											
	정시(가)	국방 시스템공학	1단계	미정		100					20	체력, 면접							
			2단계	100		80													
		기계항공우 주공학부	1단계	미정		100													
			2단계	100							100	체력, 면접							
정시(나)	전모집단위	일괄	100	30	70														
숙명여대	수시 1차	학생부 우수자	일괄	100	100														
	수시 2차	논술우수자	논술우선	50	30			70											
			일반	50	50		50												
	정시(가)	전모집단위	수능우선	50		100													
			일반	50	40	60													
정시(나)	전모집단위	일괄	100		100														
송실대	수시 2차	일반학생	일괄	100	40			60											
	수시 3차	학생부우수자	일괄	100	100														
	정시(가)	전모집단위	일괄	100		100													
	정시(나)	전모집단위	일괄	100	30	70													
	정시(다)	전모집단위	일괄	100	30	70													
아주대	수시1차	학생부 우수자	일괄	100	100														
	수시2차	일반전형	일괄	100	40			60											
			1단계		80		20		80	1단계									
		의학	2단계																
			수능우선	50		100													
	정시(가)	전모집단위	일반	50	30	70													
정시(나)	전모집단위	일괄	100		100														
정시(다)	전모집단위	일괄	100		100														
												1단계	미정		100				
연세대	수시	일반우수자	논술우선	70	30			70											
			일반	30	50		50												
	정시(가)	전모집단위	수능우선	70		100													
			일반	30	50	50													
이화여대	수시	일반전형	논술우선	미정	30			70											
			일반	미정	50		50												
	정시(가)	전모집단위	수능우선	70		100													
			일반	30	40	60													



대학	모집시기	전형유형/ 모집단위	선발모형	선발 비율	학생부	수능	면접	논술	적성	기타	기타 내용
인하대	수시 1차	논술우수자	일괄	100	50			50			
	수시 2차	일반우수자	일괄	100	30			70			
	정시(가)	전모집단위	일괄	100		100					
	정시(나)	전모집단위	일괄	100	30	70					
중앙대	수시	일반전형	1차	5	100						
			2차	25	20		80				
			3차	20	100						
			4차	50	30		70				
	정시(가)	전모집단위	수능우선	50	100						
			일반	50	30	70					
	정시(나)	전모집단위	일괄	100		100					
정시(다)	경영학부	일괄	100		100						
포스텍	수시	일반전형	1단계	300						100	서류
			2단계	100						100	서류
한국외대	수시	일반전형	논술우선	50	30			70			
			일반	50	50		50				
	정시(가)	전모집단위	일괄	100		100					
			수능우선	70		100					
정시(나)	전모집단위	일반	30	20	80						
		수능우선	70		100						
한국외대 (용인)	수시 2차	일반전형	논술우선	50	30			70			
			일반	50	30		70				
	정시(가)	전모집단위	일괄	100		100					
			수능우선	70		100					
정시(다)	전모집단위	일반	30	20	80						
		수능우선	70		100						
한양대	수시 2차	일반우수자	논술우선	60	30			70			
			일반	40	50		50				
	정시(가)	전모집단위	수능우선	70		100					
			일반	30	30	70					
정시(나)	전모집단위	일괄	100		100						
한양대 (에리카)	수시 2차	일반우수자	일괄	100	40				60		
		일반우수자-자연	일괄	100	40			60			
	정시(가)	전모집단위	수능우선	70		100					
			일반	30	30	70					
	정시(나)	전모집단위	일괄	100		100					
정시(다)	전모집단위	일괄	100		100						





대학	모집시기	전형유형/ 모집단위	선발모형	선발비율	학생부	수능	면접	논술	적성	기타	기타내용
홍익대	수시 1차	학업우수자 -자율전공	1단계	600	100						
			2단계	300	60					40	서류
			3단계	100	40		30			30	서류
	수시 2차	학업우수자	일괄	100	40				60		
		일반전형	일괄	100	100						
		정시(가)	전 모집 단위	일괄	100	20	80				
		정시(나)	전 모집 단위	일괄	100		100				
		정시(다)	전 모집 단위	일괄	100		100				
한국항공대	수시 1차	일반전형	일괄	100	40			60			
	정시(나)	전 모집 단위	일괄	100	40	60					
	정시(다)	전 모집 단위	일괄	100		100					



수시 / 정시 전형요소별 반영비율(교육대학교)

2013. 대학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대교협) 참조(일반전형 기준)

대학	모집시기	전형유형/ 모집단위	선발모형	선발비율	학생부	수능	면접	논술	기타	기타 내용
경인교대	정시(나)	초등교육과	1단계	미정	14	86				
			2단계	100	7	83	10			
공주교대	정시(나)	초등교육과	1단계	미정		100				
			2단계	100	27	70	3			
*광주교대	정시(나)	초등교육과	1단계	250	50	50				
			2단계	100	45	45	10			
*대구교대	정시(나)	초등교육과	일괄	100	16.9	80.3	2.8			
부산교대	정시(가)	초등교육과	1단계	미정		100				
			2단계	100	50	40	10			
서울교대	정시(나)	초등교육과	일괄	100	32	60	8			
전주교대	수시	고교성적 (내신)우수 자	1단계	미정	100					
			2단계	100			10		90	1단계 성적
	정시(나)	초등교육과	1단계	300		100				
			2단계	100	30	60	10			
진주교대	정시(가)	초등교육과	1단계	미정	27	73				
			2단계	100	27	71	2			
청주교대	정시(나)	초등교육과	1단계	미정		100				
			2단계	100	21	75	4			
춘천교대	정시(나)	초등교육과	1단계	미정		100				
			2단계	100	17	80	3			

*입학전형이 미정인 대학(2012. 입시전형 임)





주요대학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일반전형기준)

2013. 대학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대교협) 참조(일반전형 기준)

대학	모집군	계열	활용 지표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제2외/ 한	
					가	나	가/나		사	과	사/과		
서울대	나	자유전공	표+백	25	31.3			25			18.7	5.6	
		인문계열		23.5			29.4	23.5			17.7		
		자연계열 (간호 제외)		25	31.3			25		18.7			
		간호		25			31.3	25			18.7		
서울 과학 기술대	가,나, 다	인문계열	백	37.7				37.7			25		
		자연계열		25			30	25			20		
서울 시립대	나,다	인문계열	표+백	25			30	30			15	탐구1 대체	
	나,다	자연계열		20	30			30		20			
UNIST	나	경영	표	20			30	30			20		
	나	이공		20	30			20		30			
인천대	가	인문계열	백	30			20	30	20				
		자연계열 (소비자아동,패션산업 제 외)		20			30	30		20			
		소비자아동,패션산 업		20			30	30			20		
	다	동북아국제 통상		20			20	40			20		
가톨릭대	가,다	인문계열, 생활과학부	표	30			20	30			20		
		자연계열 (간호, 디지털미디어, 생활과학부제외)		20			30	30			20		
		디지털미디어 학부		30			30	20			20		
	가,나	간호학과		30			30	30			10		
건국대	가	일어교육, 교육공 학, 영어교육	표+백	30			25	35			10		
		수의예, 수학교육		20	30			30		20			
	나,다	인문계열		30			25	35			10		
		자연계열		20	30			30		20			
가천대 (글로벌)	가	한의예과	백	10	35			35		20			
		인문		40			(30)	(30)			(30)		
		자연		(30)			40	(30)			(30)		
	나	인문		35			15	35			15		
		자연		15			35	35			15		
	다	한의예과		20		30		30	20				
		인문		40				40			20		
자연					40	40			20				



대학	모집군	계열	활용 지표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제2외/한	
					가	나	가/나		사	과	사/과		
*경희대	가	인문계열, 지리, 약 과학, 생물, 화학, 식품영양, 간호	표	25			30	30			15		
	가, 나	국어국문, 영어, 사 학, 철학		30			25	30			15		
		수학, 물리, 정보디 스플레이, 한의예, 한약		20	30				20		30		
	나	인문계열, 지리, 식 품영양, 간호		25			30	30				15	
		한의예과 (인문계열)		25		30		30	15				
	다	약과학, 생물, 화학		20	30				20		30		
		관광, 자율전공(인문계열), 경영		25			30	30				15	
		정보디스플레이, 약 과학, 한약학		20	30				20		30		
고려대	가	인문계열	표+백	28.6			28.6	28.6			14.2	탐구1 대체	
		자연계열		20	30			20		30		탐구1 대체	
*광운대	가	사회복지상담, 국제 한국어교원, 신학, 유아교육	등	50				50					
	가, 다	국어국문	표	40			20	20			20		
		법학		30			20	40			10		
		경영학부		30			30	30			10		
		인문계열 (일부 제외)		30			20	30			20		
		자연계열 (건축 제외)		10			40	30		20			
건축학과	10			40	30			20					
국민대	가	인문	백	30			10	35			25		
		자연		10			35	30			25		
	나, 다	인문(문과, 법과)		30			10	35			25		
		인문(사과, 경상, 경영)		30			20	30			20		
		자연(건축, 공과제외)		10			35	30		25			
	다	자연(건축, 공과)		20			30	30		20			
		건축		20			30	30			20		
		자연(공과)		20			30	30		20			
단국대	나, 다	국제학	백	15			15	50			20	탐구 대체	
		인문계열 (상경대학 제외)		30			20	30			20	탐구 대체	
		상경대학		25			30	25			20	탐구 대체	
		건축		20			30	30			20		
		건축공, 파이버시스 템공, 화학공		20			30	30		20			
		공과대학, 모바일시스템공		20	30			30		20			
		한문교육		30			10	30			30	탐구 대체	
		수학교육		20	30			30		20			
과학교육	20			30	30		20						

*입학전형이 미정인 대학(2012. 입시전형 임)





대학	모집군	계열	활용지표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제2외/한	
					가	나	가/나		사	과	사/과		
동국대	가,나	인문계열	표	30			20	35			15		
		자연계열 (일부 제외)		10	35			35		20			
		식품생명공, 정보통신공, 멀티미디어공, 생명과학, 바이오환경과학, 의생명공		10			35	35		20			
		가정교육, 컴퓨터공학		10			35	35			20		
명지대	나,다	인문계열	백	33			17	33			17		
		자연계열		17			33	33			17		
상명대	나,다	인문계열	표	30			20	30			20	사범: 탐구 대체	
		자연계열 (일부 제외)		20			30	30		20			
		의류, 외식영양, 소비자주거		25			25	30			20		
		수학교육		20	30			30		20			
서강대	나	Art&Technology	표	27.5			27.5	30			15	탐구1 대체	
		인문계열		27.5			27.5	30			15	탐구1 대체	
		경제학부, 경영학부		25			30	30			15	탐구1 대체	
		자연계열		20	30			27.5		22.5			
성균관대	가,나	인문계열	표	30			30	30			10		
		자연계열		20	30			20		30			
세종대	가	기계항공우주공학부	표	30			40	30					
	나	인문계열	표+백	30			15	35			20		
		자연계열 (일부 제외)		15			35	30			20		
		수학통계, 물리, 화학, 천문우주, 환경에너지융합		15	35			30		20			
숙명여대	가,나	인문계열, 의류, 식품영양	백	30			20	30			20		
		경영, 경제		25			25	30			20		
		자연계열 (일부 제외)		(30)			40	(30)		30			
		화학, 수학		(30)	40			(30)		30			
		통계		(30)			40	(30)			30		
송실대	가,나	인문	백	35			15	35			15		
		자연		15	35			35		15			
	건축학부	35					35			30			
	다	글로벌미디어학부		35				35	30				



대학	모집군	계열	활용 지표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제2외/ 한	
					가	나	가/나		사	과	사/과		
아주대	가	사회과학부	표+백	30		20		30	20				
		인문학부		30			20	30			20		
		자연계열		20	30			30		20			
	나	건축, 미디어, 간호, 경영, 금융공학부		20			30	30				20	
		기계공, 전자공, 정보컴퓨터공			50						50		
		e-비즈니스학부		15			35	35				15	
		다		경영학부	15		35		35	15			
	자연계열계열			15	35			35		15			
인문학부, 사회과학 부, 자유전공	30			25		30	15						
연세대	가	인문계열	표+백	28.6			28.6	28.6			14.2	탐구1 대체	
		자연계열		20	30			20		30			
이화여대	가	인문계열, 의류	표+백	25			25	30			20	일부 탐구1 대체	
		자연계열 (일부 제외)		25	30			25		20			
		식품영양, 보건관 리, 간호과학		(40)			35	(40)				25	
인하대	가, 나	인문계열 (일부 제외)	표	30		20		30	20				
		자연계열 (일부 제외)		20	30			25		25			
		아태물류, 글로벌금융		30			20	30			20		
		간호, 생활과학, 건축		20			30	25		25			
중앙대	가, 나	인문계열 (공공인재학부 제외)	표+백	30			30	30			10	탐구1 대체	
		자연계열		20	30			30		20			
		공공인재학부		30			20	30			20	탐구1 대체	
	다	경영학부		30			30	30			10	탐구1 대체	
한국외대	가, 나	인문계열	표	30			25	35			10	탐구1 대체	
한국 항공대	나, 다	항공운항, 항공교통 물류우주법학부	표	10			35	40				15	
		경영, 영어		35			10	40			15		
		공학계열		10			40	30		20			
한양대	가, 나	인문계열	표	30		30		30	10				
		자연계열		20	35			20		25			
한양대 (에리카)	가, 나, 다	인문계열	표+백	30		30		30	10			탐구1 대체	
		자연계열		20	30			30		20			
홍익대	가, 다	자율전공	백	(33.3)			(33.3)	(33.3)			(33.3)		
		인문계열		25			25	25			25		
		자연계열		(33.3)	33. 3			(33.3)		33. 3			
	나	자연계열			50					50			





대학	모집군	계열	활용 지표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제2외/ 한
					가	나	가/나		사	과	사/과	
경인교대	나	초등교육	백	25			25	25			25	
*공주교대	나	초등교육	백	25			25	25			25	
*광주교대	나	초등교육	백	25			25	25			25	
*대구교대	나	초등교육	백	25			25	25			25	
부산교대	가	초등교육	백	25			25	25			25	
서울교대	나	초등교육	표	25			25	25			25	
전주교대	나	초등교육	표+백	25			25	25			25	
진주교대	가	초등교육	백	25			25	25			25	
청주교대	나	초등교육	표	25			25	25			25	
춘천교대	나	초등교육	표	25			25	25			25	

*입학전형이 미정인 대학(2012.입시전형 임)



5. 수시 / 정시 대비 전략

1. 수시 대비 전략

수시모집에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과 더불어 특별 활동, 봉사 활동, 행동발달상황 및 경시대회 수상 경력, 어학 성적 등과 같은 비교과 성적이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므로 지원 대학의 수능 성적 최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전형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부 100% 또는 논술고사 100% 전형을 비롯하여 학생부와 대학별고사를 반영하는 전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부 반영 교과목과 학년별 반영 비율, 비교과 반영 내용 등을 확인하고, 목표 대학의 대학별고사 기출 문제 및 모의 평가 문제를 통하여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등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입학사정관 전형을 비롯해 저학년에서부터 꾸준히 준비해온 특별 전형의 경우에는, 목표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평가 내용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 동안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논술고사의 출제 유형이 통합교과형의 다수 문항으로 변경되었지만, 기본적인 문장력과 표현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합격 가능성이 낮으므로 인문계열의 경우 글쓰기 능력에 자신이 없으면 면접 전형을 고려하는 것이 낫다. 이 때 논술고사와 면접고사, 적성평가를 모두 준비하는 것보다는 현재 자신의 수준에서 목표대학군을 선정하고 가급적 대학별고사의 출제 유형이 비슷한 전형 위주로 묶어서 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금년에는 논술 고사를 대부분 수능 시험 이후에 치를 것으로 보아 자신의 수능 예상 성적으로 정시 모집지원 수준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판단한 후에 대학별고사 응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학별고사에 대한 대비는 수능과 병행 준비해야 하므로 자신의 학업 수준에 맞는 적정 목표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면접·구술고사를 반영하는 경우에는 1단계에서 학생부 성적으로 일정 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 학생부+면접고사로 최종 선발한다. 학생부 성적의 영향력이 적지 않지만 면접·구술고사에 대한 준비를 학생부, 수능과 함께 준비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전공적성평가는 주로 언어와 수리 능력을 평가하는데, 중하위권 수험생들이 다수 지원하여 지난해 전공 적성평가 대학의 경쟁률은 매우 높았다. 따라서 전공 적성평가 기출문제나 모의평가를 토대로 대학별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정확성을 높이는 연습이 중요하다.

2. 정시 대비전략

정시 모집은 수능 100% 선발, 수능 우선 선발 등을 비롯해 수능 성적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는 경우라도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지원자 수준 또는 합격자 수준으로 압축해 보면 학생부의 차이점수는 외형 반영비율보다는 크게 줄어 든다. 따라서 정시 모집을 대비한다는 것은 수능 성적 향상 또는 유지를 위한 학습이 전부이다.

우선 지금까지 치른 수능 모의고사의 평균 성적을 기준으로 정시모집에서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의 대학학과에 진학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진학 가능한 대학의 수준보다 희망 대학이 지나치게 높으면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현재 자신의 수준보다 1단계 정도 높게 목표 대학을 설정하고 영역별 학습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그 다음 목표 대학의 금년도 정시모집 선발 방법을 살펴보고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과 자신의 수능 성적의 강약을 비교해 부족한 영역의 점수를 향상하기 위한 학습 계획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특정 영역에 가산점을 주거나 필수 지정 영역이 정해진 경우라면 반드시 해당 영역(과목)을 포함해 준비해야 한다. 인문계열 모집단위 중 제2외국어/한문 영역을 탐구의 1개 영역으로 반영하는 경우라면 탐구 과목을 최소 1개만 준비해도 지장이 없다.

목표 대학을 1~2개 대학으로 지나치게 압축해 놓으면 향후 성적 변화(향상 또는 하락)에 따른 목표 대학 변경이 힘들어 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비슷한 수준의 3~5개 정도의 목표 대학을 기준으로 수능 반영 방법을 살펴보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6. 2013학년도 의학과열 전형 방법

의학과열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일반전형)

■ 의예과

* 2013. 대학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대학교협) 참조(일반전형 기준)

대학	모집시기	사정방법	사정비율	학생부	수능	면접	기타
건양대	수시	1단계	300	100			
		2단계	100	70		30	
	나	1단계	300	30	70		
		2단계	100			30	70(1단계)
계명대	수시	1단계	700	100			
		2단계	100	90		10	
	나	일괄합산	100	20	80		
	다	일괄합산	100		100		
고려대	수시	우선선발	60	30			70(논술)
		일반선발					
	가	일괄합산	100	40	50	10	
고신대	나	일괄합산	100		100		
	다	일괄합산	100		100		
관동대	수시2차	일괄합산	100	100			
	수시3차	일괄합산	100	100			
	수시4차	일괄합산	100	100			
	나	일괄합산	100	40	60		
	다	일괄합산	100	40	60		





대학	모집시기	사정방법	사정비율	학생부	수능	면접	기타
단국대(천안)	다	일괄합산	100	10	90		
대구 가톨릭대	수시	1단계	700	100		20	
		2단계	100	80			
	다	일괄합산	100	20	80		
		일괄합산	100		100		
동아대	수시2차	일괄합산	100	100			
	가	일괄합산	100		100		
서남대(남원)	수시1차	일괄합산	100	100			
	수시2차	일괄합산	100	100			
	수시3차	일괄합산	100	100			
	가	일괄합산	100	10	90		
	나	일괄합산	100	10	90		
	다	일괄합산	100	10	90		
서울대	나	1단계	200		100		
		2단계	100	40	30		30(논술)
성균관대	가	우선선발	70				100(논술)
		일반선발	30	30			70(논술)
순천향대	수시2차	일괄합산	100	100			
	수시3차	일괄합산	100	100			
	나	일괄합산	100	50	50		
	다	일괄합산	100	50	50		
아주대	수시2차	1단계	600	55		36	45(논술)
		2단계	100	35			29(논술)
	다	1단계	1000		100		
		2단계	100		80	20	
연세대	수시	우선선발	70	30			70(논술)
		일반선발	30	50			50(논술)
	가	우선선발	70		100		
		일반선발	30	50	50		
연세대(원주)	수시	우선선발	50	20			80(논술)
		일반선발	50	40			60(논술)
	가	우선선발	70		100		
		일반선발	30	50	50		
	나	우선선발	70		100		
		일반선발	30	50	50		
영남대	수시	1단계	500	100		30	
		2단계	100	70			
	가	일괄합산	100		100		
	다	일괄합산	100	30	70		



대학	모집시기	사정방법	사정비율	학생부	수능	면접	기타
울산대	수시	1단계	3000	100			20(논술)
		2단계	100	80			
	가	우선선발	50		97.22	2.78	
		일반선발	50	28	70	2	
원광대	수시1차	1단계	300	100			
		2단계	100	80		20	
	수시2차	1단계	300	100			
		2단계	100	80		20	
	가	일괄합산	100	33.3	66.7		
	다	일괄합산	100		100		
을지대	수시	1단계	500	100			
		2단계	100	80		20	
	나	일괄합산	100	20	70	10	
인제대	수시1차	일괄합산	100	50		50	
	가	일괄합산	100	9	89	2	
전남대(광주)	가	일괄합산	100		100		
	나	일괄합산	100	50	50		
중앙대	수시2차	일괄합산	100	30			70(논술)
	가	우선선발	50		100		
		일반선발	50	30	70		
	나	일괄합산	100		100		
충북대	수시2차	1단계	400	100			80(1단계)
		2단계	100			20	
	가	일괄합산	100	40	60		
	나	일괄합산	100		100		
한림대	나	일괄합산	100		100		
	다	일괄합산	100		100		
한양대(서울)	수시2차	우선선발	60	30			70(논술)
		일반선발	40	50			50(논술)
	가	우선선발	70		100		
		일반선발	30	30	70		





■ 치의예과

* 2013. 대학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대교협) 참조(일반전형 기준)

대학	모집시기	사정방법	사정비율	학생부	수능	면접	기타
강릉 원주대	다	일괄합산	100	30	70		
단국대(천안)	나	일괄합산	100	10	90		
	다	일괄합산	100	10	90		
연세대	수시	1단계	70	30			70(논술)
		2단계	30	50			50(논술)
	가	우선선발	70		100		
		일반선발	30	50	50		
원광대	수시1차	1단계	300	100			
		2단계	100	80		20	
	수시2차	1단계	300	100			
		2단계	100	80		20	
	가	일괄합산	100	33.3	66.7		
	다	일괄합산	100		100		

■ 한의예과

* 2013. 대학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대교협) 참조(일반전형 기준)

대학	모집시기	사정방법	사정비율	학생부	수능	면접	기타
가천대(글로벌)	수시2차	일괄합산	100	100			
	가	일괄합산	100		100		
	다	일괄합산	100		100		
경희대(서울)	수시2차	일괄합산	100	100			
	수시2차	우선선발	70	40			60(논술)
		일반선발	30	60			40(논술)
	가	일괄합산	100		100		
	나	우선선발	70		100		
		일반선발	30	30	70		
다	일괄합산	100		100			
대구한의대	수시	일괄합산	100	100			
	가	일괄합산	100	30	70		
	나	일괄합산	100		100		
대전대	수시1차	일괄합산	100	80		20	
동국대(경주)	수시1차	1단계	500	50			50(논술)
		2단계	100			20	80(1단계)
	가	일괄합산	100		100		
	다	일괄합산	100	40	60		
동신대	수시1차	일괄합산	100	100			
	수시2차	일괄합산	100	100			
	가	일괄합산	100		100		
	다	일괄합산	100	40	60		



대학	모집시기	사정방법	사정비율	학생부	수능	면접	기타
동의대	나	일괄합산	100	40	60		
상지대	가	일괄합산	100		100		
	다	일괄합산	100		100		
세명대	수시1차	일괄합산	100	100			
	수시2차	일괄합산	100	100			
	나	일괄합산	100	20	80		
	다	일괄합산	100	20	80		
우석대	수시1차	1단계	미정	50			50(서류)
		2단계	100			50	50(1단계)
	수시2차	일괄합산	100	80		20	
	가	일괄합산	100		100		
	나	일괄합산	100	50	50		
	다	일괄합산	100		100		
원광대	수시1차	1단계	300	100			
		2단계	100	80		20	
	수시2차	1단계	300	100			
		2단계	100	80		20	
	가	일괄합산	100	33.3	66.7		
	다	일괄합산	100		100		

Chapter III.

입학사정관 전형 안내

1.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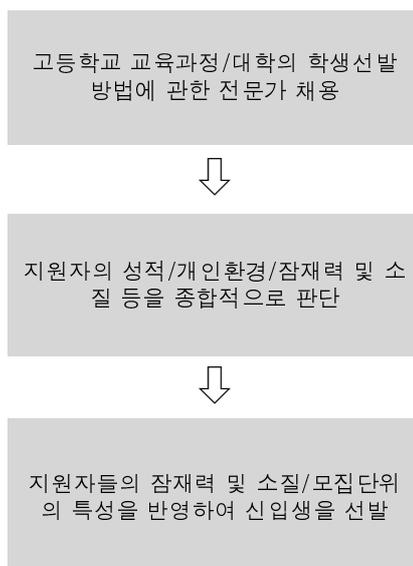
1. 입학사정관제 개요

■ 입학사정관제란?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이 대입전형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을 육성·채용·활용함으로써 대학이나 모집단위 별 특성에 따라 보다 자유로운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특기자전형과 입학사정관제는 특정 분야의 소질과 잠재력을 보인 학생을 뽑는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그 선발 과정은 눈에 띄게 달라진다. 특기자 전형은 해당 전형이 목적으로 하는 특정 분야를 평가하지만 입학사정관제는 특정 분야의 성취뿐만 아니라 기초학업능력, 인성 및 전공적합성, 성장환경, 추천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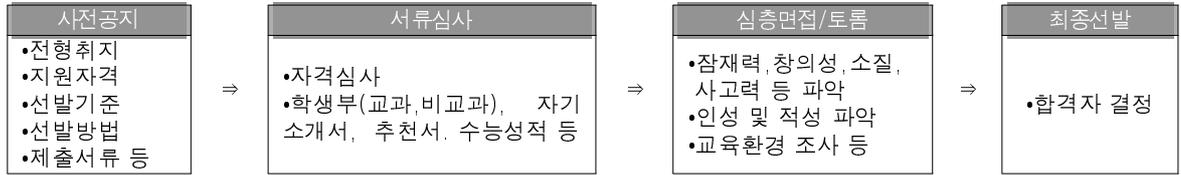
<입학사정관제 전형 선발 과정>





■ 입학사정관의 평가요소

• 일반적인 전형 절차



• 공통 전형 요소

요소	주요내용
학생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력: 이해력, 분석력, 논리적 사고력,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 -적성: 관련분야에 대한 소질, 학업적성, 대학 또는 학과 수학 능력 등 -표현력: 의사소통능력(토론/설득력) 등 • 정의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성: 자신감, 적극성, 리더십, 책임감, 목표지향성, 자기조절능력, 도덕성, 사회성 등 -흥미: 지적호기심, 열정, 학습동기 등 -태도: 가치관, 학습태도 등 -잠재력, 미래 성장가능성, 학과 적응 가능성 등
대학 및 모집전형에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학이념 및 학과 특성에 부합하는 학생인지 여부 • 리더십 전형, 사회적 배려 전형 등 모집전형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교육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환경, 교육여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특성 등

※ 현장에서 말하는 입학사정관전형의 평가요소

(양성관 건국대학교 입학사정관실 실장)

(1) '성적'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함에 있어 어떤 전형 요소로 몇 명의 학생을 선발하는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그 밖에 학교생활기록부에 나타난 고교학업 성적과 대학별 논술시험 성적을 대입전형에 주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시험 성적의 1~2점 차이, 또는 4~5점 차이(경우에 따라서는 10~20점 차이)는 '실력'에 상관없이 여러 종류의 오차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과연 몇 점의 차이부터 진정한 '실력'의 차이로 인정할 것인가? 입학사정관제는 어느 정도의 시험점수의 차이는 '오류'나 '운' 또는 '학생 개인의 환경 차이' 등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여 약간의 점수 차이를 실력의 차이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일정점수 영역에 속한 학생들의 경우 오히려 다양한 다른 자료를 평가하여 입학결정에 반영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점에서 입학사정관제에서 '성적'의 평가는 시험성적을 고려하지 않거나 그 반영 정도가 미미하다는 의미보다, 어느 정도의 점수는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잠재력 또는 성장가능성'은 평가 가능한 것인가?

잠재력이나 성장가능성은 현재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장래에 곧 발휘될 어떤 능력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지금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는 대학에서는 이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도록 그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되는 주요 역량들을 개발하여 서류나 면접평가를 통해 측정, 확인하고자 노력 중이다. 예를 들면, 지원자가 가진 열정이나 목표의식, 진로나 전공영역에 관련된 관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창의력, 봉사정신, 리더십, 역경 극복 경험 등이 있다. 이상적으로 보면 이 모든 요소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짧은 시간 내에 당락을 결정해야 하는 과정에서는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수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단계적으로 보면, 시간과 비용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험성적 가운데 '능력' 부분을 고려하면서 '오차' 부분을 가장 많이 보충할 수 있는 부분(연구에 따르면 주로 지원자의 사회, 경제적 배경변인이라고 함)을 고려하는 방식이 입학사정관제가 말하는 '잠재력' 또는 '성장가능성'을 배려하는 첫 번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 방식이 어느 정도 정착한 뒤에, 다양한 주관적 요소를 시간과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 추가되는 것이 이후의 입학사정관제 과제가 될 것이다.

(3) 다양한 자료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나라에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고자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지원자의 다양한 교육활동과 성적 정보가 담겨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 대입전형을 실시하자는 것이었다. 입학사정관들은 고등학교의 교육철학과 교육과정의 특성을 참고하여 지원자의 교육성취의 질을 평가하고자 노력 중이다. 따라서 각 학교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만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학생 개인의 창의력과 개성을 존중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많은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교사나 교장의 추천서를 매우 중요한 전형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추천서가 정말로 유효한 전형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학업과 진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적이다. 대학에 따라 교사추천서를 누적적으로 보관하여 이를 참고하는 대학도 있어 신뢰성이 담보된 추천서를 제공하는 것이 점점 더 중시되고 있다. 그 밖에 대학은 지원자의 개인적 특성이 담긴 자료나 고교특성이 담긴 자료를 중요한 전형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4) '종합적인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입학사정관이 지원자의 학업성적뿐만 아니라 서류나 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를 '종합적', '주관적', '맥락적'으로 판단하여 당락을 결정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대학이 정한 인재상에 부합하는 기준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점수를 매겨 그 총점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등급만을 기준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특정 입학사정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자별로 다수의 입학사정관이 평가를 내리는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기도 한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몇 배수의 지원자를 선발한 다음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도 많은 대학들이 고려하고 있는 방식이다.





입학사정관 전형의 평가요소별 평가내용 및 평가자료(예시)

평가영역	평가요소	평가지표 및 내용	평가자료
교과 관련 활동	교과성적	•교과 내신등급 또는 수능 성적	학생부, 수능성적
	학년별 성적 추이	•학년별 학업성취도의 등락 추이 및 정도	학생부
	학업 관련 탐구 활동	•활동의 내용 및 기간 •참여의 적극성	학생부, 자기소개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스템
	교과 관련 교내 수상실적	•수상 내용 •수상의 난이도 등(상의 권위 및 참여자 수)	학생부
	방과후학교 활동	•동기와 목적, 소감 •학습 분야	학생부, 창의적 체험활동 시스템
창의적 체험 활동	독서 활동	•독서량 •내용 이해도 등	학생부, 자기소개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스템
	자격증 및 인증	•자격증 및 인증 획득 목적, 분야, 활용계획 등	학생부, 창의적 체험활동 시스템
	진로탐색·체험 활동	•진로·체험활동의 영역 •참여의 적극성	학생부, 자기소개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스템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에서의 역할 •참여도 및 성실성	학생부, 창의적 체험활동 시스템
	봉사 활동	•봉사활동의 내용 등	학생부, 창의적 체험활동 시스템
	방과후학교 활동	•동기와 목적, 소감 •참여 분야 및 참여 정도	학생부, 창의적 체험활동 시스템
학교생활 충실도 및 인·적성	공동체 의식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 •공동목표를 위한 협동	자기소개서, 면접, 학생부, 교사추천서
	리더십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 및 내용	자기소개서, 면접, 학생부, 교사추천서
	학업의지	•해당 모집단위에 대한 관심도	자기소개서, 면접, 학생부, 교사추천서
	특별활동	•자치 / 적응 / 행사활동의 내용 •참여도 및 성실성	학생부, 교사추천서
	출결 상황	•결석 일수 •결석 사유	학생부, 면접, 교사추천서
	교사의 평가	•소질과 적성 •학교생활 충실도 •평가내용	교사추천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스템 (교사 총괄 의견)
	교우관계	•교류활동 및 내용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학습환경	가정환경과 자기극복 의지	•사회·경제적 여건 고려	자기소개서
	학교 여건	•학교의 특성 및 프로그램	학교 프로파일
	지역의 교육여건	•지역사회의 교육여건	관련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발표자료 (2010.4.7)





2. 어떻게 변화될까?

- ▶ 입학사정관전형 일정 조정
- ▶ 선발 인원 증가 및 실질 모집 비중 확대
- ▶ 대학별 전형 방법의 다양화에 따른 경쟁률 차이 심화

1) 전형 일정 조정

2013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9월 6일(목)부터 시작되는데, 입학사정관전형의 경우에는 이보다 빠른 8월16일(목)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은 지원자들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서류평가와 면접 등의 전형방법을 다양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2013학년도부터 수시모집 미등록 총원 합격 발표(12월 15일~19일)와 등록(12월 15일~19일)이 정시모집 원서 접수 이전에 진행된다.

2) 선발 인원 증가 및 실질 모집 비중 확대

입학사정관전형은 2010학년도 97개교, 2011학년도 118개교, 2012학년도 122개교에 이어 2013학년도에는 123개교에서 실시하며, 선발 인원은 43,138명으로 전체 정원의 약 11.5%에 이른다. 특히 수시모집에서 입학사정관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3.8% 보다 크게 높아져, 2013학년도에는 약 17%에 이를 전망이다.

구분	모집정원(명)	선발 비율(%) <사정관전형 / 총 모집정원>	수시모집	
			모집정원	사정관전형 선발인원(%)
2010학년도	24,622	6.5	219,024	22,787 (10.4)
2011학년도	36,896	9.6	232,781	34,408 (14.8)
2012학년도	42,163	11.0	237,734	32,851 (13.8)
2013학년도	43,138	11.5	236,349	40,912 (17.3)

3) 전형 방법의 다양화

입학사정관전형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난 2010학년도에 비해 모집대학 수와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각 대학의 선발 방법 또한 다양화되었다. 다만 선발 과정과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정성적 평가를 지향하는 입학사정관전형의 취지 강화와 내실화를 꾀하는 새로운 전형 방법을 계속하여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강대는 소수점 이하 점수 차로 당락이 결정되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12학년도 학교 생활우수자 전형부터 일정 학업성취 이상 성적자(내신 평균이 문과 1.3등급, 이과 1.5등급 이내)를 동점 처리하고, 2013학년도부터는 예체능 프로그램과 활동을 평가요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1단계 전형을 통과한 수험생은 2단계에서 최종 선발 위원회 위원 전원이 동의해야 합격할 수 있으며, 입학사정관이 추천서를 써준 사람을 면담하는 '추천인 면담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세대는 고교 교육과 연계한 서류평가 방안을 도입하여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최소한의 학력요건을 반영하고, 교사의 학생 평가권 존중 및 권위 회복을 위해 학생 평가에 교사의 추천서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2011학년도 입시부터 축적하고 있는 추천서 DB를 적극 활용하고, 추천서에 학교 생활태도(수업시간의 학습태도와 학교생활의 성실성 및 동료 학생들과의 관계, 교사에 대한 태도 등)를 포함한다.

4) 전형별 경쟁률 차이 심화

입학사정관전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 성적을 평가한 후 2단계에서 서류평가 및 면접을 실시하는 단계별 전형방법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교과성적 못지않게 서류나 포트폴리오 등 각종 비교과 자료가 중요한데, 3학년 시기에 준비하기에는 시간적 부담이 클 것이다. 또한 정시를 대비해 수능준비를 소홀히 할 수도 없으므로, 입학사정관전형에 치중하기 보다는 선택적인 지원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1학년도부터 적용된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 기준에 의해 공인어학시험(토익, 토플 등)과 올림피아드 입상 실적, 구술 영어 면접 및 영어 자기소개서, 해외 봉사 등의 사교육 유발 요인을 배제함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교과 성적을 유지하면서 교내 활동에 충실한 학생들의 활발한 지원이 예상된다.





2. 2012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 결과



이것만은 꼭!

- ▶ 전형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수시모집 평균 경쟁률보다 낮은 수준임.
- ▶ 학생부 성적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남.
- ▶ 지원 자격 제한을 완화하여 '스펙'의 영향력이 낮아짐.

지난해 고3 학생들은 입학사정관전형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각종 비교과를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또 입시에 대한 부담감으로 수시에 적극 지원하여 입학사정관전형의 경쟁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2012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의 경쟁률은 2011학년도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수시모집 학생부·논술 중심의 일반전형 경쟁률보다 낮게 나타났다.

2012학년도 주요대학 입학사정관전형 경쟁률

대학	입학사정관전형	모집인원	경쟁률
가천대(글로벌)	영프런티어	95	8.7
	리더쉽	105	16.28
	교육기회균형	32	13.81
가톨릭대	잠재능력우수자	150	11.23
	글로벌리더	82	5
	가톨릭지도자추천	54	7.33
	교육기회균등	17	14.47
강릉원주대	GWNU꿈 전형	53	3.81
	자기추천자	30	5.63
	글로벌인재	26	3.23
강원대	리더쉽	135	6.69
	전공역량우수자	252	6.15
	농어촌학생	132	5.02



대학	입학사정관전형	모집인원	경쟁률
건국대	KU자기추천	91	28.21
	KU전공적합	146	12.77
	KU사랑	40	9.88
	KU기회균등	60	18.88
	KU농어촌학생	120	9.43
경기대	KGU감성인재	215	9.59
	디자인비즈	52	9.46
	기회균형선발	12	19.66
경희대 (서울)	네오르네사스	262	18.16
	고교교육과정연계	50	3.8
	사회공헌.역격극복대상자	30	19.27
	창의적체험활동	26	34.19
경희대 (국제)	네오르네상스	240	10.13
	고교교육과정연계	50	2.36
	사회공헌.역격극복대상자	35	8.74
고려대	학교장추천	600	4.04
	자기추천1	40	18.65
	자기추천2	60	12.38
국민대	국민프런티어	90	10.66
	국가(사회)기여자	14	12.43
	농어촌학생	84	7.24
	기회균형	58	10.52
단국대	창의적인재	200	10.73
	IT. CT인재	50	10.32
	기회균형선발	24	15.58
	사회적배려대상자	30	6.07
동국대	불교계추천(일반)	83	5.66
	불교계추천(승려)	25	1.44
	두드림특성화	163	18.07
	DU ACTIVE학교생활우수자	107	14.98
	사회기여및배려자	96	7.1
	농어촌	75	8.12
	기회균형선발	57	11.82
동덕여대	동덕창의리더	59	7.76
	동덕미래창의디자인리더	16	7.75
명지대	입학사정관	121	11.82
부산대	고교생활우수자(교과우수)	2149	3.63
	고교생활우수자(창의적인재)		
	사회적배려대상자	60	2.70
	농어촌학생	173	5.36
	저소득층학생	131	5.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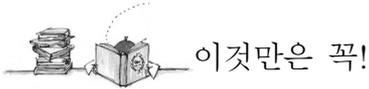
대학	입학사정관전형	모집인원	경쟁률
상명대	SM창의인재	103	12.83
	SM미래교사	24	14.13
	글로벌프런티어	40	8.95
서강대	학교생활우수자	260	9.96
	특기자	18	41.56
	가톨릭지도자추천	48	13.33
	사회통합	32	16.59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	729	2.89
	특기자전형(*)	1,155	8.97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I	208	6.39
서울시립대	UOS포텐셜(기초학문)	24	28.37
	UOS포텐셜(미래선도)	32	
	UOS포텐셜(도시과학)	19	
서울여대	바름플러스형인재	337	7.66
	바름에코전형	24	8.79
	사회기여자	10	7.20
	농어촌학생	69	5.77
	기회균등전형	35	10.23
성균관대	학교생활우수자	383	9.75
	지역리더육성	137	6.22
	리더쉽	150	20.34
	자기추천자	35	40.20
	나라사랑	30	27.40
성신여대	성신리더쉽우수자	130	10.36
	자기주도학습자	70	12.17
	지역인재	90	13.00
	특성화인재	50	13.40
	성신하모니	20	8.60
세종대	성장잠재력우수자	126	7.45
	창의적리더쉽	110	9.03
	사회기여자및배려자	24	6.21
숙명여대	자기주도학습우수자	200	7.32
	글로벌여성인재	30	8.43
	자기추천자	80	12.55
숭실대	SSU리더쉽	32	20.56
	SSU자기추천	47	9.00
	사회기여자및배려대상자	11	15.73



대학	입학사정관전형	모집인원	경쟁률
아주대	아주ACE전형	142	15.39
	커리어로드맵	46	9.50
	경기도우수인재	100	12.69
	국가유공자및사회기여자	32	7.81
연세대	창의인재트랙	30	60.56
	IT명품인재트랙	21	13.90
	진리자유트랙	500	11.01
	사회기여자트랙	20/다자녀:10	16.45/87.5
	연세한마음트랙	92	5.03
울산과학기술대	학교장추천	240	7.85
	과학영재및글로벌리더	170	5.05
	지역고교출신자	45	5.27
	기회균등	25	9.16
	학교생활우수자	195	9.22
이화여대	지역우수인재	200	11.49
	자기계발우수자	140	19.69
중앙대	다빈치형인재	235	27.59
	기회균등(유형1-유형6)	307	8.76
포항공대	일반전형	306	6.73
한국기술교육대	KUT리더	28	7.80
	이공계우수여학생	18	5.60
	사회기여자및배려대상자	10	9.80
	기회균형선발	9	9.30
	농어촌학생	18	8.00
한양대	미래인재	60	42.62
	사랑의실천	34	17.91
	농어촌학생	115	11.07
한양대(에리카)	미래인재	20	34.70
	농어촌학생	74	5.36
한국외대	21세기인재	231	8.69
홍익대	홍익미래인재	207	6.02
	홍익국제화	37	5.62
	수학과학우수자	31	9.70
	소년소녀가장	6	2.66
	국가(독립)유공자	10	8.60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일부 전형을 제외하고는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경쟁률을 나타낸 것은 서류전형에서 중점적으로 평가되는 이른바 '스펙'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원자격, 반영요소 등 지원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전형에 선택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전형방법이나 반영 자료의 부담이 적은 전형에 집중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반면 학생부 성적의 경쟁력을 갖춘 학생들은 다양한 전형에 지원이 가능하여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3.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요소별 분류



- ▶ 일반학생, 추천자 : 가장 많은 인원 선발, 학생부 반영 비율 높음
- ▶ 특기자 : 잠재력, 소질, 열정 등에 의한 연관성 중요
- ▶ 지역 선발, 농어촌 : 지원 자격 확인 필요

입학사정관전형의 전형유형은 글로벌전형, 리더십전형, 잠재능력우수자전형, 지역인재전형, 특기자전형 등 각 대학의 선발 취지와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수시모집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정시모집의 농어촌학생전형이나 사회배려자전형, 특수교육대상자전형 등의 정원외 전형은 입학사정관전형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서류 + 면접 전형

* 서류 전형에는 학생부가 포함 될 수 있음, 2012.2(대교협) 기준

대학	모집시기	전형유형	인원	전형 방법	수능최저학력
건국대	수시 1차	KU자기추천	206	1단계:서류100 2단계:심층면접100	X
경희대	수시 1차	네오르네상스	미정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 성적60+면접40	X
		사회공헌,역경극복대상자	미정		
고려대	수시 1차	추천전형	미정	1단계:서류100 2단계:면접40+서류60	미정
서강대	수시	자기추천전형	45	1단계 : 서류100 2단계: 면접40+서류60	X
		가톨릭지도자추천	42		
서울시립대	수시 1차	UOS 포텐셜	100	1단계 : 서류100 2단계 : 면접100	X
숙명여대	수시 1차	자기추천자	인:47 차:30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서류40+면접60	X
		지역핵심인재	172	1단계(기초자치단체별 2인 이내):서류100 2단계:1단계 성적40+면접60	X
이화여대	수시	입학사정관전형	미정	1단계 : 서류100 2단계 : 면접20+서류80	X
중앙대	수시 1차	다빈치형인재	287	1단계 :서류100 2단계:서류및면접100	X
한양대	수시 1차	미래인재	미정	1단계 : 기타100 2단계 : 면접60+기타40	X



서류 + 면접 + 학생부 전형

* 서류 전형에는 학생부가 포함 될 수 있음, 2012.2(대교협) 기준

대학	모집시기	전형유형	인원	전형 방법	수능최저학력
건국대	수시 1차	KU전공적합	140	1단계 :학생부100 2단계 :서류100 3단계 :2단계성적50+심층면접50	X
		기회균등	150	1단계 : 학생부100 2단계 : 면접50+서류50	
동국대	수시 1차	DU ACTIVE (학교생활우수자)	197	1단계(3배수) : 서류30+학생부70 2단계 : 1단계 성적 60+면접40	X
서강대	수시 1차	학교생활우수자 (자격1)	260	1단계 :학생부75+서류25 2단계 :1단계80+면접20	X
숙명여대	수시 1차	자기주도학습우수자	213	1단계 : 서류100 2단계 : 면접60+서류40	X
한국의대	수시 1차	21세기 인재	150	1단계 : 학생부30+서류70 2단계 : 면접100	X
홍익대	수시1차	홍익미래인재	미정	1단계 : 학생부70+서류30 2단계 : 학생부40+면접30+서류30	X

학생부 + 서류 전형

* 서류 전형에는 학생부가 포함 될 수 있음, 2012.2(대교협) 기준

대학	모집시기	전형유형	인원	전형 방법	수능최저학력
서강대	수시	학교생활우수자 (자격2)	84	학생부+서류100	X
		사회통합전형	31	1단계 : 학생부100 2단계 : 학생부60+서류40	
서울시립대	수시1차	UOS학교생활우수자	253	1단계 : 학생부100 2단계 : 학생부70+서류30	X
성균관대	수시 1차	학교생활우수자	330	학생부70+사정관평가30	미정
		나라사랑	30		
		지역리더육성	138		
연세대	수시	한마음	미정	학생부50+서류50	X
한양대	수시1차	브레인한양	220	학생부50+서류50	X



4.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 대비 전략



이것만은 꼭!

- ▶ 충실한 학교생활
- ▶ 자신의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서 출발
- ▶ 자신의 진로에 맞게 주도적으로 활동
- ▶ 모든 활동 내용의 기록화
- ▶ 객관적이고 성실한 서류 작성

앞서 최근의 입학사정관전형 시행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전형 요소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다. 아울러 입학사정관전형의 취지와는 무관한 자료와 자격 요건에만 집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입학사정관전형에 유리한 학생과 불리한 학생(단국대 입학사정관전형 안내 자료 참고)

기본적으로 학교 내신, 즉 교과 활동을 성실하게 한 학생	
+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태도와 능력을 지닌 학생	
논리적 표현력과 비판적인 사고 능력, 창의적 사고력을 지닌 학생	
진로와 관련된 학습 계획을 세워 일관되고 꾸준하게 노력해 온 학생	
자신의 특성에 맞는 전형을 미리 준비한 학생	
자신의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학생	
머릿속에는 꿈을, 가슴속에는 열정을 담고 있는 학생	

불리한 경우	학교생활은 충실히 하지 않고, 사교육에 의존하여 포트폴리오만 작성한 경우
	뚜렷한 진로설정 없이 여러 가지 활동만 한 경우
	과도한 스펙으로 포장을 한 경우 (해외봉사활동, 각종 경시대회 등)
	서류(자기소개서 등)의 내용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입학사정관전형 도입 초기에서 나타났던 ‘스펙’에 의한 합격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예상은 주요 대학의 전형 평가요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학(평가요소)	반영	미 반영
서강대 (자기주도적학습)	학생부, 교사추천서, 심층면접	토익·토플, 해외봉사, 외부수상실적
성균관대 (학교생활충실도)	교과성적 관리, 교내 행사 참여	스펙
숙명여대 (자기주도적학습)	사회봉사 20시간 이상 동점 처리	해외 봉사, 사설 단체 수상 경력

■ 학생부

현실적으로 적성이나 소질을 계발할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교과 성적은 학생의 잠재력을 일정 부분 설명할 수 있으므로 모집 단위와 연계된 과목이나 관련 특기사항은 1,2학년부터 충실히 준비하여 대학수학 능력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생활기록부 평가 영역 사례

평가 영역	세부 평가 내용
성실성	- 무단결석·지각·조퇴·결과가 있는가? - 전 학년에 걸쳐 모든 교과 성적 우수인가
잠재력	- 성적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는가? - 한 분야의 대회에서 수상실적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는가?
전문성	- 특정교과에서 일관되게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가? - 전공과 관련된 우수 수상 실적이 있는가?
적성소질 계발	- 자신의 특기, 진로희망, 활동내역, 교과성적, 수상실적이 일치하는가?
동아리활동	- 학교생활과 관련성, 주변의 문제에 대한 학생의 시각에 의한 활동을 하였는가? - 교수-학습활동에 기여했는가?(교재개발, 홈페이지 개선 등)
봉사활동	- 의미 있는 봉사활동인가? - 1달에 한 번이라도 봉사정신을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였는가?

■ 서류

•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자신이 누구인지, 남과 다른 자기만의 독특한 능력과 품성이 무엇인지, 해당 분야를 공부하기에 적절한지 등을 알리는 글이다. 추상적으로 쓰기보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실례나 일화를 들어 자신의 장점과 개성, 단점 극복 노력 등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자신의 독특한 특성과 능력, 경험과 체험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자신의 진로 목표 달성을 위한 성실한 노력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자신이 지원한 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임을 최대한 부각시켜야 하는데, 가급적 1,2학년부터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기소개서의 좋은 예	자기소개서의 나쁜 예
에피소드 중심의 차별화된 표현	현란한 미사어구
솔직하고 간결한 표현	제3자적 시각에서 작성(타인, 어른)
학습동기와 목표 구체화	합격하고자 하는 의지 부족
일관성 있고 유기적인 내용	과장된 자기 미화
실적 중심 작성	실적의 단순 나열

• 추천서

추천서 작성 시 누구를 추천인으로 결정할지가 가장 중요하다. 추천인이 고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추천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추천인은 추천서를 통해서 지원자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면서 알게 된 지원자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특성을 소개해야 한다.

• 학업계획서

학업계획서는 대략적으로 해당 전공분야에 지원하게 된 동기, 입학 후의 학업계획 및 자기개발 계획, 졸업 후의 진로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를 요구한다. 단순히 대학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상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 학과에 대한 사전 지식과 함께 포부 및 앞으로의 비전을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 면접

면접은 학생부와 서류 등의 자료를 통해 나타난 과거의 성취 결과를 증명하여 잠재력을 평가받는 입학사정관전형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단계별 전형을 채택하여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하게 되며, 최종 합격을 가늠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다.

• 면접은 단순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입학사정관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지원자들이 가진 잠재력과 학업에 대한 열정, 그리고 준비과정에서의 진실성 등이다. 왜 우리 대학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지, 왜 특정학과에 입학하려 하고 이를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왔는지, 과연 입학한 후 진심으로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지 등을 심도 있게 관찰하고 그에 대한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어 한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너무 짧게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기 보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입학사정관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시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지원학과와 관련된 지식은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받게 된다.

입학사정관들이 지원자들의 인성이나 잠재력을 심도 있게 살펴본다고 해서 학업에 관한 질문을 소홀히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학생의 지원 동기나 학업에 대한 열의 등 내면적인 평가만큼이나 입학 후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의 준비상태도 중요하게 평가한다.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된 질문에 얼마나 잘 대처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Chapter IV.

수능 출제 경향 분석 및 수능 대비 전략

1. 2012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언어 영역

1. 출제 경향 및 특징

- 제재별 비중 및 배점 측면에서 그동안의 기존 체제가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각 제재별로 출제되어 온 대표적인 유형들이 다양한 사고를 묻는 형태로 출제되었다.
→ 비문학은 2011 수능까지 제재별로 2~5문항으로 다양하게 출제되었는데, 2012 수능에서도 비문학 제재별 문항 수가 2~4문항으로, 사회 제재에서 2문항 출제되었다.
- 듣기는 라디오 방송, 강의, 대담, 대화 등 다양한 형식의 듣기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함으로써 실제 언어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및 이해 능력 평가에 중점을 두었다.
→ 문제 유형은 방송을 들은 후 나타난 반응의 적절성 평가, 내용의 이해 및 구체적 확인, 마지막 말에 이어질 내용 추론, 특정 발화자의 발화 내용 이해, 대화자의 공통된 말하기 방식 파악 등 기존에 자주 출제되어 오던 대표 유형들 위주로 출제되었다.
- 쓰기는 내용 생성, 내용 표현, 내용 조직, 퇴고 등 글쓰기의 전 과정에 걸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통해 실제적인 글쓰기 상황에서의 논리적 사고력 및 창의적 사고력 평가에 주안점을 두었다.
→ 쓰기에서 출제된 8번은 수집한 글감을 바탕으로 글쓰기의 구상 내용을 보완하는 문제인데, 6월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7번 유형이 응용·변형된 형식으로서 비교적 참신한 유형에 해당한다.
- 어휘·어법 문제로는, 둘 이상의 단어가 어휘적으로 긴밀하게 결합하여 하나의 구성단위처럼 인식되는 경우를 <보기> 자료로 제시하고 그와 동일한 특성을 보이는 구체적 단어를 분류하는 문항(11번)과, ‘동시’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면서’와 ‘-자’에 대해 탐구한 내용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문항(12번)이 출제되었는데, 어휘·어법 관련 문제를 어려워하는 수험생들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까다롭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문학 제재는 수험생 수준에서 비교적 익숙한 작품들과 낯선 작품들이 섞여서 출제된 편인데, 거의 대부분의 작품이 EBS 교재에 수록된 작품들(곽재구의 ‘구두 한 켤레의 시’, 이광명의 ‘북찬가’, 이태준의 ‘돌다리’, 박지원의 ‘호질’, 함세덕의 ‘산허구리’)이고, 지문이나 자료, 문제 유형 등의 변형 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대체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복합 지문은 현대시 두 작품[곽재구의 '구두 한 켄레의 시', 김동환의 '산 너머 남촌에는']과 고전시가 한 작품[이광명의 '북찬가'(가사)]이 묶여서(시가 복합) 여섯 문항이 출제되었다.
- 비문학은 각 제재별 성격이 뚜렷이 드러나는 글들을 지문으로 선정하여, 정보의 분석적 이해 및 구체적 적용 능력을 평가하는 유형에서부터 관련 정보나 상황의 추론 및 비판 능력을 평가하는 유형까지 고루 출제되었다.
- 언어 제재에서 출제된 42번은 지문에서 설명한 정보 및 원리를 바탕으로 문제에 제시된 <보기>의 언어 자료를 분석적으로 탐구하는 문제인데, 등장하는 용어나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약간 까다롭게 느꼈을 것이다.

2. 난이도

2012 수능 언어 영역의 난이도는 2011 수능과 비슷하고, 쉽게 출제되었던 2011년 9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려운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듣기와 쓰기는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그동안 자주 출제되어 온 대표적인 유형 위주로 그다지 어렵지 않게 출제된 편이고, 문학은 EBS 교재 수록 작품들이 다수 출제되었는데 사고력이 필요한 문항도 안배되었다. 비문학은 각 제재별 성격이 뚜렷한 글을 지문으로 하여 다양한 능력을 평가하려는 문제 유형들이 고루 출제되었으며, 기술 제재를 제외한 나머지 지문이 EBS 교재에서 다룬 핵심 내용이나 소재, 개념이나 원리를 바탕으로 지문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연계 출제되었는데, 변별력을 감안하여 약간 까다로운 문제도 한두 문항 안배되었다.

2011 수능 대비	쉽다		비슷하다	○	어렵다	
9월 모의평가 대비	쉽다		비슷하다		어렵다	○

3. 고난도 문항

- 20번(인문 제재) :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논고」 중 '그림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인문 제재에서 출제된 문항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논고」에서 주장한 바를 이해해야 하고, 이를 근거로 비트겐슈타인이 <보기> 자료와 같이 말한 이유를 추론해야 한다. 그런데 '언어, 세계, 명제, 사태, 논리적 그림, 실재, 형이상학적 주체' 등 관념적인 용어들을 사용한 철학적인 글이다 보니 수험생들이 지문과 <보기>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43번(예술 제재) : 바로크 시대의 기악이 가진 문제 상황을 음악 수사학의 영향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설명한 예술 제재를 지문으로 하여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항이다. 배점이 1점으로 배정된 문항이라 오답률이 높다는 것이 약간은 의외일 수 있는데, 바로크 시대에 '정서론'이나 '음형론'이 출현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마테존이나 한슬리크의 주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수험생들이 간과하여, 지문의 내용이 선택지 ④의 내용처럼



어떤 이론이 다양하게 분화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여겨진다.

4. EBS 연계

- 듣기 : 2번의 경우, EBS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듣기 대본의 소재 및 내용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대본을 구성하였으며, 문제 유형도 거의 유사하게 출제되었다.
- 쓰기 : [9~10]번은 EBS 교재의 읽기 제재 지문 내용이 쓰기 제재에서 두 문항을 연계한 형태의 문항으로 응용·변형되어 출제된 것이다.
- 어휘·어법 : 11번의 경우, EBS 교재에 수록된 언어 제재의 일부 내용을, 쓰기 관련 어휘 문제의 <보기> 자료 내용으로 변형하여 출제하는 방식으로 연계되었다.
- 문학 : EBS 교재에 수록된 작품의 전문(곽재구의 ‘구두 한 켄레의 시’) 혹은 지문의 일부 내용(이광명의 ‘북찬가(北竄歌)’, 이태준의 ‘돌다리’, 함세덕의 ‘산허구리’)을 활용하거나, EBS 교재에 수록된 작품 내용을 거의 그대로 활용하면서 EBS 교재에 수록되지 않은 내용도 추가(박지원의 ‘호질’)하여 지문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연계되었다. 문제 유형의 경우는 몇몇 문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응용·변형되어 출제되었다.
- 비문학 :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논고」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한 인문 제재 지문과, 외부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외부성으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경제학의 해결책과 그에 대한 비판을 소개한 사회 제재 지문은 EBS 교재에 수록된 두 지문의 내용을 종합하여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연계되었다. 그리고 양자 역학의 불확정성의 원리를 설명한 과학 제재, 바로크 시대의 기악이 가진 문제 상황을 음악 수사학의 영향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설명한 예술 제재, 한글의 표음성이 갖는 합리성을 중국의 반절법과 국제 음성 기호 등과 대비하여 설명한 언어 제재 등에서는 EBS 교재의 지문 내용이 연계·반영되어 출제되었다.

수리 영역

1. 출제 경향 및 특징

- 2012 수능 수리 영역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첫 수능 시험으로, ‘가’형은 수학 I, 수학 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의 4과목에서 출제되었고, ‘나’형은 수학 I, 미적분과 통계 기본의 2과목에서 출제되었다. 또, 6월 및 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면서 체제에 다소 변화가 생겨 ‘가/나’형 모두 선다형 21문항, 단답형 9문항이 순차적으로 배열되었다.





- ‘가/나’형 모두 출제 범위의 각 단원에서 고르게 출제되었으나, ‘가’형은 수학 I 과 적분과 통계에서 각각 7문항씩, 수학 II와 기하와 벡터에서 각각 8문항씩 출제되어 9월 모의평가에서 수학 I 이 8문항, 기하와 벡터가 7문항 출제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과목별 출제 문항 수에 다소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나’형은 수학 I 과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각각 15문항씩 출제되었다.
- 합답형(보기) 문항은 ‘가/나’형 모두 2문항이 출제되었다. ‘가’형의 경우 2011 수능에 비하면 2문항이 적게 출제되었는데, 쉬운 수능을 표방하면서 시간 안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 ‘가’형의 경우, 고난도 문항이 일부 포함되어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이 확보되었으나 만점자의 비율은 0.28%에 그쳤다. ‘나’형의 경우, 만점자의 비율이 2011 수능에 비해 0.41% 오른 0.97%에 달하였으나 평가원에서 목표로 했던 1~1.5%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2. 난이도

‘가/나’형 모두 2011 수능에 비해 쉽게 출제되었다. ‘가’형의 경우, 매우 쉽게 출제되었던 6월 및 9월 모의평가에 비해 상위권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다소 어려웠다.

가형	2011 수능 대비	쉽다	○	비슷하다		어렵다	
	9월 모의평가 대비	쉽다		비슷하다		약간 어렵다	○
나형	2011 수능 대비	쉽다	○	비슷하다		어렵다	
	9월 모의평가 대비	약간 쉽다	○	비슷하다		어렵다	

3. 고난도 문항

- 공통 30번 - 밑이 1보다 큰 두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파악하여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a, b 의 순서쌍 (a, b) 의 개수를 구하는 문항이다. 발문에서 예를 들어 설명한 바와 같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묻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문제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해하더라도 문제 해결의 발상적인 측면,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커 고난도 문항에 해당한다.
- ‘가’형 21번 - 법선벡터를 이용하여 삼각형 ABC와 평면 $x - 2y + 2z = 1$ 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의 최댓값을 구하는 문항이다. 좌표공간에서 넓이가 일정한 삼각형의 위치에 따라 정사영의 넓이가 달라짐을 이해하여야 하는데, 높은 공간 지각 능력을 요구하는 고난도 문항에 해당한다.
- ‘나’형 21번 - 삼차함수 $f(x)$ 가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f(-x) = -f(x)$ 를 만족시키므로 함수 $f(x)$



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임을 파악하고, 주어진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이기 위해서는 함수 $f(x)$ 의 극값이 -2 , 2 임을 발견해야 하는 고난도 문항에 해당한다.

4. EBS 연계

- 70% 정도를 연계하여 출제하겠다는 평가원의 방침에 따라 EBS 교재 연계 비중이 높은 편이었고, 2012 수능을 쉽게 출제하고자 대체로 쉬운 난이도를 유지하면서 연계율을 높여 학생들의 연계 체감률은 2011 수능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 ‘나’형은 EBS 교재와 숫자 또는 식을 일부 바꾸는 형태의 직접 연계된 문항이 많은 편이어서 70%의 높은 실질 연계율을 보였으나, ‘가’형은 EBS 교재에서 변형한 형태가 많아 학생들이 연계를 쉽게 체감하지 못하여 실질 연계율은 평가원에서 발표한 70% 보다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EBS 교재와 연계되어 출제된 문항들 대부분이 학교 수학에서 다루는 기본 개념과 원리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어서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 않은 문항들이었다.

외국어(영어) 영역

1. 출제 경향 및 특징

- 영역별 문항 수 및 배점 등은 기존 체제가 유지되었고, 다양한 소재를 고루 활용한 문항들이 출제되었다.
- 듣기와 말하기는 일상적인 소재를 활용한 문항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2011 수능과 마찬가지로 평이했다.
- 읽기와 쓰기는 2011 수능에 비해 전반적으로 어휘의 수준이 평이했으며 지문의 길이도 약간 짧아졌다.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하나를 고르는 유형」의 경우, 2011 수능에서는 밑줄 친 부분이 대명사로만 제시되었는데, 2012 수능에서는 대명사와 명사(구)가 섞여서 제시되었다.
- 예년과 마찬가지로, 어휘 문제는 제시된 어휘의 의미를 문맥 안에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 출제되었으며, 어법 문제는 기본적인 문법 지식을 바탕으로 문장 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2. 난이도

2012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의 난이도는 EBS 교재와의 연계 체감도가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된 편이다. 그리고 2011 수능과 비교했을 때, 상위권 변별력 확보를 위한 고난도 문항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상위권의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11 수능 대비	쉽다	○	비슷하다		어렵다	
9월 모의평가 대비	쉽다	○	비슷하다		어렵다	

3. 고난도 문항

- 21번(어법상 틀린 곳 찾기) : 어법상 잘못된 곳은 주어와 동사의 수의 일치를 묻고 있는 부분인데, 해당 문장의 주어가 도치되면서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워졌고 따라서 정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문항이다.
- 28번(빈칸 추론) :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이 토양의 황폐로 인한 농작물의 생산 감소 때문이라는 내용을 다룬 글로, 빈칸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단서가 지문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유추해야 하는 고난도 문항이다.
- 30번(빈칸 추론) : 사회과학 분야에서 과학적인 증거의 활용에 대해 설명한 글로, 소재가 생소하여 내용 이해가 쉽지 않고 선택지 역시 까다로워 어려운 문항이다.

4. EBS 연계

- EBS 교재의 내용에서 문항을 변형·재구성하여 70%를 연계하여 출제하였다. 구체적인 연계 형태를 살펴보면, 지문을 활용하여 문제의 유형을 변형한 형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외에 대화[지문]의 내용을 일부 바꾸어 재구성한 형태, 그림[도표]를 그대로 활용하고 대화[지문]의 내용을 재구성한 형태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 EBS 교재에서 다른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연계하거나 자료를 활용하는 형태로 연계하여 2011 수능에 비해 연계 체감도가 다소 높아진 편이다.

사회탐구 영역

1. 출제 경향 및 특징

- 수능 기출이나 6월 및 9월 모의평가와 유사한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었다.
- 지도, 그래프, 삽화, 표, 사진 등 다양한 자료가 활용되었고, 시사 일상생활 관련 문항이 출제되었다.



- 자료 분석이 복잡하거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풀 수 없는 고난도 문항들이 과목별로 2 문항 정도 출제되었다.
- EBS 교재의 내용이나 자료를 크게 변형하지 않고 연계한 문항이 다수 출제되어, EBS 교재를 꼼꼼하게 학습한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2. 난이도

2012 수능에서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의 평균 점수가 29~31점대로 매우 쉽게 출제되었고, 2011 수능에서 비교적 어렵게 출제되었던 국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도 평균 점수가 1~7점 정도 올라 전체적으로 볼 때 쉬웠다.

2011 수능 대비	쉽다	○	비슷하다		어렵다	
9월 모의평가 대비	쉽다	○	비슷하다		어렵다	

3. 고난도 문항

- 윤리 교과군 → 윤리 11번 : 순서도를 통해 칸트, 스피노자, 흄의 사상을 비교하는 문항으로, 특히 칸트의 사상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까다로웠을 것이다.
- 역사 교과군 → 국사 12번 : 윤희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윤희임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충분하지 않았고 답지를 고를 때 박세당과 혼동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는 다소 까다로웠을 것이다.
- 지리 교과군 → 한국지리 5번 : 우리나라의 중부 지방에 나타나는 하천 지형의 평면도와 단면도를 통해 지형의 형성 원인을 파악하는 문항으로, 지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면 답을 찾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 일반사회 교과군 → 경제 20번 : 무역 이익을 계산하는 문항으로, 자주 출제되는 소재이므로 아주 어렵지는 않지만 문항을 푸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학생들에게는 다소 까다로웠을 것이다.

4. EBS 연계

- EBS 교재에서 70% 이상을 연계 출제하겠다는 평가원의 방침에 따라 한국지리와 법과 사회는 75.0%, 나머지 과목들은 70.0%가 EBS 교재와 연계되어 출제되었다.
- 2011 수능에 비해 2012 수능에서는 EBS 교재의 자료와 내용을 크게 변형하지 않고 출제하여, 학생들이 느끼는 연계 체감도는 크게 높았다. EBS 교재와 연계된 문항이 다수 출제되어 꼼꼼하게 풀 어본 학생들은 다소 어려운 문항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나,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고난도 문항을 푸는 데에는 EBS 교재 학습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학탐구 영역

1. 출제 경향 및 특징

- 개념 이해·적용 문항과 자료 분석 및 해석 문항이 주로 출제되었다.
- 평가원 출제 방향에 따라 EBS 수능 강의나 교재의 문제 및 자료를 활용한 문항이 출제되었으나, 실제로 눈에 띄게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은 과목별로 평균 2~3문항 정도였다.
- 대다수 자료들이 기출 문항이나 다른 교재 등에서도 유사하게 다루어지는 내용들이어서 특별히 EBS 교재에서만 연계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난이도

2012 수능 과학탐구 영역의 난이도는 대체로 2011 수능 및 9월 모의평가보다 쉽게 출제되었으며, 전체적인 점수 분포만을 놓고 보더라도 쉽게 출제되었다.

2011 수능 대비	쉽다	○	비슷하다		어렵다	
9월 모의평가 대비	쉽다	○	비슷하다		어렵다	

3. 고난도 문항

- 물리 I : 9번(마찰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운동 방정식을 세우고, 등가속도 운동의 관계식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문항), 14번(이웃한 두 자기장 영역을 정사각형 도선 P가 통과하는 동안의 유도 전류의 변화로부터 두 영역의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알고, 두 영역의 경계를 따라 정사각형 도선 Q가 통과하는 동안의 유도 전류의 세기를 구하는 문항), 19번(매달린 물체의 중력과 용수철에 의한 탄성력, 마찰력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는 문항), 20번(저항 4개로 회로를 구성하고, 이 회로에 세 개의 단자를 설정한 후, 임의의 두 단자를 연결하였을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이용하여, 저항의 비를 구하는 문항)이 어렵게 출제되었다.
- 물리 II : 12번(수소 원자의 선스펙트럼과 에너지 준위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항), 15번(열역학 제1 법칙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을 묻는 문항), 18번(전기장의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운동하는 전하량이 같은 두 전하의 운동을 운동 법칙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문항), 20번($R-L-C$ 회로에서 저항과 코일에 걸리는 전압의 시간에 따른 변화 그래프를 이용하여 회로를 해석하는 문항)이 어렵게 출제되었다.
- 화학 I : 4번(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의 반응성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 11번(불포화 탄화수소인 에틸렌과 관련된 여러 반응에서 반응의 종류에 따른 생성물이나, 생성물로부터 반응물을 알아낼 수 있는지 묻는 문항), 16번(금속이 다른 금속 이온이 들어 있는 수용액 속에 담가졌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해석하여 금속의 반응성 및 금속의 특성을 알아내는 문항)이 어렵게 출제되었다.





- 화학II : 10번(중화 반응에서 가해진 HCl 수용액의 부피와 밀도로부터 HCl의 몰수를 구할 수 있어야 하는 문항), 13번(여러 가지 반응에서의 엔탈피 변화를 해석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16번(표준 환원 전위와 화학 전지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 18번(혼합 수용액의 끓는점 변화를 해석하여 끓는점 오름의 원리를 적용하여 용질의 분자량을 비교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20번(화학 평형의 원리를 적용하는 문항으로 두 물질의 농도를 다르게 하였을 때 생성되는 물질의 농도 변화를 해석하여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어야 하는 문항)이 어렵게 출제되었다.
- 생물 I : 18번(가계도를 분석하는 문항으로, 유전 형질이 (가)~(다) 3개가 제시되어 분석하기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으로 판단되며, 유전과 생식 세포 형성에 대한 교과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항), 20번(인공 신장기와 사구체, 보먼 주머니의 각 부위에서의 요소, 포도당, 단백질의 농도를 비교하는 문항으로, 인공 신장기의 원리와 신장에서의 체액 흐름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므로 생각해야 할 내용이 많아 까다로운 문항)이 어렵게 출제되었다.
- 생물 II : 18번(2가지 형질에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문항으로, 여러 번의 계산 과정을 거쳐야 답을 구할 수 있는 문항), 20번(문항을 해결하기 위한 교과 개념이 어려운 문항으로, EBS 교재의 여러 문항이 연계된 고난도 문항)이 어렵게 출제되었다.
- 지구과학 I : 15번(저기압이 통과하는 동안의 일기 기호의 변화를 해석하여 기압, 상대 습도, 절대 습도를 알아낼 수 있는지 묻는 문항), 17번(두 공기 덩어리가 상승할 때 높이에 따른 이슬점 변화를 해석하여 두 공기 덩어리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20번(1년 동안 태양과 금성이 지는 시각을 비교하여 금성의 운동을 해석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 어렵게 출제되었다.
- 지구과학 II : 14번(기층의 안정도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선과 단열선을 비교하여 기층의 안정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문항), 17번(하루 동안의 태양의 방위에 따른 고도 변화 그래프를 해석하여, 각각 어느 날의 변화인지 알고, 관측 지역의 위도를 알아낼 수 있어야 하는 문항), 20번(B 필터를 이용하여 관측한 별의 겉보기 등급과 V 필터를 이용하여 관측한 별의 겉보기 등급 및 연주 시차를 이용하여 각 별들의 물리량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하는 문항)이 어렵게 출제되었다.

4. EBS 연계

- EBS 교재의 내용이나 자료들이 반영된 것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이미 여러 기출 문제들과 다른 교재들에서도 다루어졌던 자료들이 많아 특별히 EBS 교재에서만 반영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문항들에 제시된 자료가 변형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EBS 교재의 문제를 한 번 풀어보는 정도로 학습한 수험생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 문항에 제시된 자료들이 익숙하게 생각되는 문항이 많았을지라도, 자료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수험생들은 EBS 교재의 반영 여부와 상관없이 고득점이 어려웠을 것이다.





2. 2015학년도 수능 주요 개편 사항

국어 영역

1. 주요 개편 사항 요약

개편 사항	세부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과목명 변경	언어 영역	국어 (A형 / B형 중 택 1)
교과의 수준별 편성	국어,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매체언어	국어, 화법과 작문 I, 화법과 작문 II, 독서와 문법 I, 독서와 문법 II, 문학1, 문학II, (매체언어는 화법에 포함)
수준별 시험 도입 및 응시	언어 영역	<p>국어 A형 : 현행 수능보다 출제 범위를 줄이고 쉽게 출제(이공계열 / 예체능계열 / 특성화고 동일계 전형 응시)</p> <p>국어 B형 : 현행 수능 수준 유지(인문사회계열 응시) - 수학 B형과 동시에 선택 불가. B형은 최대 2과목까지로 응시 과목 수 제한</p>
출제 범위	범교과적 출제	<p>▶ 교과 중심 출제</p> <p>국어 A형 : 화법과 작문 I, 독서와 문법 I, 문학 I</p> <p>국어 B형 : 화법과 작문 II, 독서와 문법 II, 문학 II</p> <p>※ 교육 과정의 과목에 기초하되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p>
문항 수 축소	50문항, 80분, 100점 만점	45문항 , 80분, 100점 만점
문항별 배점	1점-5문항, 2점-40문항, 3점-5문항	2점-35문항, 3점-10문항
듣기 평가 폐지	듣기 평가 5문항	지필 평가로 대체





2. 개편안에 따른 2015 수능 출제 방향 예측

※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일선 학교에서의 준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비상에듀에서 예측한 자료를 제시함.

▶ 2014 수능부터 교과 중심 출제가 강화됨에 따라, 2015 수능에서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교과서(화법, 작문, 독서, 문법, 문학)를 활용한 문제 출제가 강화될 것이다.

예를 들면, 현행 듣기 평가가 폐지되는 대신 대체되는 지필 평가는 국어에서 말하기·듣기 관련 요소를 포함한 과목인 '화법' 교과서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즉, 듣기 평가를 대체하는 지필 평가에 '화법' 관련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쓰기의 경우는 '작문' 과목을 활용하여 기존의 문제 유형 위주로 출제될 것으로 보이며, 현행 어휘·어법 문제의 경우는 '국어' 및 '문법' 과목을 근간으로 하여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독서' 과목과 관련한 문제가 1~2문항 정도 출제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듯 '국어', '문학' 이외의 모든 교과서들이 활용되다 보니 이와 관련된 문항 비중 또한 현행 체제보다 높아져, 현행 수능에서 총 50문항 중 12문항을 차지하는 '말하기·듣기(지필 평가), 쓰기, 어휘·어법' 비중이 '화법, 작문, 독서, 문법'과 관련하여 약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 '수준별 시험' 출제로 인해 'A형'과 'B형'의 비문학 제재 구성이 다를 것이다.

'A형'은 주로 이공계열 지망 수험생을 응시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다. 따라서 현행 수능의 '인문/사회/과학/기술/예술/언어' 6개 제재 중 인문계열 성향이 강한 제재에 속하는 '인문', '사회' 제재 중 하나의 제재만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A형'은 '인문(사회)/과학/기술/예술/언어'의 5개 지문으로 구성되게 된다.

이에 반해 'B형'은 주로 인문사회계열 지망 수험생을 응시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다. 따라서 이공계열 성향이 짙은 제재인 '과학', '기술' 제재 중 하나의 제재만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B형'은 '인문/사회/과학(기술)/예술/언어'의 5개 지문으로 구성되게 된다.

▶ 교과 중심 출제가 강화됨에 따라 개념 지식을 묻는 내신형 문제 유형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수능이 사실적 사고력, 추론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해 전적으로 지문이나 제시된 자료만을 활용하는 시험이었다면, 2015 수능은 교육 과정의 과목에 기초한 개념 지식을 묻는 문항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학력고사식 문제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들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 비문학 제재는 비중을 줄이고, 문학 제재는 갈래별 특성에 따른 출제 방식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수능에서 '문학 : 비문학'은 '4지문 17문항 : 6지문 21문항'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비문학이 문학보다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2015 수능은 현행 수능보다 쉬워질 가능성이 크므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하고 난이도 조절에 큰 장애물인 비문학의 비중이 '6지문'에서 '5지문'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문학은, 현행 수능에서 '현대시'나 '시가 복합', '갈래 복합' 지문의 경우 세 작품을 하나의 지문으로



구성함으로써 한 시험 당 지문의 개수는 4개이지만 총 작품 수는 6~8작품이어서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었던 사항을, 한 지문 당 작품 수를 가급적 줄여(예를 들면, 한 지문 당 한 작품으로 구성) 전체 작품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갈래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현행 수능에서 출제되는 문학 장르인 '현대시, 고전 시가, 현대 소설, 고전 소설, 극(또는 수필)' 분야의 해당 작품들이 각각의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변화한다면 '비문학' 제재가 5지문이 되고, '문학' 제재도 5지문이 되므로 '비문학 : 문학'의 비중이 같아진다.

▶ **'A형'과 'B형'의 공통 문항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2014 수능부터 개편되는 주요 사항을 보면, 국어 영역의 'A형'과 'B형'은 출제 범위부터가 다르다. 즉, 출제의 근간이 되는 과목부터가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2014 수능의 핵심이 '수준별 시험'이다. 따라서 2014 수능과 마찬가지로 2015 수능에서도 'A형'과 'B형'의 공통 문항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문학 1~2지문, 비문학 1~2지문 정도를 공통 지문으로 사용하고, '화법, 독서, 작문, 문법' 관련 문항에서 3~4문항 정도 공통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 **대학들이 'B형' 시험의 반영 비중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2015 수능에서 'A형'을 선택하는 수험생들의 경우, 현행 수능보다 출제 범위도 줄고 시험의 난이도도 쉬워져 심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B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인문계 중상위권 학생들은 현행 수능 수준의 문제를 풀기 위해 공부해야 하므로 현행 입시의 언어 영역에 대한 부담을 그대로 지니게 된다.

그리고 대학들은 실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운 난이도의 'A형'을 선택하는 학생보다 어려운 난이도의 'B형'을 선택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B형' 시험의 반영 비중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최대 2과목까지 응시할 수 있는 'B형' 과목들에 집중하여 준비할 것이고 그로 인한 부담이 현행 입시에서 오는 부담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수학 영역

1. 주요 개편 사항 요약

개편 사항	세부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과목명 변경	수리 영역 (‘나’형 / ‘가’형 중 택 1)	수학 (A형 / B형 중 택 1)
수준별 시험 도입 및 응시	수리 영역 ‘나’형	수학 A형 : 현행 수능보다 쉽게 출제(인문사회계열 / 예체능계열 / 특성화고 동일계 전형 응시)
	수리 영역 ‘가’형	수학 B형 : 현행 수능 수준 유지(이공계열 응시) - 국어 B형과 동시에 선택 불가. B형은 최대 2과목까지로 응시 과목 수 제한
출제 범위	수리 ‘나’형 : 수학 I, 미적분과 통계 기본 수리 ‘가’형 : 수학 I, 수학 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 교과 중심 출제 수학 A형 : 수학 I, 미적분과 통계 기본 수학 B형 : 수학 I, 수학 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2. 개편안에 따른 2015 수능 출제 방향 예측

※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일선 학교에서의 준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비상에듀에서 예측한 자료를 제시함.

- ▶ 수학의 경우는 현행에서도 수리 ‘가’형, 수리 ‘나’형을 구분하여 응시하는 체제였던 만큼 수준별 시험 도입에 따른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수학은 이공계열과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이 다르고, 같은 내용을 배우더라도 학습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현행에서도 수리 '가'형과 수리 '나'형으로 구분하여 응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수학의 경우, 이미 수준별 시험을 치르고 있으므로 국어와 영어에 비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 **'A형'과 'B형'의 공통 문항은 7문항 이상 출제될 것이다.**

수학의 경우, 2014학년도 수능 개편 방안에 따른 각 유형별 출제 과목이 2012 수능과 동일하므로 2012 수능을 기준으로 예상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A형' : 출제 과목에서 각각 15문항씩(50%) 출제

[참고] 2012 수능 수리 '나'형에서는 각각 15문항씩 출제

- ② 'B형' : 출제 과목에서 각각 7~8문항씩(약 25%) 출제

[참고] 2012 수능 수리 '가'형에서는 수학 I 과 적분과 통계에서 각각 7문항씩, 수학 II와 기하와 벡터에서 각각 8문항씩 출제

또한, 'A형'과 'B형'의 공통 문항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으나 수학 I 이 공통 과목이므로 'B형'에서 수학 I 의 출제 문항 수에 맞추어서 공통 문항 수가 결정지어질 것이다. 참고로, 2012 수능 수리 영역에서는 '가'형과 '나'형의 공통 문항으로 수학 I 에서만 7문항이 출제되었으므로 2014 수능에서도 'A형'과 'B형'의 공통 문항이 적어도 7문항 이상 출제될 것이다.

▶ **교과 중심 출제가 강화됨에 따라 내신형 문제 유형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2012 수능 수리 영역을 살펴보면 통합적인 사고 능력 보다는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을 다수 출제하는 경향이 있다. 2014 수능에서 교과 중심 출제를 강화한다면 이와 같은 출제 경향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여 기본적인 개념이나 정리에 대한 이해 정도를 평가하는 내신형 문항이 지금보다 더 많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수학을 어려워하고, 수학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도 교과서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학습하는 것이 좋겠다.

▶ **'A형'의 경우, 문제은행식 출제 체제가 강화될 것이다.**

'A형'의 난이도를 현행 수능보다 더 쉽게 출제하기 위해서 신유형의 문항을 개발하기 보다는 문제은행식 출제 체제가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 영역

1. 주요 개편 사항 요약

개편 사항	세부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과목명 변경	외국어(영어) 영역	영어 (A형 / B형 중 택 1)
수준별 시험 도입 및 응시	외국어(영어) 영역	영어 A형 : 현행 수능보다 쉽게 출제 영어 B형 : 현행 수능 수준 유지
출제 범위	범교과적 출제	▶ 교과 중심 출제 영어 A형 : 영어, 영어 I (실용영어 중심) 영어 B형 : 영어 II, 영어 독해와 작문, 심화영어회화(기존 수능 시험의 범위) ※ 지시문, 질문 등은 현재 수능처럼 A/B형 모두 한국어로 제시
문항 수 축소	50문항, 70분, 100점 만점	45문항 , 70분, 100점 만점
문항별 배점	1점-3문항, 2점-44문항, 3점-3문항	2점-35문항, 3점-10문항
듣기 평가 50%로 확대	듣기 평가 17문항	듣기 평가 22문항 ※ 듣기 평가에서 세트형 문항(1대화문[담화문] 2문항) 도입

2. 개편안에 따른 2015 수능 출제 방향 예측

※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일선 학교에서의 준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비상에듀에서 예측한 자료를 제시함.

▶ 실용영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듣기·말하기 문항 수를 확대함에 따라, 듣기·말하기 영역에서 새로운 유형의 문항이 출제될 것이다.

실용영어 중심의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듣기·말하기 문항 수를 기존 34%(50문항 중 17문항)에서 50%(45문항 중 22문항)로 확대하게 됨에 따라, 듣기·말하기에서 새로운 유형의 문항이 출제될 가능성이 많다. 현재 듣기·말하기 문항은 1대화문[담화문] 1문항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2014 수능에서는 1개의 대화[담화]를 듣고 2개의 문항을 푸는 세트형 문항이 출제될 것이라고 이미



발표된 바 있다. 또한 과거 모의평가나 수능에서 출제된 적이 있으나 최근 수능에서는 출제되지 않고 있는 「대화[담화]를 듣고 이유를 추론하는 문항」, 「대화[담화]를 듣고 요지를 추론하는 문항」, 「담화[강의 내용]를 듣고 결론을 추론하는 문항」 등의 유형이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 **듣기·말하기 영역과 달리, 읽기·쓰기 영역에서는 문제 유형상의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읽기·쓰기의 경우, 출제되는 문항들의 유형상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행 수능에서 33문항이 출제되고 있는 읽기·쓰기의 문항 수가 23문항으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 6문항이 출제되는 빈칸 추론 유형의 문항 수가 줄어들 것이고, 또한 2문항이 출제되던 유형들(주제 추론, 요지 추론, 제목 추론, 내용 일치, 문법 문제, 어휘 문제 등)이 1문항씩만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문의 경우는 현행대로 2세트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읽기·쓰기에서 실제로 학생들이 체감할 만한 유형의 변화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 **교과 중심 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교육과정에 제시된 공통 어휘, 의사소통 예시문, 소재를 충실히 활용한 문항이 출제될 것이다.**

범교과적으로 출제되던 것에서 교과 중심으로 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재까지의 수능에 비해 고교 교육과정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다. 교과 중심으로 출제된다고 했으므로 당연히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겠지만, 영어의 경우 과목의 특성상 특정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대화문]을 그대로 활용하여 문항을 출제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신 여러 교과서에 공통으로 나오는 어휘, 의사소통 예시문, 소재[글감]를 활용하여 문항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 **대학이 영어 A형 시험보다는 B형 시험의 반영 비율을 높일 가능성이 많아서, 2015 수능 영어 시험 준비에 있어 수험생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일환으로, 2014 수능 개편안에서는 B형을 최대 2과목까지 응시 가능하도록 하되, 국어 B형과 수학 B형을 동시에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제한을 두었다. 그러나 이 경우, 대부분 중상위권 대학들이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과 상관없이 영어 B형 시험을 선택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실제로 중상위권 이상의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 느끼는 부담감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자신이 목표하는 대학에 따라 학습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목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회탐구 영역

1. 주요 방향 및 학습 대책

2014 수능은 수험생의 과도한 수능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만으로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수능에서 출제하는 내용이 일치되도록 교과 중심의 수능 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사회탐구 영역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면서 수능 학습 전략을 세워야 한다. 첫째, 범교과 대신에 교과 중심으로 문항을 출제한다고 발표했으므로, 교과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둘째, 선택 과목의 경우 쉬운 수능 기초를 가장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주의 깊게 읽고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여 실수를 줄여야 한다. 셋째, 가급적이면 응시생 수가 많은 과목을 선택하여 위험 부담을 줄여야 한다.

2. 개편 내용

사회탐구 영역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변경된 과목을 수능 시험 과목에 반영했고, 최대 선택 과목 수를 기존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축소했다.

개편 사항	세부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과목명	▶ 기존(11과목에서 3과목 선택) 국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윤리	▶ 2014 개편안(10과목에서 2과목 선택) 한국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최대 선택 과목 수	11개 과목 중 3과목	⇒ 10개 과목 중 2과목
과목당 문항 수	20문항	20문항
과목당 시험 시간	30분	30분
과목당 점수	50점	50점



과학탐구 영역

1. 주요 방향 및 학습 대책

2014 수능부터는 새롭게 바뀐 교육 과정이 적용되어 수능을 치르게 되는데, 과학탐구의 경우 전체 과목 수에서는 현재와 차이가 없고 다만 응시 과목 수가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이전의 4과목까지 응시하던 경우 또는 현행 3과목까지 응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모의고사 등을 치르면서 여러 과목을 충분히 응시해보고 자신에게 강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선택과목이 2과목으로 줄어들게 되면 이러한 기회를 가지기 힘들 것이므로 자신에 맞는 과목을 시험 응시 경험과 무관하게 고2 과정을 거치면서 확실하게 학습하여 선택하고, 고3이 되어서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벽하게 학습해 둘 필요가 있다. 최근 수능도 어렵지 않게 출제하려는 기초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2. 개편 내용

2014 수능부터 과학탐구 영역에서 바뀌는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편 사항	세부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과목명	물리Ⅰ, 화학Ⅰ, 생물Ⅰ, 지구과학Ⅰ,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최대 선택 과목 수	8개 과목 중 3과목	8개 과목 중 2과목
과목당 문항 수	20문항	20문항
과목당 시험 시간	30분	30분
과목당 점수	50점	50점



3. 2015학년도 수능 대비 학습 전략

국어 영역

■ 학교 공부가 중요하다!

2014학년도부터 새롭게 개편되는 체제를 따르는 수능은 다음의 세 가지를 기본 목표로 한다.

- 첫째, ‘과도한 시험 준비 부담이 없는 수능’,
- 둘째, ‘별도 사교육 없이 학교 수업을 통해 준비할 수 있는 수능’,
- 셋째, ‘교육 과정 취지 반영으로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수능’.

이는 수능이, 현행 내신형 학교 시험과 수능 시험의 문제 유형이 달라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따로 해야 하는 부담감을 줄여 주기 위한 목적으로 개편됨을 말하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수능에서 출제하는 내용을 일치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2015 수능은 내신을 준비하는 것이 곧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에 학교 수업의 중요성이 현재보다 높아질 것이므로, 수험생들은 학교 공부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 각종 교과서를 꼼꼼히 살피도록 한다!

2014 수능과 마찬가지로 2015 수능도 ‘교과 중심 출제 강화’를 근간으로 할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를 응용·변형한 문항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은 곧 교과서를 꼼꼼하게 공부하면 문제 풀이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각 교과서를 세밀히 살피는데,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등한시했던 ‘화법과 작문’ 교과서도 집중해서 살피야 할 것이다. 읽기 제재(문학/비문학)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이 선택할 유형(‘A형’ 또는 ‘B형’)에 해당하는 ‘화법과 작문 I’(A형) 또는 ‘화법과 작문 II’(B형) 교과서를, 내용뿐 아니라 사례까지도 꼼꼼히 살피고 이해해야 한다. 이런 준비를 한다면 2015 수능 시험의 첫 시간 시작을 당황하지 않고 잘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희망 계열을 가능한 한 빨리 정하라!

2014학년도 수능부터 시행되는 개편안의 교과 변경 사항을 보면, 변경 전에는 단일 교과서로 존재하던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교과서가 각각 I, II로 나뉘어 수준별로 편성됨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이를 이용하여 ‘A형’에서는 각 I에 해당하는 과목들에 기초하여, ‘B형’은 II에 해당하는 과목들에 기초하여 출제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A형’을 보는 이공계열을 지망하는 수험생의 경우는 화법과 작문 I, 독서와 문법 I, 문학 I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하고, ‘B형’을 보는 인문사회계열을 지망하는 수험생의 경우는 화법과 작문 II, 독서와 문법 II, 문학 II를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생이 지망하는 대학 계열에 따라 학습 과목을 달리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희망 계열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맞는 수준별 교과서(I 또는 II)를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개인별 맞춤형 준비가 필요하다!

최근 몇 년 간 시행된 수능을 통해 볼 때, 수능이 점점 쉬워지는 추세이다. 또한 2014학년도부터 새롭게 개편되는 수능은 ‘대입에서 수능 비중이 약화되고 있는 대입 선진화 방향에 맞추어, 학교 수업을 통해 준비할 수 있고 과도한 준비 부담 없는 수능 시험으로 개편’함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흐름을 감안할 때 아주 어려운 수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수험생들에게는 수능 자체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수능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들의 입장에서는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학들이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고사를 마련하여 원하는 학생들을 선발하려 들 것이므로, 대학마다 입시 전형에 변화를 가져올 확률이 높다. 그리고 학생들은 지망 대학이 요구하는 새로운 입시 전형에 맞춰 대입을 준비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2015학년도 수능에 반영되는 새롭게 개편되는 시행 방안은 작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빨리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가능하다면 지망 대학 및 학과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이에 맞는 맞춤형 대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 문학 작품은 될 수 있는 한 깊이 이해하라!

2015학년도 수능에서도 2014학년도 수능 시험 개편 방안에서 제시한 사항인 수능에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 주려는 목표를 계속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2015 수능은 현행 수능의 문학 제재에서 한 시험 당 출제되는 총 작품 수가 6~8작품인 것과는 다르게, 작품 수를 줄이는 차원에서 한 지문에 한 작품씩을 출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현행 수능에서 3작품을 한 지문으로 하여 4~6문항을 출제하는 방식을 감안하면, 이는 한 작품 당 출제되는 문항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곧 한 작품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물어보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작품에 대한 심층적인 사항을 묻겠다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수학 영역

■ 고등학교 수학, 지금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수학 과목의 특징이 바로 단계적이라는 것이다. 즉, 이전 단계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후의 학습은 더욱 어려워진다. '고등학교 수학'은 수능 출제 과목이 아니지만 수능에서 통합적인 사고를 평가하고자 '고등학교 수학'의 내용이 연계되어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능 과목이 아니라고 해서 소홀히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이 아니면 다시 학습할 기회가 없다는 생각으로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습관을 기르라!

아무리 개념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문제에 적용하여 해결할 수 없다면 절대로 점수를 올릴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습관을 길러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야 한다. 문제를 풀면서 정답을 확인하는 것에만 급급하기보다는 문제가 잘 풀리지 않더라도 교과서나 참고서를 찾아보며 풀이 과정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혹시 풀이를 참고했다면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스스로 꼼꼼히 풀어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 문제의 풀이 과정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라!

수학을 싫어하거나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문제를 풀이할 때, 일정한 룰이 없이 연습장의 빈 곳을 찾아 적어 나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습관은 수학 문제를 푸는 데 반드시 필요한 단계적·연역적 사고를 흐트러뜨리고, 풀이 과정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문제를 틀렸을 때 어느 과정에서 틀렸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 처음부터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되고, 학습이 지루해져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된다. 따라서 올바른 풀이가 아니어도 자신의 생각을 풀이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과정을 순차적으로 적어 나가는 습관을 길러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발상을 연결 또는 확장시키는 연습을 충분히 하도록 한다.

■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여 어느 유형을 택할 것인지 미리 고민하라!

2015학년도 수능에서 수학은 2014 수능 개편안에 따라 두 가지 수준, 'A형'과 'B형' 시험을 제공하여 수험생들이 진로나 진학하고 싶은 모집 단위에 따라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하게 된다. 'B형'은 현행 수능의 난이도로 출제되지만 'A형'은 현행 수능보다 더 쉽게 출제하겠다고 밝혀 'A형'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진로와 수준을 파악하여 'A형'과 'B형' 중 어느 유형을 택할 것인지 지





금부터 고민하는 것이 좋다. 또, 어느 유형을 선택하든지 수학이 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과목임을 명심하여 충분히 학습하도록 한다.

■ 오답 노트를 작성하라!

수학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 학생들을 보면 매 시험에서 비슷한 문제를 계속 틀리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개념이나 틀린 문제를 따로 정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 풀이에만 치우치기보다는 오답 노트를 작성하면서 오개념을 정리하고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철저히 분석하면서 풀어 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오답 노트는 작성한 후에도 반복적인 복습을 통해 꾸준히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한다.

영어 영역

■ 듣기에 투자하는 시간을 많이 늘리라!

2014 수능 개편 안에 따라 영어 듣기 문항이 50%(총 45문항 중 22문항)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듣기 문항 수의 증가로 신유형이 출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수능 유형에 따른 듣기 공부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듣기 학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선 매일 일정한 분량을 정하여 꾸준히 들어야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듣기 학습 자료를 선택하는 것이다. 실력에 비해 너무 어려운 학습 자료를 선택하면 꾸준한 듣기 연습을 하기가 힘들어짐을 명심하도록 한다.

듣기가 중요해졌다고 해서 무작정 많은 문항을 풀려고 하는 것보다는 단 몇 문항이라도 반복해서 듣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듣기를 할 때는 핵심 단어만 듣는 것이 아니라 구, 문장, 전체 문장으로 확대해 들으면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다시 들으면서 소리 내어 따라 읽어보는 연습을 하면 영어의 억양이나 발음까지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교과 내용 속의 어휘와 의사소통 예시문은 반드시 익히라!

교과 중심의 출제로 강화됨에 따라 어휘 학습 역시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러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 리스트를 정리하여 매일 일정한 분량을 암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어휘를 학습할 때는, 단순히 해당 어휘만 암기하는 것보다는 그 어휘와 함께 쓰이는 동사나 전치사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어휘력 향상에 훨씬 도움이 된다. 교과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어려



운 어휘들은 힘들게 암기하기보다는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평소 독해를 하다가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글의 맥락 속에서 그 뜻을 유추해 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실전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구문 학습을 소홀히 하지 마라!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 문법 자체를 지나치게 파고들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정확한 독해를 위해서 기본적인 문법 지식과 구문 이해 능력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우선 모르는 어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장의 해석이 안 된다면 문장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럴 경우 가벼운 문법서로 개념 정리를 한 후, 직접 독해를 하면서 문법 지식을 적용해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 글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독해하라!

독해를 할 때 단순히 영어 문장을 해석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의 단락은 긴밀한 문장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있으므로, 글을 읽을 때는 글의 전체 흐름을 생각하면서 독해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지시어, 연결어, 대용어 등은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므로, 놓치지 않고 꼼꼼히 파악하는 연습도 충분히 해 두도록 한다. 또한 글을 읽으면서 단락 안에서 중요한 문장에 초점을 맞추고 글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기 위해 평소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는 것도 필요하다.

사회탐구 영역

■ 개념·원리 학습을 통해 2015 수능을 준비하라!

사회탐구 영역에서 개념·원리 학습은 가장 기본이 된다. 거의 대부분의 문항들이 교과와 주요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다. 비록 수능에서 사회 과학적 탐구 능력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사고력을 측정한다고 하나, 이는 개념·원리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수능 시험 개편안에 의하면 교과 중심의 수능 시험 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수능의 출제 내용을 일치시킨다고 하므로, 개념·원리 학습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드시 교과서와 개념 설명이 자세한 교재를 택해 정확한 개념 학습과 전체적인 흐름 파악에 주력해야 한다. 여기에서 명심할 점은 단순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암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맥락에서 쓰인 것인지를 스스로의 말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짧은 시간 동안에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기술을 습득하라!

2012 수능에서도 자료 분석형 문항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고 자료의 형식이 다양화되는 경향이 이어졌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5학년도 수능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료, 사진, 신문 기사, 도표, 그래프, 지도 등과 같은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문항을 구성하고 있으며, 자료 분석형 문항들은 어느 정도 일정한 출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수능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 동안에 제시된 자료를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하는가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상시에 시간을 정해 두고 그 시간 안에 정확하게 자료를 분석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자료의 핵심 내용에 주목하면서 답지와 관련된 정보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프나 도표 자료의 경우에는 도식화된 값의 증감 및 변화 양상,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 등을 찾아내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 두는 것이 좋다.

■ 기출 문항 유형을 정리하라!

수능의 두드러지는 출제 경향 중 하나는 기출 문항을 변형하여 출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신유형 문항이나 새로운 소재를 활용한 문항들 못지않게 정형화된 문항들도 상당한 비율로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수능의 문항 유형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2015학년도 수능에서는 기출 문제가 적어 유형을 정리하기가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2015학년도 수능에서도 출제되는 문항의 구성 원리가 이전의 수능들과 비슷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2014학년도 수능 이전의 기출 문항을 많이 풀어 자주 출제되는 유형을 주제별로 정리하고 이를 반드시 익혀 두어야 한다. 특히 고난도 문항의 유형과 복합적 개념을 묻는 문항에서 개념들의 연관 방식 등을 분석하여 정리해 두면, 수능에서 고득점을 하는 데 매우 유리할 것이다.

과학탐구 영역

■ 새 교육 과정이 반영된 교육청 및 평가원 기출 문항을 완벽하게 분석하라!

2014 수능부터 새롭게 바뀐 교육 과정이 적용되므로 2013학년도까지의 기출 문항을 풀어보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개정 교육 과정에 연관 되는 문항만 선별하여 풀어보면 되지만 일일이 연계되는 문항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므로, 개정 교육 과정이 반영되는 2012년도와 2013년도 및 2014년도에 시행될 교육청 및 평가원 기출 문항을 중심으로 수능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의 경우에는 기출 문항이 거의 없을 것이므로 어떤 유형으로 출제될지 예측하기가 매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 개념을 철저히 학습하고 많은 문항





을 풀어보아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2015학년도 수능 응시생들의 경우 2014학년도 수능 기출 문항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출제 경향에 대한 대비가 조금은 수월할 것으로 생각된다.

■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과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라.

과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최근 수능에서는 기본 교과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확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자료를 해석하는 문항과 단원 통합형 문항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의 내용과 핵심이 되는 개념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미 학습을 하였더라도 실전 문제 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처음에 한 번 잘못된 개념을 익히면 바로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번 틀린 문항은 계속해서 틀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교과 개념과 기출 문항을 연결하여 자신만의 정리 노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 교과서의 실험 탐구를 꼼꼼히 살펴보라.

교과서를 학습할 때 교과 개념 학습에 치중한 나머지 실험 탐구 자료를 학습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도표, 그래프, 그림, 사진 등의 형식을 이용한 다양한 자료들을 해석 및 분석하는 문항과 더불어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실험, 탐구 활동의 설계 및 수행 과정에 대한 문항이다. 따라서 교과서를 학습할 때 학습 내용과 관련하여 제시되는 실험, 탐구 내용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험의 방법과 순서를 직접 해 본다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이해하도록 하고, 관련 개념과 연관지어 이해해 두도록 하자.

■ 실생활과 관련된 소재와 최근 이슈가 되는 과학적 내용에 관심을 가지라.

최근 수능에서는 실생활과 관련된 문항도 많이 출제되고 있으며, 과학적으로 이슈가 되는 내용들은 과학 관련 논술의 주제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꾸준히 과학 관련 기사나 뉴스에도 관심을 가져 교과 개념과 연관 지어 이해해 두도록 하자. 교과 개념과 연관된 신문 기사 등은 따로 스크랩하여 학습 자료로 사용하는 것도 좋겠다.

대학별고사 출제 경향 및 대비 전략



1. 논술 출제 경향 및 대비 전략

논술고사 출제 경향

1. 인문계열

■ 대학별 출제 경향의 안정화

인문계열 논술의 특징 중 하나는 출제 경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대의 경우 유일하게 정시 모집에서 논술고사를 실시하는데, 통합논술을 표방한 2008학년도 이후의 다문항·다논제 형식이 유지되는 편이다. 고려대는 2009학년도 모의 논술에서 발표한 요약과 비교·비판, 논리 추론의 다논제 형식이 이어지고 있다. 논제 수에서 하나 정도 차이를 보이는 해도 있기는 했지만, 유형이나 내용상의 변화라기보다는 논제를 세분한 결과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연세대의 경우는 서울대, 고려대와 달리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2011학년도에 이미 시험 시간이 3시간에서 2시간으로, 논제 수도 3개에서 2개로 줄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비교와 비판, 자료 해석을 묻는 큰 맥락은 유지되고 있어 의미 있는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서울대	통합논술을 표방한 2008학년도 이후 다문항·다논제 형식 유지 (정시 모집)
고려대	2009학년도 이후 요약과 비교·비판, 논리 추론의 다논제 형식으로 출제
연세대	비교와 비판, 자료 해석 능력을 평가하는 논술고사의 큰 맥락 유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의 대학들 역시 최근 몇 년 동안 논술고사의 기본적인 틀이 유지되어 각 대학별로 출제 경향이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교과 통합의 강화 및 제시문의 다양화

인문·사회 교과를 연계하던 수준이 과학·수학 교과의 통합으로까지 확장되는 추세이다. 서울대 정시 논술고사는 과학 교과와의 통합이 강화된 편이고, 고려대의 경우 논리적·수학적 사고를 요하는 논제도 출제되고 있다. 특히, 인문·사회 계열과 분리하여 문제를 출제하는 한양대 상경계열의 경우, 자연계열 수준에 근접하는 논제도 출제된 바 있다. 서울시립대와 경희대 역시 수학 관련 문항의 난이도가 기존에 비해 어려워진 편이다.





한편, 제시문의 경우 동서양 고전, 문학 텍스트, 통계 자료, 이미지(그림, 사진) 등은 물론 노래 가사나 만화 등 그 형식이나 내용이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통계 자료의 활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논술고사에서 영어 제시문을 활용하는 대학이 한국외대, 경희대, 동국대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 자연계열

■ 수학 관련 논술 비중의 강화

최근의 대학별 논술고사를 통해 본 자연계열 논술고사의 가장 큰 변화는 수학 관련 논술의 비중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한양대의 경우 과학 논술 없이 수학 논술만 출제되는 추세이며, 서강대는 기존에는 과학 논술이 종종 출제되기도 하였는데, 최근에는 언어 관련 논술과 수학 논술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출제되는 편이다. 그리고 연세대는 과학 논술이 1세트로 축소되면서 수학 논술의 비중이 40%에서 60%로 증가하였다. 성균관대는 과학 논술에 수학 논술이 통합형으로 출제되는 형식이었는데, 최근에는 1~2문항 정도의 독자적인 수학 논술이 출제되고 있다.

■ 본고사형 문제의 강화

최근 자연계열 논술고사의 또 하나의 특징은 사실상 본고사형에 가까운 문제들의 출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상위권 대학의 경우 기존에 비해 제시문의 내용을 축소하여 간단한 자료 정도만을 제시하고 문제 해결을 유도하는 형태로 출제되어, 논술이라기보다는 과거의 본고사 문제와 유사한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 '본고사형' 문제의 의미를 간단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본고사 유형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본고사형 문제의 성격 두 가지

첫째, 계산이나 공식을 통해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문제들의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둘째, 수능에만 맞춰 준비할 경우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출제되고 있다는 점

■ 채점 기준의 간소화

출제 의도와 채점 기준을 정확히 발표하는 대학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것을 발표하는 대학이나 비공식적으로 채점 교수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수학 논술, 과학 논술 모두 정확한 답에 중점을 두어 채점을 한다는 것이다. 즉, 자연계열 논술고사는 글을 얼마나 잘 쓰느냐보다는 관련 공식이나 핵심 용어, 법칙 등을 얼마나 정확하게 사용하여 출제자가 의도한 정답이나 결론을 어떻게 이끌어 냈느냐가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자연계열 논술의 경우에는 표현이나 글쓰기 능력은 일부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수준이고, 전체적으로는 문제에 대한 해결력이 고득점의 주요 변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논술고사 대비 전략

1. 인문계열

■ 논술 관련 기본 능력 배양

• 논제 분석

‘학생들이 논제에 충실하게 접근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지적한 서울대 교수의 말에서도 드러나듯이, 수험생들 중에는 논술 문제를 접근하는 출발점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에 소홀한 경우가 의외로 많다. 고려대, 연세대의 경우도 역시 논제에 부합하는 글쓰기를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논해야 하는 핵심 주제(쟁점) 및 과제를 확인하고, 답안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하는 논제 분석 과정이 논술의 시작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제시문 분석

제시문은 글감과 생각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주요 내용이다. 따라서 제시문 분석이 정확하지 않으면 출제 의도에 부합하는 논술문 작성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평소에 글이나 자료를 분석적으로 읽으며 해석해 나가는 연습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시문은 대개 복수로 주어지므로, 논제에서 비교하라는 말이 없어도 제시문의 내용을 비교해 가면서 읽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제시문들 간의 상호 비교 과정을 통해 각 글에서 강조하는 논점이나 글의 핵심 논지를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는 곧 논술문 작성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 논제 유형별 학습

대학들이 논술고사를 통해 측정하려는 이해·분석력, 논증력, 창의력 등은 대개 특정 유형의 논제와 상응한다. 이해·분석력을 측정하는 논제는 요약·비교형에 해당하며, 논증력을 평가하는 논제는 비판형과 관련이 깊다. 그리고 최근에 중시되는 창의력은 문제 해결형 논제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문제 해결형 논제의 경우 문제의 인식과 원인 분석을 전제하므로, 대개 앞에서 언급한 두 유형의 논제에 이어서 마지막 단계에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논제 유형에 따라 측정·평가하고자 하는 항목이 약간씩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각 논제 유형에 적절한 답안 작성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논제의 성격을 기반으로 그 대표적인 유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요약형 문제

제시문을 요약하는 유형을 별도의 논제로 출제하는 대표적인 대학은 고려대이다.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주장), 이를 지지하는 세부 내용(근거)을 수험생 자신의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요약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글이 되어야 한다. 제시문 전체의 내용을 단순히 압축하거나 제시문의 문장 혹은 특정 표현을 단순히 인용해서는 좋은 요약문이 될 수 없다.

• 비교 및 분석형 문제

제시문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비교·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기준의 설정





이다.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상이하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논술에서 ‘~를 비교하시오.’라는 논제는 별도의 지시 사항이 없는 경우 공통점을 분석하는 차원을 넘어 차이점도 함께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 **언어 텍스트에 대한 분석형 문제**

일반적으로 제시문이나 논제에서 분석의 기준(틀)을 주고, 이를 근거로 해서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분석의 대상은 인물(인간)의 행위일 수도 있고 사회 현상일 수도 있는데, 대개의 경우 원인과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인과적 분석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다.

● **통계 자료나 그래프에 대한 분석형 문제**

통계 자료를 해석할 때에는 자료에 담긴 현상의 구조 및 변화 추이와 그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도표(그래프)를 해석할 때에는 도표상의 단계별 변화율이나 양적 표현을 수리적으로 구체화하여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비판형(평가형) 문제**

특정 견해나 관점을 비판·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지하는 전제와 논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핵심이므로, 먼저 평가 대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평가의 결과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 논거가 적절하고 타당해야 한다.

● **선택형(옹호나 논박형) 문제**

여러 견해들 중 자신이 지지하는 견해를 밝히는 유형이다. 다른 견해가 가진 허점에 대해 논박하는 과정을 수반하므로 옹호·논박형 문제라고도 한다. 특정 견해에 대한 지지와 논박 모두 논리적인 근거 제시가 필요하므로 치밀하고 타당한 논증 과정이 필요한 유형이다.

● **주제에 대한 견해 제시형 문제**

특정 사안에 대해 대안이나 해결책을 요구하는 유형은 인문계열 논술고사에서 자주 출제되는 형식이다. 이 유형에서는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가 얼마나 타당한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보편타당성, 적합성, 다양성에 따른 논거를 제시하면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술하고,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까지 논의한다면 훌륭한 논술 답안이 될 것이다.

■ **기출 문제를 활용한 학습**

대학별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학습은 논술고사 준비의 필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 교수들이 오랜 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출제한 기출 문제 이상의 논술 학습 자료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원하려는 대학과 상관없이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여러 대학의 기출 문제를 스스로 풀어 보는 과정에서 체득한 감각과 실력은 낯선 주제를 접하는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배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접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런 형식의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

■ **대학별 논술 유형 및 특징 숙지**

비슷한 유형의 논술 문제라 하더라도 요구하는 답안 내용이나 기준이 대학별로 다를 수 있다. 대학별로 발표하는 해설 자료와 예시 답안, 학생 우수 답안 등은 각 대학이 요구하는 답안의 내용과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이므로 반드시 점검해 두어야 한다.



2. 자연계열

■ 교과서 내용에 대한 철저한 학습

자연계열의 경우 논술고사 준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재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의 내용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나 원리와 관련된 접근 과정을 논리적으로 유도하고 설명하고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도의 심도 있는 공부를 해야 한다. 또한, 수학 논술이나 과학 논술은 정답에 가까운 답안, 대학에서 의도한 답안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묻는 내용을 모르면 아예 논제에 접근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연계열 논술의 경우에도 고득점을 위해 자신의 생각을 수학적·과학적인 언어로 간결하게 표현하는 연습도 해 둘 필요가 있다.

■ 수능과 함께 준비하는 논술 공부

학생들은 논술과 수능을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논술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자연계열 수학 논술 기출 문제를 살펴보면, 주어진 문제를 풀어서 정확한 답을 구하는 문제의 비중이 늘면서 수능 공부와 병행해도 큰 무리가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만 수능의 수학 영역 문제에서는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시되는 반면, 수학 관련 논술에서는 결론 도출 과정도 중시된다는 점이 다르다. 제시문에 주어진 내용을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 보면, 대부분이 수능을 준비할 때 접해 봤던 식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학적 개념이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수학 과목 본연의 성격을 감안하여 공부한다면 수능과 논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과학 논술의 주요 특징은 교과 과목을 활용한 교과 지식형 논술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 논술의 경우도 기본적인 과학 교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과목 주요 단원의 개념과 원리를 단순히 암기하는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학습해 두어야 할 것이다.

■ 기출 문제를 활용한 공부

얼마 전까지 자연계열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것이 어려웠던 한 가지 원인은 대학마다 논술의 유형이 다르고 출제 범위가 모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연계열 논술고사가 정착되면서 논술 문제의 유형과 그 범위가 어느 정도 일반화·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그동안 각 대학별로 출제된 다양한 기출 문제들을 모아서 정리하는 것이 자연계열 논술 대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시중에는 자연계열 논술과 관련된 좋은 교재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연계열 논술 대비를 위한 가장 좋은 문제지는 역시 각 대학의 기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학 관련 논술의 경우 인구수의 변화에 대한 수열의 극한과 관련된 문제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에서 유사한 형태로 출제된 바 있고, 구분구적법이나 미분 등과 관련된 문제도 유사한 내용으로 출제된 바 있다. 과학 논술의 경우도 페르마의 정리 관련 내용이 경북대, 고려대, 성균관대, 인하대, 한양대 등에서 출제된 바 있으며, 광학이성질체 관련 내용이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한양대 등에서 출제된 바 있다.





2. 면접·구술 출제 경향 및 대비 전략

면접·구술고사 출제 경향

1. 인문계열

인문계열 면접·구술고사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인성 및 가치관을 알아보는 기본 소양 평가, 전공 관련 내용을 측정하는 전공 적성 평가라는 틀이 유지되고 있다.

- 기본 소양 평가 : 일반적인 대학에서 거의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편이며, 수험생의 지원 동기나 학업 계획 위주의 인성 및 기본 소양 평가가 이루어진다.
- 전공 적성 평가 : 대체로 중·상위권 대학에서 실시하는 편이며, 지원자의 전공과 관련하여 사전 지식을 점수화하여 평가한다.
- 기타 : 일부 대학의 국제학부나 국제화 관련 전형에서는 영어 면접을 실시하기도 하고, 논술고사의 경우처럼 영어 제시문을 활용한 문제를 출제하기도 한다.

2. 자연계열

자연계열 면접·구술고사의 경우 대학마다 문제 유형이 다양한 편이다. 일반적인 경향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서울대의 경우 심층 면접으로 수학 문제와 과학 문제(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 과목 선택)가 출제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문항의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운 편이다.
- 중·상위권 대학의 경우 대체로 수학 문제들이 수능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되고 있어 교과 과정에 맞춰 준비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특기자 전형이나 조기 졸업자 관련 면접·구술 문제의 경우 난이도가 심층 면접과 유사한 수준으로 어렵게 출제되고 있다.
- 기타 일반적인 대학의 경우 과학과 수학 관련 문제들이 섞여서 출제되는 편인데, 교과외의 기본 개념을 묻거나 실생활에서 접하는 현상이나 문제들을 교과 내용과 연계하여 접근하는 형태의 문제들 위주로 출제되고 있다.





면접·구술고사 대비 전략

1. 인문계열

■ 기본 소양 평가

기본 소양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 진로 계획 등에 대해 일관성 있게 준비하고 답변해야 한다. 그리고 충실한 답변의 토대와 관련하여 지원 대학에 제출하는 자기소개서도 매우 중요한데, 지원하는 모집 단위(학과)와 상충하는 내용이 생기지 않도록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지원하는 모집 단위(학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숙지하고,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시사 상식도 관심을 가지고 폭넓게 공부를 해 두어야 할 것이다.

■ 전공 적성 평가

전공 적성 평가는 대개 학업 적성 면접 형태로 실시되는데, 지원 모집 단위(학과)와 관련된 교과 지식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교과서가 가장 기본적인 학습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개념이나 원리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면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도 제시되므로 주요 개념 및 원리를 체계적으로 숙지해 두어야 한다. 일부 대학(전공)의 경우 영어 지문이나 한문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교과 내용과 관련된 시사 쟁점이 심층적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구체적 사회 현상에 대해서는 원인과 실태 등을 분석적으로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2. 자연계열

■ 수학

• 중·상위권 대학 심층 면접

수학 관련 논술이 본고사형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보편화되면서 수학 심층 면접과 수학 관련 논술 간의 차이점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따라서 수학 심층 면접은 수학 논술과 병행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수학 심층 면접 문제가 수학 논술 문제로 출제되거나 수학 논술 문제가 수학 심층 면접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여 따로 준비하기보다는 같이 준비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수학 심층 면접은 대부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수학 교과서 내용에서 출제된다. 그런데 수능 문제에 비해 개념이나 원리를 심층적으로 적용하는 유형이 출제된다는 점에서 깊이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부 상위권 대학에서는 수학 심층 면접에서 칠판을 이용하여 직접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이해는 물론 논리적인 표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이다.





• 중위권 대학 면접·구술

중위권 대학의 수학 과목 면접은 대체로 수능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수능 시험과 병행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개 대기실에서 10여 분 내외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부여한 후 면접을 실시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수험생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면접 담당 교수가 해결의 실마리를 주어 임기응변 능력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 과학

• 상위권 대학·특기자 전형·조기 졸업자 전형 심층 면접

과학 심층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대개 선택 과목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진다. 상위권 대학의 경우 대학 수준의 일반물리, 일반화학, 생물학 수준의 문제들도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고득점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학 경시 대회를 준비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답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한두 문항 출제되고 있지만, 합격선이 50점 내외이므로 과학Ⅱ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해 두고 주요 개념이나 원리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학습해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리의 경우 역학과 전자기, 화학의 경우 화학 평형과 반응 속도, 생물의 경우 DNA 형질 발현과 유전, 지구과학의 경우 해수와 대기의 운동에 따른 기후 변화 등이 빈출 주제이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화 학습이 필요하다.

• 중위권 대학 면접·구술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선택 과목에 대한 선택권이 없이 고등학교 과학Ⅰ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다지 어렵지 않게 출제되는 편이다. 따라서 수능을 준비하면서 과학 면접·구술도 병행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과학 면접·구술의 경우도 수능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이나 원리들이 출제되는 편이므로, 우선 과학Ⅰ 교과서의 주요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3. 적성검사 출제 경향 및 대비 전략

적성검사 출제 경향

※ 2012학년도(일부 대학 2011학년도) 기준이며,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대 학	문제 구성 및 특징	대 학	문제 구성 및 특징
가천대	-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 관련 문제 - 내신형 문제 + 수능형 문제(간단한 유형) - 국어 영역에 사회 교과 관련 문제 포함	성결대	- 국어 영역: 고등학교 국어 관련 교과 과정 - 수학 영역: 고등학교 수학 관련 교과 과정 - 영어 영역: 어휘, 문법, 독해 능력 평가
가톨릭대	- 언어 사고: 어휘, 문장 구조, 지문 분석, 논리 추론 - 수리 사고: 계산, 수열 추리, 조각 세기, 전개도, 도형 추리	세종대	- 언어 능력: 영어 문제 포함. 어휘, 논리, 추론, 비판 - 수리 능력: 계산, 공간 지각(도형, 전개도), 수리 관련 논리
강남대	- 언어 영역: 영어 문제 포함 - 수학 영역: 계산, 수열 규칙, 도형(전개도)	수원대	- 언어 능력: 어휘 및 어법, 언어 논리, 지문 이해, 상식 - 수리 능력: 계산, 수리 관련 논리, 도형(전개도)
강원대	- 언어 능력: 영어, 사회, 과학 관련 문제 포함 - 수리 능력: 계산 문제 중심. 수학 내신형 문제 포함	울지대 (성남)	- 국어, 수학, 영어 영역 관련 문제 - 수능 출제 경향과 연계하여 고교 교육 과정에서 최대한 활용하여 출제하는 경향
경기대	- 언어 능력: 어휘 및 어법 문제 중심. 논리 및 지문 이해 문제 포함 - 수리 능력: 계산 문제. 도형 관련 문제 포함	중앙대 (안성)	- 자연계열만 실시 - 수리 영역: 기본적인 계산, 수리 관련 논리 및 추론 - 논리 추론 영역: 수열 추리, 공간 지각, 응용 추론
경북대 (대구)	- 인문, 사회계: 국어 및 사탐 영역 관련 서술형, 비교적 간단한 논술형 - 자연계: 과학 관련 서술형, 간단한 논술형	한국기술 교대	- 영어 영역: 발문과 선택지 모두 영문으로 구성 - 수리(수학): 수학 교과 내용 관련 문제로만 구성
고려대 (세종)	- 국어 영역: 어휘, 어법, 표현, 언어 논리 - 수학 영역: 계산, 수학 내신형 문제 - 논리 사고: 수열 규칙 및 추론, 공간 및 도형 추론, 전개도	한국산업 기술대	- 11개 학과: 국어, 수학 영역 관련 문제 - 산업디자인공학과: 국어, 수리학, 공간 지각력(도형, 전개도) 등 디자인 적성 평가
단국대 (천안)	- 언어 영역: 영어 문제 포함, 어휘, 지문 이해, 논리, 상식 - 수리 영역: 수학 교과 과정, 수열 추리, 도형의 전개 및 회전	한국외대 (용인)	- 언어 영역: 어휘, 어법, 지문 이해, 문학 - 수리 영역: 계산, 수학 관련 내신형 문제 - 외국어(영어) 영역: 발문 및 선택지 모두 간단한 영문으로 구성
영지대	- 국어, 수학, 사고 영역 문제로 구성 - 언어 이해력, 수리 능력, 논리 사고력 측정	한성대	- 언어 적성: 어휘 및 어법, 언어 논리, 표현, 지문 이해 - 수리 적성: 계산, 공간 지각(형태 지각), 문자 규칙
서경대	- 국어 영역: 어휘, 어법, 지문 이해, 비평 - 수학 영역: 계산, 수학 기초, 수학 교과 - 사고 영역: 언어 논리, 논증, 수리 논리	한양대 (ERICA)	- 국어 영역: 어휘 및 어법, 언어 표현, 상황 유추, 연상 관련 문제 - 영어 영역: 문법, 어휘, 간단한 수능형 문제 - 수학 영역: 수학 관련 내신형 문제, 수능형 문제 일부 포함
서울과학기술대	- 도형 및 전개도 관련 추리, 자료 해석, 수열 규칙 및 추리, 수학 관련 논리적 사고, 계산, 수학 관련 내신형 문제		





적성검사 대비 전략

1. 국어 영역 관련 문제

■ 언어 사용 관련 유형

대체로 어휘의 의미와 문법 관련 문제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단어의 의미, 한자 성어 및 속담, 관용적 표현 등을 숙지해 두어야 하며, 맞춤법이나 기본적인 문법 관련 사항도 체계적으로 공부해 두어야 한다.

■ 언어 이해 관련 유형

지문의 내용에 대한 이해, 다양한 형식의 자료에 대한 분석과 종합, 표현 의도에 대한 이해, 문학 작품의 분석적 이해 및 감상 관련 문제가 출제된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능의 읽기(문학 및 비문학) 영역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준비하면 된다.

■ 언어 추리 관련 유형

단어의 의미 관계를 추리하거나 분석하는 유형들이 출제된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 해결 능력은 단기간에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 유형 위주로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학별 기출 문제를 통해 문제 유형과 그에 따른 감각을 익혀야 한다.

■ 언어 논리 관련 유형

논리적 판단 과정을 통해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유형으로, 삼단논법이나 논리적인 상황 판단 관련 문제들이 출제된다. 논리적 사고 관련 문제의 경우는 텍스트의 요소들을 구조화하여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학습이 효과적이다.

2. 수학 영역 관련 문제

■ 수학적 계산 관련 유형

수를 다루는 능력을 평가하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집중력과 관련이 있다. 기본적인 계산 능력을 중심으로 이를 일상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측정한다. 수학과 가장 관련이 깊으며, 수학을 잘하는 수험생이 유리하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배운 기본적인 수학 개념 및 원리가 적용된 문제들이 출제되므로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빠른 시간 안에 계산하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 수리적 추리 관련 유형

수와 관련된 추리 능력을 평가하는 유형으로, 나열된 수들의 규칙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 즉, 수학적 공식보다는 수에 대한 감각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비교적 문제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기가 쉬운 편이며,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 볼수록 특징이 용이한 유형에 속한다.

■ **공간 지각 관련 유형**

도형 혹은 전개도와 관련된 공간적 위치나 관계를 바탕으로 여러 상황에 반응하는 능력이나 호기심 등을 측정하는 유형이다. 공간 지각 관련 사항은 일반 교과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기출 문제를 통해 다양한 유형을 접해 보면서 반복 학습을 통해 직관적인 감각을 익혀 나가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영어 영역 관련 문제

■ **어휘 및 문법 관련 유형**

말 그대로 영어 단어 및 문법 관련 사항을 평가하는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된다.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순서를 무작위로 늘어놓고 문법을 고려하여 순서를 파악하는 문제들도 출제되므로 해당 기출 문제를 풀어 보면서 유형에 대한 감각을 익힐 필요가 있다.

■ **영문 독해 관련 유형**

영어 지문의 이해 여부를 평가하는 유형이므로, 수능 독해 학습 방식으로 준비하면 된다. 발문과 선택지를 영문으로 제시하는 대학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